

May 2014 Monthly Gardenin

월간 가든인 5월호

Indoor garden

5월은 정원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달
우리꽃정원
칠곡의 작은 식물원

도시농업의 발견, 귀농과 교육

정미의 진화, 가시없는 장미
봄비! 병원균에 기를 불어 넣다!!

Garden Design & Story

정원디자이너와 함께
정원을 꾸며보자

Gardening Information

5월, 텃밭 · 식물관리법

Indoor garden
실내정원을 가꾸기 위한
황금규칙 열 가지

BIG EVENT!!

테르메덴 할인권
꽃씨 혼합(26종) 세트 2개

도시의 정원
남쪽고향이 만들어진
고리움의 정원

고급 중 중의 귀족
휴케라 (붉은 바위취)

★ 창간 1주년 ★
5
★ VOL. 13 ★



10,000원

여러 개의 작은 꽃이 매력적인

톱풀

HOW TO GROW YOUR GARDEN

정원시공, 관리, 컨설팅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우리꽃은 우리나라 고급 경관 트렌드를 이끌어왔습니다.

여러분의 공간을 자연과 가깝게 아름답고, 쾌적한 고품질의 경관으로 창출합니다.

우리꽃만의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당신의 정원을 더욱 특별하고 가치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공간의 재탄생

단조로운 베란다, 쓸모없는 옥상이 나만의 휴식 공간으로,

유럽풍 키친정원으로, 내 아이의 생태 놀이터로 재탄생됩니다.

피곤한 일상에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힐링 공간을 만들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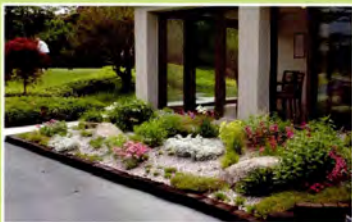
정원의 품격

잘 가꾼 정원은 주택의 가치를 높입니다. 정원의 주제와 식물소재는 적당하지,

내 정원환경은 어떤지, 정원 소품 디스플레이 등 현재 정원상태를 진단받아 보세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꽃의 식물들은 정원의 품격을 차별화 시킵니다.

시공사례



Cover Story

좋은 소식 전해주는

붓꽃 Iris 아이리스

개울가 물이 마르지 않는 곳에 파랑에 가까운 보라색으로 피어있는 붓꽃을 보았는가? 또르르 말린 꽃봉오리가 뽕뽕 올라오면 좋은 소식이 있을까하는 궁금증이 들기도 했다. 하양, 노랑, 분홍, 보라, 연분홍, 파랑 등의 색으로 물드는 붓꽃은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도 매혹적이지만 하늘거리며 이중으로 피어있는 고고한 꽃잎을 봤을 때 탄성이 나온다. 아래로 뿔군 3장의 잎과 위로 올린 세장의 잎이 우아하며 멋스럽다. 꽃잎 끝부분이 여인네 치맛자락처럼 하늘거리는 모습을 인상시킨다. 위아래 다른 색으로 피어있는 붓꽃은 자체가 신비롭다.



좋은 소식, 신비로운 사람이란 꽃말을 갖고 있는 붓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무지개여신 이리스에서 유래했다한다. 제우스와 헤라의 사자였던 이리스는 무지개를 타고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와 아이리스라는 꽃이 됐다 한다. 사명이란 꽃말이 있는 걸 보면 그도 그럴 법하다. 물가에서도 잘 자라지만 건조한 곳에서도 잘 자란다.

세계적인 조경식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붓꽃 (Iris 아이리스)

주로 북반구의 식물로 300여 종이나 되는 매우 많은 종류가 있다. 구근형태, 다육성 벌브, 수염뿌리를 갖는 종이 있다. 이들은 주로 봄 기간에 꽃을 피우지만 최근 이중교배에 의한 품종은 봄가을에 두 번 꽃을 피우는 품종도 있다. 붓꽃과 같은 종은 배수가 잘되는 조건이 요구되어 암석가든이나 석축의 메지용으로, 꽃창포와 같은 종은 물이 낮은 저습지나

수변지에 적응하면 좋다. 단, 물의 깊이가 연중 5cm이하일 때 생육이 양호하다. 물론 이중교배된 일본꽃창포종류는 약 10cm의 물깊이에서도 양호하지만 색 좋지 않다. 부채붓꽃, 제비붓꽃, 노랑꽃창포 등은 오히려 좀더 깊은 물에서도 생육이 양호하다. 구근으로 된 계통과 어떤 종류는 여름 휴면을 하는 종도 있으므로 다른 식물과 혼성식재해도 좋다. 또 어떤 종류는 내한성이 약하므로 주의한다. 그러나 모든 아이리스는 늦여름에서 초가을에 식재하는 것이 가장 좋다. 특히 꽃대를 피우는 시기는 적절치 않으므로 주의한다. 따라서 늦여름에서 초가을에 꽃을 볼 자리에 직접 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물론 포트재배

된 경우는 거의 연중 식재가능하다.

재배방법

특성에 따라 알맞게 적응해야 효과적이다.

1. 양지를 좋아하는 식물이므로 어떤 품종을 막론하고 양지에 식재한다.
2. 물빠짐이 좋은 비옥한 토양을 좋아한다.
3. 모든 품종이 습지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한다.
4. 꽃피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혼성식재를 겸한 대군락 식재가 유리하다.
5. 산성토양을 싫어하므로 대군락을 조성할 경우 석회살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Contents	
★ 장간1주년 ★ 5 VOL. 13	
OUTDOOR GARDEN	
3	cover story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붓꽃 Iris 아이리스
6	축사 가든인(Gardenin)창립 1주년을 축하합니다. 외국인 축사 아르마다 회장, Plantipp사 대표의 축하인사
8	박공영과 함께하는 식물 속 훑쳐보기 정원, '속' 보이네
12	우리꽃정원 초록으로 물들어 꽃으로 피어나다
16	정원으로 꿈꾸는 사람들 경상북도 칠곡의 하영섭씨 정원
20	도심에 들여놓은 정원-여울림으로 만들어낸 미학 늘 꿈꿔온 남쪽 고향이 만들어낸 그리움의 정원
24	전문가가 제안하는 화사한 봄 분위기 가득한 베란다정원
28	식물소개 여러 개의 작은 꽃송이가 매력적인 톱풀
INDOOR GARDEN	
30	윤평섭 교수의 가든 이야기 회의실 실내조경
33	퀘럼 오하나의 베란다 정원관리 5월, 여름을 대비하자!
36	류제의 정원 무스카리
38	가든디자이너 우정아의 DIY 가든 두 개의 사람을 이용한 플랜트박스
40	내 손으로 만드는 실내정원 실내정원을 가꾸기 위한 황금규칙 열 가지
44	이색교육 식물라벨(식물의 이력, 검증의 과정)2
48	가드닝 클래스, 홈카드닝 가드닝의 즐거움을 나누는 온실 오랑주리
52	식물소개 고급 종 중의 귀족 휴케라
도시농업의 발견, 귀농과 교육	
54	차병진 수목진단센터장의 으뜸교육 봄비! 병원균에 기를 불어 넣다!!
58	식물연구 가시없는 장미 3품종 개발, 5월에 아름다운 장미, 가시없어 더욱 아름답구나!
62	다육의 멘토-호자원의 재미있는 다육식물 넌 어디서 왔니 ~ ~
64	안완식박사의 먹거리파일 노화를 방지하는 참깨
69	가든인이 추천하는 Books & Flowerpot
70	박사님의 작품이야기1 감자박사님과 함께 하는 감자이야기
74	서정남 박사의 씨앗사랑, 찾아가는 종자교실 미래세대에게 가드닝의 희망을 심는다
78	위로받는 치유농업 물을 심고 기르면서 치유 받고 건강해지는 치유농업
80	유기농강좌 유기농의 역사와 시작 21세기를 위한 유기농 가드닝
82	우리가 먹는 쌈채소 초록내음 가득한 달콤 쌉싸래한 쌈채소로 건강 UP, 맛도 UP, 분위기도 UP~~
84	오가닉푸드 토마토 치즈가 들어간 쌈채소샐러드
GARDENIN DESIGN & STORY	
86	손관화 교수의 정원구성 작은 정원에서 식물의 용도와 시각적 역할
90	이명호의 야생화 양지바른 곳에서 잘 자라는 양지꽃
92	서수현 가든디자이너의 정원을 즐기는 방법 정원디자이너와 함께 정원을 꾸며보자
96	Innovative Gardening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가드닝 인테리어 정보
98	캐나다 뷰차드가든 방문기 대자연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캐나다, 정원의 속살까지 보여준 3월의 뷰차드가든
GARDENIN INFORMATION	
102	5월의 농사정보 분양받은 텃밭에서 자라는 초록의 힐링채소 5월, 도시농부의 텃밭에선 무슨 일이
104	5월을 맞이하기 위한 화단관리
106	은행나무접목 접목을 하면 관상수로 더 인기라오~~
108	Q & A
110	5월엔 꽃축제 5월, 길따라 꽃따라 축제가 이어지네





정 주 현 회장
(사)한국조경사회/
한국정원문화협회장

가든인(Gardenin) 창립 1주년을 축하합니다.

어느덧 1년의 시간을 훌려보내어 창간 1주년이 된다고 한다. 늘상하는 생각이지만 참으로 시간은 더디 가는 것 같아도 세월은 정말 빨리 간다. 1주년을 축하하는 글을 부탁받고 나서 지난 “가든인(Garden in)” 책자들을 되짚어 보았다. 작년 4월 22일을 창간일로 해서 5월호부터 발간하였었는데 참으로 칼라풀하면서 다채로운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새삼 발견하게 된다.

짧은 1년의 성상이 지나갔는데 그동안 수고한 발행인과 편집인, 관계자의 노고가 눈에 선하다.

한국정원문화협회를 발족한지도 4개월이 다되어 가지만 벌써 3번째 관련기사가 실릴 지라는 기대에 글을 쓰는 부담감보다 책으로 편집되어 나올 예쁜 책자가 먼저 기대된다.

작년 12월에 한국정원문화협회를 창립하고 집행부의 조직을 어느 정도 인선하고 이제 곧 협회의 로고를 만들고 있다. 법인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실무적 인식이 전무한 상태인지라 좀 더 시간을 갖고 긴 호흡을 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우선 협회의 경력(?)을 좀 더 쌓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용이 선결문제로 생각했다. 그래서 올초 1월부터 3월 초까지 8주간에 걸친 제1회 푸르너스 가든 아카데미를 본회 부회장이신 예견의 노영일 대표의 전적인 지원과 협조로 무사히 잘 지러냈다. 40명에 가까운 수료자를 배출하면서 확실히 정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조경관련 전문인들의 참여가 두드러진 것을 느꼈다.

이제 곧 5월 초면 “대한민국 조경문화박람회”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릴 것이다.

동시에 여러 가지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가까운 일본에서 세계적인 조경가 반열에 오른 ‘사사키 요요지’가 와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특별강연을 할 것이고 시민참여정원 만들기 행사인 “불후의 정원”프로그램이 가동되며 가족화분 만들기, 공공기관 조경협의회와 세미나와 전국공원녹지공무원 협의회의 포럼도 진행된다. 이러한 행사내용은 서울시내 곳곳에 있는 대형전광판이나 지하철 안에서 그 홍보가 전개될 예정이다.

(사)한국조경사회와 한국정원문화협회가 공동주최하는 첫 야외전시전람회로서 ‘대한민국조경문화박람회’는 그동안 COEX에서 주로 해오던 실내전시회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시도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국민, 시민참여의 길로 조경분야가 정원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대장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최근 세계적인 가든 디자인으로 인정받는 황지해작가가 같은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영국의 첼시플라워쇼 행사 참관이유로 초청강연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언제든지 한국정원문화협회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항상 돕겠다는 마음과 메시지는 전달 받았으므로 다소 위안이 되기도 한다.

가든인의 1주년 축하의 메시지에 너무나 많은 변죽을 울린 것 같다. 하지만 축하의 글은 사실 짧고 강렬할수록 좋은 것 아닌가 한다.

가든 인의 창간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욱 발전하고 성숙되며 지속하시는 미디어 매체가 되시길 기원하며 정원문화를 선도하는데 부족함이 없길 기도합니다.

2014. 4. 10
정주현 회장



Armada Young Plants BV congratulates the GardenIn with one year of horticultural news.

“ We wish that you all will be reading Garden In with pleasure, and look forward to the new Garden In magazines this second year! ”

아르마다 회장의 축하인사

우리씨드의 사업 파트너이자, 우리씨드 그룹 박공영박사의 친구로서, ‘가든인’잡지의 탐과 함께 1주년 기념을 축하합니다.

가든인 잡지 정보는 새로운 상품들의 기사들과 새로운 제품이 재배자·가드너·소비자들에게 아울러 환영 받기를 바랍니다. 아르마다 영플란트스(www.armadayoungplants.nl)는 네덜란드에 있으며, 한국에도 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절화식물과 식물의 개발자로 수십 년의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여 왔으며, 한국의 재배자에게 관심 많은 국화류, 꽃, 다알리아 등과 다수의 제품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씨드와 아르마다사는 해외시장에서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는 품종 중의 하나인 우리씨드의 독립품종 상록패랭이(Dianturi)로 인연을 맺었습니다. 훌륭한 향기를 갖는 최고의 핑크색의 상록패랭이가 작년에 유럽시장에 성공적으로 소개되었으며 더 많은 품종이 소개되기를 기대합니다.

행복한 가든인 잡지 독자 분들과 모든 한국인에게 인사드리며 IPM, IFT와 같은 전시회에 아르마다와 참석하기를 바라며, 6월의 네덜란드 아르마다사의 “FLOWERTRIALS”에 방문하기를 초대합니다.

행복한 가든인 잡지독자 모두에게 향후 2주년에도 더욱 새로운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Armada Young Plants BV / Gerard B.M. Lentjes, 회장

“ Go forward URISEED & Garden In magazine ”

Plantipp사 대표의 축하인사



Plantipp & Concept Plants 사는 신품종의 대리인 회사로서 유럽 및 미국, 호주의 전 세계 시장에 우리씨드의 상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씨드는 매우 혁신적인 품종회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상당한 수준의 혁신 신품종을 연구 개발합니다. 재배자들은 우수한 신품종을 원하며 연구·개발을 통하여 최고의 품종으로 최고의 신품종을 개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씨드의 개발신품종은 우수한 수준이고, 해외 로열티 사업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이어져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씨드의 발전과 가든인 독자와 가든인 잡지의 1주년 기념을 축하드립니다.

Peter van Rijssen / President



박공영과 함께하는 정원식물의 '속' 훑쳐보기

정원, '속'보이네



박공영 우리씨드그룹 회장(이학박사님)과 함께하는 정원식물의 속 훑쳐보기는 가든인 독자들에게 식물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그냥 이름 없는 꽃이 아니다. 식물이 속한 '속'이 있고 '학명'이 있고 '한국명'이 있다. 그리고 보면 한두 가지 이름이 아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식물은 그 이름만큼이나 꽃색, 향기, 아름다움으로 보답하기도 한다. 정원의 속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빌려 식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자.



정원의 피복, 꽃과 잎이 특별한 아주가 속 (Genus Ajuga)

아주가는 일년생과 다년생 식물로 매트를 형성하고 넓게 기면서 땅을 피복해 가는 특성이 있다. 상록이나 반상록으로 겨울을 나지만 40여 종의 속은 일반적으로 지하경을 뺀 다년생 식물로 온난한 유럽이나 아시아 전역에서 발견된다.

약간의 습기가 있는 그늘에서 잘 자라는 특징이 있어 대표적인 지피식물로 대접받고 있다. 잎은 마주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로제트 형태로 조밀하게 나와 처음에는 포기를 이루는 듯하다가 이른 봄 파랑색의 꽃을 피우고 나면 런너를 내면서 쪽쪽 뻗어 간다. 이때 적당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면 더욱 좋은 잎과 세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조개나물과 금창초 등이 있는데 이들은 오히려 양지에 자란다. 따라서 기타의 많은 양지식물과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흔히 볼 수 없다. 금창초는 남부지방에서 다른 식물이 생육하지 않는 겨울에서 봄까지 꽃을 피우기 때문에 눈에 잘 띈다. 일반적인 조경용 식물로 이용되는 식물들은 대부분 내한성이 강하지만 일부 품종들은 우리나라의 남부지방에서만 월동 가능하다. 태양이 강하고 건조한 지역에서는 잎이 탈 수 있고 생육이 불량하므로 반그늘 혹은 환엽음지에 심어주면 피복식물로 좋다. A. reptans와 재배종은 적합한 토양에서 잘 견딜 수 있으며 완전히 그늘진 곳에서도 잘 자란다.

종식은 초여름에 뿌리가 있는 줄기를 분리하거나 런너를 잘라내 심목하면 마디와 절린 곳에서 뿌리가 잘 내린다. 이런 류의 식물들은 생기 유지를 위해 2~3년마다 분주를 하는 것이 좋다. 해충 및 질병으로는 흰가루 병에 감염되기 쉽다.

“반음지의 빠른 피복식물인
아주가는 약간
습기있는 곳을 좋아한다”



아주가속 종자

이른 봄 파랑색의 꽃을 피우는 수분과 양분이 적당하면 더욱 잘 자란다.

다양한 잎색을 가진 아주가속

초여름에 뿌리가 있는 줄기를 분리하거나 런너를 잘라내 심목하면 마디와 절린 곳에서 뿌리가 잘 내린다.

우리 어릴 때 귀한, 자연에서 나는 최고의 과일 으름 속 (Genus Akebia)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숲 가장자리에서 낙엽성이나 반 상록성으로 자라는 식물로 주로 다른 나무나 덩굴 위를 감으면서 자라는 식물이다.

5중 정도의 속으로 주로 3개의 마주나는 잎이 정갈하면서도 아름답다. 꽃도 보라색으로 매우 아름다워 덩굴식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잎은 일반적인 녹색인데 어릴 때는 청동색을 띄기도 한다.

총상 꽃차례는 자가 불임성으로 종지기 모양의 꽃이 매달려 피는데, 암수 꽃의 모양이 다르다. 열매 모양은 콩팥처럼 생겼고 익으면 껍질이 벌어지고 안에 든 과일은 바나나와 같이 생겼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는 2포기 이상 심고 다른 종류의 품종을 심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특히 봄이 따뜻하고 꽃이 필 때 비가 적은 해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보통 한 꼬투리에 여러 개의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힌다. 좋은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열매를 숙아 꼬투리 당 한 개 혹은 2개 정도만 남기고 따준다. 벽에 유인 줄을 하거나 웬스, 파골라 등의 피복식물로 좋다. 완전한 내한성을 지니고 있으나, 늦서리는 꽃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재배는 물빠짐이 좋고 수분이 많은 비옥한 토양을 좋아하고 반그늘 혹은 양지를 선호한다. 가지치기는 꽃이 진 다음 바로 시행해 준다.

종식은 열매가 익으면 냉상이 된 화분, 혹은 모판에 바로 파종을 하여 겨울을 나면 싹을 틔운다. 여름에 자란 줄기를 잘라서 심목하거나 겨울에 휘묻이를 하면 뿌리가 잘 내린다.

“으름 속은 잎이 조밀하고
빠르게 자라
차폐용으로 좋다”

으름 속

덩굴식물로 인기가 있는 으름은 나무를 타고 감으면서 자란다. 보라색 꽃이 아름답게 피고 어릴 때만 잎은 청동색을 띈다.





여름이 되면 매화모양의 꽃이 핀다.
꽃이 피면 흰색, 분홍색이다.

물속의 귀공자, 낮은 연못의 포인트로 좋은 택사 속 (Geuns Alisma)

북반구의 온대지역, 남아프리카 그리고 호주 등에 분포되어 있다. 연못의 가장자리 혹은 습지에 생육하는 다년생 식물로 9종의 속을 가졌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종이 분포하는데 긴 잎줄기와 타원형에서 창모양의 잎사귀를 가진다. 이른 봄 얼음이 녹고 기온이 올라가면 물 속에서 로제트 형의 윤생으로 잎을 내고 여름이 되면 3개의 꽃잎으로 된 매화모양의 흰색이나 분홍색의 꽃들이 피어난다.

큰 군락으로 기르거나 연못의 가장자리에 화분 등에 한정되게 기르거나 부도를 띄워 기른다. 내한성이 강하다. 대부분 물깊이 15cm 이상에서 꽃이 피고, 30cm 깊이까지 살 수 있다.

증식은 종자를 뿌린 트레이를 물이 반정도 오게 담가 번식하거나 이른 봄 덩이줄기처럼 생긴 지하경을 분주한다.



잎은 긴 잎줄기 끝에 삼각형의 창모양이다. 꽃은 하양, 분홍의 색으로 매화모양이다. 벼를 택사속 식물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자생하는 수생식물이다.

세계시장에서 각광 받는

우리꽃 코레우리

우리드림 시리즈

세계최초로 흰색, 분홍, 빨강, 노랑, 주황까지 분화용은 물론 정원용의 최고의 상품입니다. 물부터 가을까지 다양한 화색으로 한번 식재로 일년이 행복합니다.

품종	화기 (월)	화색	초장 (cm)	내한성 (°C)	생산규격 (cm)	판매단가 (원)	비고
우리드림	5~11	백, 적, 황, 주, 분	50내외	-10(Zone6)	12 비닐 20자동급수화분 30자동급수화분	1,500 12,000 20,000	



담당전화 : 010-3288-2844, 010-5018-9063

Tel. 031-634-7990

Fax. 031-634-7991

www.uriseed.com

우리꽃영농조합법인

Gardenin 첫들을 축하합니다

창간 1주년을 맞는 Gardenin의 첫들을 새로운 정원 문화 전개운동 대열에 적극 동참해주신 독자님들과 이 기쁨을 함께 합니다.

월간 Gardenin이 세상에 출범한 것은 복잡하고 여유롭지 못한 현대인들의 일상을 건강과 행복 안정을 위한 자연을 좀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실천운동의 도입 전제라는 큰 뜻을 갖고 출발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독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동참으로 오늘의 기쁨을 갖게 되었기에 깊은 감사로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복의 꽃과 한그루의 나무, 그리고 들 안팎에 작은 텃밭을 일구고 가꾸며 살아가는 우리들 삶의 원천적 본질이 자연과 함께 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행복송화의 근본임을 Gardenin은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첫들을 맞는 월간 Gardenin의 모습이 아직 미숙하지만 뜻깊은 많은 독자님들의 높은 관심과 격려에 오늘의 우리가 진전해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미래 발전을 위해 노력하리라는 자긍심을 높여갈 수 있는 믿음으로 존재합니다.

‘자연생명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이 우리들 삶의 행복순환을 갖게 해주는 생명철학의 근본을 Gardenin은 중요시 하면서 이를 계승하기 위한 우리들의 실천적 노력을 일상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충실한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사명감에 스스로의 위인을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Gardenin의 사명감은 우리가 과거의 빈곤시대를 벗어나 세계대열에 우뚝 서게 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잘살기운동과 새마을운동, 꽃길 꽃동네 가꾸기, 밝은 사회운동” 등과 같은 대국민적 자연회귀실천운동을 성공리에 이루어낸 결과 우리가 생명운동의 성공적 행복역사를 창조해냈다는 위대한 국민적 자긍심에서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우리들 사회의 좀더 아름답고 건강한 행복사회를 지향하는 독자님들의 큰 뜻에 어긋없는 충정 노력으로 본의에 전력 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또한 그 동안 우리들 사회가 “웰빙 위주의 삶”을 지내오면서 많은 문제를 도출해 왔기에 Gardenin은 이를 치유 순환하는 “힐링 문화”의 전개 방안 목적에서 정원문화의 도입 정착을 기대 노력하고 있기에 본 월간 Gardenin을 사랑하시는 독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으로 행복 사회를 함께 갈 수 있기 희망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아름다운 실록의 계절, 5월 탄생의 Gardenin을 자축하며 앞으로도 독자님들의 더 큰 행복한 삶이 충만 하시길 바라며 본 지의 무궁한 발전을 함께 기원해봅니다. 감사합니다.

2014.05.01

발행인 김 영 제

5월 우리꽃 정원

초록으로 물들어 꽃으로 피어나다

아름다운 우리꽃정원이 피어나고 있다.

2010년에 조성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관목과 초화류, 그라스가

봄의 따뜻한 기운을 받아 여기저기에서 아우성이다.

초화류와 관목, 자갈과 암석, 그라스들, 오솔길이 어우러져 자연스런 아름다움을 뽐내는 우리꽃정원이 막을 올린 것이다.

내내 기다려온 찬란한 봄을 맞이하여 구근류와 산수유가 전령이 된지 벌써 며칠이고, 수선화도 수줍게 봄을 맞이했다.

5월은 정원이 가장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시기다.

그 아름다움을 만드는 우리꽃정원의 배우(?)들을 만나보자.

글 사진 가든인



암석과 자갈, 초화류와 관목, 그라스류와 구근식물들이 조화롭게 피어나는 우리꽃정원. 조류매트의 오솔길을 따라 걷다보면 어느새 정원 속에 녹아든다.



금디고운 튜립, 자주, 다홍, 분홍, 노랑 등으로 피어나 정원을 물들인다.

우리꽃정원의 전령, 산수유와 튜립

정원은 봄을 기다린다. 따뜻한 기운을 받아 생명을 싹틔우기 위함이다. 뾰족한 싹을 밀어올리는 튜립순과 원추리순이 여기저기서 바쁘다. 하루가 다르게 키자랑을 하고 비어있는 줄 알았던 공간을 가득 채운다. 새무리만한 순이 어느새 제법 크다.

튜립순은 어찌 그리 곱고 예쁘게 올라오던지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떨린 감동을 안긴다. 잎을 벌여 한껏 햇살을 끌어안는 튜립. 노지에서 자라는 튜립은 한두 잎 벌어지면 바로 꽃대가 올라온다. 한 개, 두 개 또는 무리지어 피어나는 잎은 짧은 봄철이 바쁘기만 하다.

산수유는 일찌감치 작고 노란 꽃잎을 선보였다. 봄의 전령사답게 우리꽃정원에서도 제일먼저 꽃이 핀다. 지나가는 바람에 꽃잎을 떨구며 손님에게 아쉬운 듯 손짓을 한다.

고고함으로 우뚝 선 목련과 소나무

우리꽃 정원엔 목련이 한그루 있다. 중앙에 자리한 목련은 어떤 꽃보다 우아하고 품위 있게 봄을 알린다. 앞다퉈 피어올린 새싹과 달린 초봄에 피는 꽃들은 수수함을 선사한다. 그러나 목련은 올라오는 봉오리부터 남다르다. 잎이 나지 않아서인지 꽃봉오리가 더 크고 또렷해 보인다. 활짝 피기 전까지는 그 우아함에 숨이 멎을 듯하다. 어떤 미사여구로도 설명이 안된다. 시인의 마음을 흔들고, 화가의 화폭에 담긴 건 그 귀품 있게 피어오르는 모습에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련을 좋아한다.

역시 한그루 있는 소나무는 사철 초록으로 맞이한다. 사방에 막을 게 없어서인지 옆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이 힘이 있다. 정원에 어울리는 소재로 반드시 들어가는 게 소나무다. 정서도 맞지만 소나무가 주는 멋이 남다르기 때문이라.



우리꽃정원에는 실개천이 흐른다. 암석사이 물길을 만들어 줄줄 흐르는 시냇물이 시골고향집을 생각나게 한다.



관목과 초화류, 그리고 오리, 앞에 보이는 소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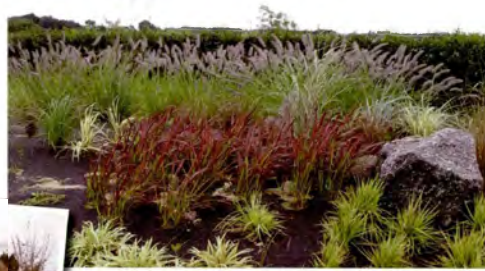


단 한 그루의 소나무지만 모자람이 없다

겨울을 나는 초록의 관목과 그라스류들

초록으로 겨울을 나는 관목과 다른 무엇보다 먼저 싹을 틔운 버드나무와 수암버드나무는 다른 나무들과의 경쟁이 무색하게 연초록의 잎과 버들강아지를 자랑한다. 우리꽃정원은 곳곳에 연꽃과 작은 실개천이 있어 물을 좋아하는 버드나무가 살기 적당하게 조성되어 있다. 적당하게 잘라주면 잎이 더 풍성한 낮은 나무가 되고 그냥 놓아두면 자연스런 맛이 난다.

초록의 잎으로 겨울을 난 향나무는 더욱 위대하게 보이며, 운지와 분위기를 안겨준 그라스류는 새 봄에 머리를 깎고 봄을 노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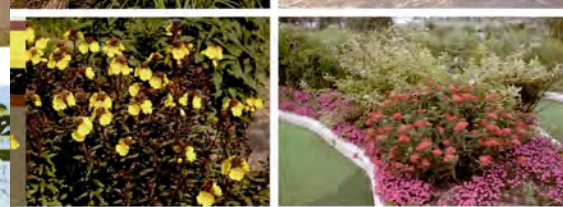


어디 꽃만 예쁘다거나, 정원에 절대적 강자가 될 날도 머지않은 그라스류



조팝나무 중 하나, 삼색조팝나무

우리꽃정원에서 자라는 야생화



조팝나무와 쥐똥나무가 선사하는 생울타리의 멋

생울타리는 계절을 가리지 않는다. 겨울은 겨울대로, 봄은 봄대로, 계절마다 느끼는 맛이 남다르다. 앙상하게 가지를 드러낸 겨울은 나무자체를 자세히 볼 수 있다. 새순이 돋아나면 그 경이로움에 감동을 받고, 그 새순이 피어나면 꽃인지 잎인지 궁금해 들여다 볼 수밖에 없도록 끌어들이는다. 초록이 꽃보다 아름답게 우거질 땐 생울타리의 진가가 발휘되는 시기다. 4월 말부터 잎이 지는 가을까지겠다. 몇 번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 또한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은 은근히 기다릴 것이다. 삼색의 조팝나무는 작은 키로 풍성함을 선사하고 쥐똥나무는 좀 더 큰 키로 울타리의 역할을 제법 해낸다. 정원을 마감하고 모아주는 힘이 있다. 여름엔 뽀뽀하게 우거져 제법 근사한 멋을 선사하고 가을엔 변화하는 잎이 나름으로 다가온다. 정원은 계절내내 바쁘다. 그 변화를 세심히 들여다보면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다.



조팝나무생울타리, 붉게 물러온 잎이 울타리의 역할을 독특히 한다.

최고의 백미, 우리꽃정원의 야생화

관목과 갈대류, 오솔길과 울타리, 암석과 자갈, 연못과 실개천이 어울릴 수 있게 정점을 찍는 식물이 야생화다. 철따라 피는 야생화는 정원의 색을 결정하고 보는 이의 마음을 채워준다. 초록이 지쳤다면 달마다 피는 꽃이 위안이 될 것이다. 아이리스, 꽃파, 꼬리풀이브, 블루, 꽃잔디 레드선, 후룩스봄맞이, 후룩스봄바람, 속근사루비아로즈, 화이트, 랜드, 마르커스, 구름국화, 봄비, 하늘매발톱, 매발톱 캐나다인, 매발톱 spp, 기간티움, 상록잔디패랭이, 수선화, 붓꽃, 톱풀비단, 수레동자, 알리움 기간티움, 미국쑥부쟁이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이 섬없이 피어난다. 때로는 화려함으로 때로는 품위를 갖춰 피는 야생화는 주변의 초록과 잘 어울려 한 바탕 잔치를 벌인다.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 색을 다 찾아볼 수 있는 우리꽃정원은 멋과 재미, 색과 향, 물과 길을 느낄 수 있는 정원의 요소가 다 들어있다.

즐기는 맛과 느끼는 맛, 피어나는 꽃과 초록의 관목이 어우러지는 우리꽃정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그라스전경

인공포장된 초록의 오솔길, 길따라 추억이 준그네.

걷는 재미와 보는 재미가 있는 우리꽃정원은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걸을 때 특히 진가가 발휘된다. 직선으로 된 길은 가는 길이 바빠 정원으로 눈이 덜 간다. 오솔길은 다음이 궁금하다. 길따라 피어나는 꽃과 나무를 보는 맛이 그 만이다. 중간중간 실개천과 폭포, 연못이 가는 시선을 붙잡는다. 연못 주변에 피는 돌단풍은 이른 봄부터 꽃을 피워 보는 재미와 향기를 선사한다.

바닥에 깔아놓은 인조매트는 사계절 내내 초록을 선사한다. 겨울엔 좀 낯설 수 있으나 초록이 우거지는 봄이 오면 그 진가를 발휘한다. 좁은 오솔길의 하전함을 채울 뿐만 아니라 초록의 풍성함을 더 해준다.



구부러진 오솔길을 따라 정원이 펼쳐지네

경상북도 칠곡의 하영섭씨 정원

작은 식물원

250여종의 목본류와 200여종의 초화류, 토종식물과 돌, 석등, 기와, 향아리 등의 소품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정원은 보는 이로 하여금 탄복하게 만든다. 손수 식재계획을 세우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세월이 정원에 기적처럼 피어난다. 정원은 꾸꾸는 것만으로 가질 수 없다. 꿈꾸던 정원을 가지려면 직접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긴 세월 동안 한결 같은 생각으로 실천한 경상북도 칠곡의 하영섭님의 정원은 그 꿈이 실현된 곳이다. '유럽의 정원'과 우리의 '전통정원'을 들여놓은 넓은 정원엔 5월을 맞이해서 피어난 초록과 꽃들의 향연이 한바탕 펼쳐진다. 그 정성으로 완성된 정원의 노하우를 배워보자.

글 사진 우정아 가든디자인(경기조경대 강사)



진달래를 바라보는 눈이 그득하다. 즐거워서 그리 긴 시간동안 정원기구를 해온 하영섭님.

은사시나무숲



경상북도 칠곡 팔공산 자락에 눈이 부시게 하얀 은사시나무를 병풍삼아 자리한 하영섭씨의 정원은 대나무, 소나무, 향나무, 산딸나무, 공작단풍, 능수느릅, 열녀수, 거제수, 중국보리수, 동경팔방화백, 삼색버들, 조팝류, 능수홍두화, 불두화, 작약, 병꽃나무, 매죽나무, 진달래, 철쭉, 개나리, 백하등, 장미, 켄데, 흑명자 등 250여종의 목본류와 양귀비, 무늬쑥부쟁이, 백합류, 물간나, 물카라, 꽃잔디, 차이브, 클레마티스, 루피네스, 둥굴레, 구절초, 카모마일, 접시꽃, 리아트리스, 리켄라, 맨드라미, 아스터, 꽃무릇, 조롱꽃, 고마리, 코스모스, 천일홍, 백일홍, 루드베키아, 호스타류 등 200여종의 초본류가 방대하게 식재되어 있다. 집 앞으로 토종식물과 돌, 석등, 기와, 향아리 등 소품을 이용한 전통정원이 조성되어 있고, 흐르는 계곡 너머로 넓은 잔디정원과 언덕으로는 수로를 이용한 폭포와 수생식물이 식재된 연못이 조성되어 있으며, 그 위로는 두 개 층으로 파고라와 벤치, 조형물을 이용한 유럽식 화단정원이 조성되어 있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의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아서 정원을 갖는 것이 꿈이었던 그는 17년 전 3,000(10,000,000m²)여 평의 땅을 구입하면서 꿈을 현실로 실현시켰다고 한다. 사업을 하면서도 쉬는 날이면 꽃과 나무를 식재하고 가꾸기를 8년 정도 하고, 9년 전부터 본격적인 정원가꾸기를 하고 싶어 이곳에 집을 짓고 생활하게 되었다고 한다.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꽃과 나무가 너무 좋아서 조정석사 과정까지 이수할 정도로 식물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그는 혼자만의 즐거움이 아쉬워 아름다운 나의 정원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정원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사계를 고스란히 담은 이에게 즐거움과 그만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일년 내내 아름다운 꽃으로

정원을 아름답게 조성한다는 것은 식물의 식생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 때문에 주인공은 어떻게 하면 사계절에 가깝게 항상 꽃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숙제를 안고 정원을 조성했다고 한다. 연중 내내 꽃향기 가득한 정원을 만들기 위해 정확한 파종시기를 파악하고, 삼목이 쉬운 식물을 구분하여 비닐 하우스 내에서 삼목하는 실험을 수없이 반복하여 가장 적당한 시기를 찾았다고 한다.

초기에는 식재비용이 경제적으로 부담이었으나 경험을 통해서 한 종류당 백 만원 정도의 식재비용이 지금은 만 원 정도만 투자하면 번식으로 충분한 개체수를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토종식물로는 단아한 아름다움밖에 표현할 수 없어서, 기후와 토질의 특성에 맞는 외국 수종을 매년 구입하여 사육하였으나, 현재는 씨를 받아 번식시킨다고 한다. 외국 수종은 바람에 동사하는 경우가 많아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게 경사면을 이용한 식재를 했고, 다양한 혼색을 통해서 공간 연출을 풍성하게 구성하고, 색은 유사색과 대비색을 주로 하여 눈을 즐겁게 하는 정원을 조성한 것이다. 저마다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정원의 디자인은 주가 되는 꽃을 먼저 선정하고 색, 길이, 모양 등

을 고려하여 서로 어울리는 식물로 혼식한다고 한다. 3월에는 무스카리, 수선 등 구근식물로, 4월에는 흰색과 분홍색이 어우러진 꽃잔디를 주로 하여 무늬동굴레, 무늬쑥부쟁이 잎이, 5월에는 사스타데이지를 주로 하고 삼색버들, 조팝류, 무늬쑥부쟁이 꽃이, 6월에는 루드베키아류가 주가 되고 접시꽃, 옹머리, 양귀비, 작약, 장미, 수레국, 금계국, 리아트리스, 황금달맞이, 리젤라가, 7~8월에는 천일홍을 주로 하고 멜랑포디움, 구절초, 카모마일, 메리골드가, 9~11월에는 맨드라미를 주로 하여 국화류, 꽃무릇, 구절초, 고마리 등을 혼식하여 구성한다고 한다. 특히 초화류의 일년생은 물론 다년생들도 2~3년이면 퇴화하고 고사해 매 번 파종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반면에 저마다 특이한 매력이 있어 정원을 계절마다 개성이 있게 표현해 준다고 한다.

목본류는 꽃이 지고 나면 전정을 해 주고, 초본류도 꽃이 지면 전체적으로 잘라 주어 푸른 잎을 길게 감상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방제는 병충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를 기억했다가 그 시기가 되면 저독성 농약을 살포하고, 비료는 봄 가을 두 번 정도 시비한다고 한다.



잡초를 이기는 식생

정원의 '최대' 작은 잡초이다. 물론 잡초도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지만, 원하는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고 경관을 해친다. 주인공은 그 해법으로 잡초와 그 식물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자 여러 차례 단계적으로 직파하고 어떤 시기에 파종을 해야 가장 효율적인지를 반복했다고 한다. 그 예로 천일홍은 일찍 파종하면 풀이 먼저 발을 점령하여 밑에서 천일홍의 씨앗이 제대로 발아하지 못하고 고사하지만, 5월 이후에 잡초를 제거한 후에 파종하면 도리어 천일홍이 잡초를 제압한다고 한다. 또한 잔디 사이의 잡초는 2주에 한 번 깎아서 씨가 떨어져 발아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한다. 깎고 난 후의 잔여물을 잘 처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나의 공연은 아직도 남아 있다

정원을 가꾸면서 돌에 찍혀 손톱이 빠지고, 인대가 늘어났고 지문이 없어지면서도 정원을 조성할 수 있었던 건 꿈이 있어서리라." 한 계절에 150그루의 나무를 심었던 때도 있었어요. 당시는 힘들었지만 지금에 와서 서서히 드러나는 자연의 발걸음에 세상사의 수리를 잊는 듯 해서, 늘 자연에게서 배운답니다. 오케스트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단원을 모집하고 곡을 선정하고 끝임 없는 연습을 하고 나사야 비로소 공연을 합니다. 나의 정원은 이제 단원을 모집하고 곡을 연습하는 단계이고, 완전한 공연을 위해 나의 정원은 계속해서 변화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꿈은 더 많은 사람들과 정원을 공유하며 정원을 공연하는 것입니다."



작은 식물원 하영섭씨의 Gardenin point

연중 내내 꽃향기 가득한 정원을 만들기 위한 비닐절감 노하우

- 식재비용절약방법-번식을 통한 개체수 늘리기
- 외국수종절약방법-씨를 받아 번식, 경사면에 식재하면 동사를 막을 수 있다.

연중 내내 꽃향기 가득한 정원을 만들기 위한 관리 노하우

1. 목본류는 꽃이 지고 나면 전정을 해 준다.
2. 초본류도 꽃이 지면 전체적으로 잘라 주어 푸른 잎을 길게 감상할 수 있게 한다.
3. 방제는 병충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를 기억했다가 그 시기가 되면 저독성 농약을 살포한다.
4. 비료는 봄 가을 두 번 정도 시비한다.

로컬적인 잡초 제거 노하우-식물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자

1. 천일홍은 일찍 파종하면 풀이 점령해 천일홍의 씨앗이 제대로 발아하지 못하고 고사한다. 5월 이후, 잡초를 제거한 후에 파종하면 도리어 천일홍이 잡초를 제압한다.
2. 잔디 사이의 잡초는 2주에 한번 깎아 씨가 떨어져 발아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다.
3. 깎고 난 후의 잔여물은 잘 처리해야 한다.

스토리가 있는 정원디자인은?

1. 주가 되는 꽃 선정
2. 색, 길이 모양 고려해서 식물들 혼식
- 3월, 무스카리 수선화 등 구근식물로
- 4월, 주가 되는 꽃잔디(흰색+분홍색)에 무늬동굴레, 무늬쑥부쟁이로
- 5월, 주가 되는 사스타데이지와 삼색버들, 조팝류, 무늬쑥부쟁이 꽃으로
- 6월, 주가 되는 루드베키아류와 접시꽃, 옹머리, 양귀비, 작약, 장미, 수레국, 금계국, 리아트리스, 황금달맞이, 리젤라가 참여한다.
- 7~8월, 주가 되는 천일홍과 멜랑포디움, 구절초, 카모마일, 메리골드로
- 9~11월, 주가 되는 맨드라미와 국화류, 꽃무릇, 구절초, 고마리 등을 혼식하여 구성한다고 한다.

특히 초화류의 일년생은 물론 다년생들도 2~3년이면 퇴화하고 고사해 매번 파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저마다 특이한 매력으로 계절마다 정원을 개성 있게 표현해 준다.



늘 꿈꿔온 남쪽 고향이 만들어낸

그리움의 정원

정원 하나 / 앞뜰 - 주정원

열려 있는 정원이다. 누구나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 담장을 허물어 도로와 연결시킨 앞뜰은 주 정원담게 갖가지 식물들이 한데 어울려 자연스럽게 물들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쁘다며 잠시 시선을 머물기도 하고, 애기를 걸어주기도 하는 등 배려의 정원이기도 하다.

낮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식물을 헤치지 않고 걸어들 수 있는 디딤돌이 놓여있다. 중앙에 감나무가 자리를 잡고 주변으로 자두나무, 모과나무, 소나무, 철쭉, 돌단풍, 복수초, 마삭, 매발톱, 달맞이꽃, 아케네시아, 앵초, 구절초, 용담, 수레국화, 열레지, 크로크스, 갯쟁이풀, 할미꽃, 물망초, 금창초, 아이리스, 낙동강구절초, 체리세이지, 샤스타데이지, 산나리, 아네모네, 쭉부쟁이 등의 초화류와 빼놓을 수 없는 소나무가 어울림을 자랑하듯 시선을 끈다. 가만히 서 있으면 마주치는 꽃들이 애기를 걸어주듯 하늘거리고 있었다.



철쭉이 화사하게 피어있는 5월의 온실. 1년 중 가장 예쁘게, 무성하게 피어올라 작품을 보듯 멋스럽다. 작은 공간에 그리움 남쪽 고향을 담으려고 애썼다고 한다. 보는 눈 안에 들어오는 공간인데도 너무나 예쁘게 구성됐다.



4월의 온실 물망초가 흐드러지게 피었다.

정원 둘, 온실-안방정원

사계절 내내 초록을 간직한 이 집 정원 중 최고다. 틀을 세워 유리로 마감한 온실은 언제나 꽃과 초록을 볼 수 있는 정원이다. 물방울풀(천사의 눈물)이 초록용단처럼 깔려 있고, 시냇물이 흐르고 분수가 있고, 꽃과 나무 연못에 사는 물고기까지 정원의 구성요소들이 다 있었다. 가만히 앉으면 한눈에 들어오는 정원이지만 이야기는 끊이지 않고 나올 정도로 애초 흔적이 곳곳에 추억으로 영글어 있었다.

찾아간 날은 물망초가 흐드러지게 피어 가슴을 설레게 했다. 바람꽃이 바람을 만나 하늘거리고, 자주와 분홍의 앵초가 감초역할을 하며 시선을 끌고 있었다. 동백은 마지막까지 화려함을 놓치지 않았고, 꽃이 아닌 초록용단처럼 깔린 물방울풀은 취재인의 마음에 꼭 들어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다.

동백, 철쭉, 석류, 천리향, 치자나무, 산수국, 제라늄, 앵초, 물망초, 백일홍, 크리스마스roz, 물방울풀, 으아리, 바람꽃, 민트

등의 구성요소들이 습함과 건조지역을 분리해서 작은 공간을 꼭 채워줬다. 고향의 그리움을 그대로 옮겨놓으려 애썼다고 하는 온실은 천리향과 붉은 흙동백 등 좋아하는 식물을 가장 가까이서 보려고 만들었다 한다. 또 실개천을 따라 심어놓은 분재형철쭉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심었다고 한다. 시선이 가는 곳마다 정원을 통해 고향이 묻어나도록 만든 정원에서 어린 시절의 그 어디쯤 있을 추억을 열고 있을까?

2층 용기정원에서 촬영한 앞뜰 전경. 관목과 초화류, 그리고 디딤돌이 놓인 길. 정원에 어울리는 인테리어 소품과 향아리가 조화를 이루며 자리했다.

그리움은 내내 가슴속에 머물다 피어나기도 한다. 못내 그리워한 그 시간들을 하나하나 정성으로 만들어낸 정원은 애기가 있고, 느낌이 있다. 한번에 완성하는 정원이 아닌 늘 정원과 함께 하며, 그 시간을 즐기며 사는 것은 큰 행복으로 연결된다. 여기 유년의 고향이 그리워 따뜻한 애기를 정원으로 풀어낸 사랑 충분한 가드너의 정원이야기를 들어보자.

취재 정리 가드너 사진 이명희 가드너



작은 뜰에서 화초를 돌보는 이명희 가드너

화사한 봄 분위기 가득한

베란다정원

베란다조경에 관심이 많다.
화분 늘리기에 정성을 들인 분과
화분이 너무 많아 고민이신 분들은
과감하게 베란다정원을 권해본다.
집안에 정원들이기 쉽지만,
한번 만들면 두고두고 만족감과
더불어 정원에서 느낄 수 있는 감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사계절 내내
초록의 작은 정원에서 맛보는 풍경과
꽃피는 화분하나로도 분위기를 쉽게
바꿀 수도 있다.
고민의 시간과는 달리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품격있는 베란다정원을 제공하고 있
는 '이명주조경'의 힘을 빌려 눈높이
를 높여보자.

글정리 가든인 사진 이명주조경제공

사례1. 크기를 달리한 관엽식물과 인테리어 소품, 디딤돌과 자갈이
조화를 이룬 깔끔한 베란다정원

사례2. 역할을 충분히 하는 작은 베란다정원.
옆쪽에 마루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놓고 식물을 심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도시민들의 작은 소원은 베란다에 근사
한 정원을 들여놓는 것일 게다. 베란다가 실내로 들어온
지 여러 해다. 베란다와 실내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반대로 식물
재배의 연장공간이 거실이 된 것이다. 베란다란 말을 쓰지만 거
실창가에 정원을 꾸미는 것이 됐다. 그래서일까, 식물이 직접적
으로 눈에 들어오니 관심을 더 받는다. 봄되면 한변쯤은 도전해
보고도 싶어 한다. 과감히 화분을 얹어고 손수 꾸미는 사람도 있
다. 그러나 꽃피는 식물을 들여놓고 싶어 베란다가 있는 화분을
정리하지만 맘처럼 꾸며지지 않고 예쁘지도 않다. 질서도 없
고, 기준도 없다. 결국엔 지치분해서 치우거나 고사시키고 만다.
보는 눈이 수준을 키운다는 말이 있다. 많이 보면 감각도 생기고
가지고 있는 화분을 활용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겨 약간의 도움만
으로도 훌륭한 봄분위기를 낼 수 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모던하면서도 아기자기한 걸 좋아한다.
최근엔 목돈이 들어가는 규모의 개조보다 간단한 코디 하나만으로도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다.
베란다 조경을 할 때는 보통 모던 스타일은 잎이 넓은 식물보다 가늘
고 긴 잎의 식물을 선호하며, 키가 큰 것보다는 아기자기한 것을 추구
하는 것이 최근 추세다. 직선적인 스타일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대나무
나 고무나무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스타일을 선호한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따라하면 잘 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니 본인의 개성을
살려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사례4. 잉어보수와 연꽃이 놓인 연못, 우물과 가로등 등 인테리어
소품과 식물이 어우러져 있는 정원

사례3. 곡선으로 처리한 화단에 식물과 소품을 어울리게 배치했다.

습식방법의 사용 예

큰 화분이나 바닥의 단을 높여 화단을 만드는 방법과 각각의 화분을 이용
하는 방법이 있다.

■ 화분으로 구성할 경우

- ① 목재나 기타 자재로 테두리를 만든다.
- ② 화분을 배열한 후 인조 이끼를 채운다. 이때 화단을 구성한 것과 같은 느낌을 주려면 테두리 위에 망을 걸고, 그 위에 인조이끼를 올려놓으면 시각적 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화단을 만들 경우

- ① 화단벽을 벽돌로 세워주고 시멘트 미장을 한다.
- ②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배수구를 만든다.
- ③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한다.
- ④ 화단벽에 타일이나 기타 기호에 맞는 마감재를 붙인다.
- ⑤ 바닥이 완전히 건조된 후 조경용 흙과 자갈을 깔아준다.
- ⑥ 원하는 나무나 꽃을 심고, 흙 위를 인조이끼나 마감재로 채운다.

Gardenin point 이명주작의 시공 노하우는?

자신의 생활양식에 따라 시공법을 선택하면 좋다
베란다조경은 사진을 보고 예쁘다고 무작정 따라 하
기보다는 정원을 관리하는 사람의 스타일에 맞춰 나
가는 방식이 좋다. 굳이 습식과 건식의 공법이 있다
해서 반드시 그렇게 적용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베란다조경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건식과 습식
으로 나눠 정원을 구성한다. 관리하기가 좋고 서로
잘 어울릴 수 있어서다. 베란다는 하중을 증가하지
않게 하는 장점과 인위적인 느낌의 단점이 있는 건
식과, 식물을 꼼꼼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습
식을 추천한다. 반대인 사람은 건식의 방법을 선택
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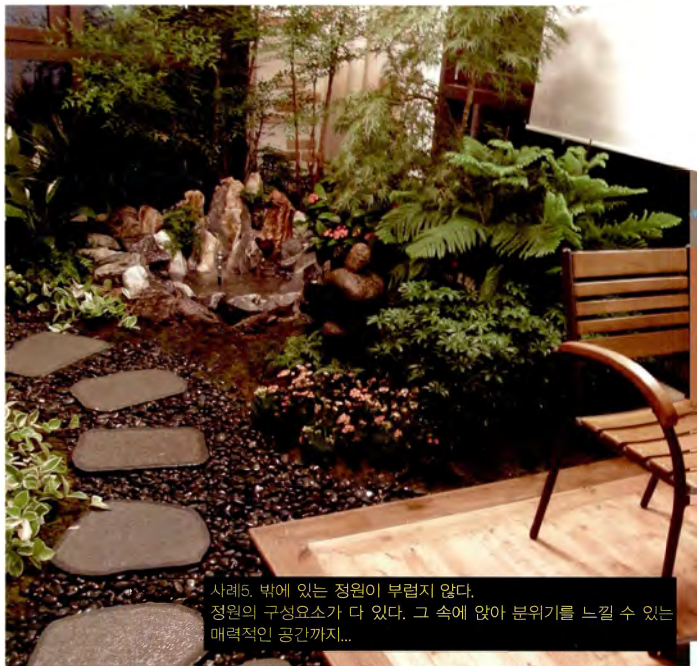
시공시 문제점

1) 공간문제와 통풍문제

베란다정원을 꾸미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아파트나 주택의 실내 어느 공간에 시공하느냐다. 일단 별이 잘 드는 곳을 선택하고 통풍도 고려해야 한다.

2) 배수문제

시공 시 문제점은 바로 배수문제다.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하고, 어렵다면 강제배수시스템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배수시스템, 벽이나 바닥에 타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배수구멍을 만들어서 자연배수 시키는 것이 가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례5. 밖에 있는 정원이 부럽지 않다. 정원의 구성요소가 다 있다. 그 속에 앉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까지...



곡선을 살려 디자인한 정원



사례6. 고급스럽고 깔끔하다. 단순한 멋을 살린 정원이 멋스럽다.

시공시 주의사항

1) 시공 시 가장 먼저 주의할 사항은 방수다.

실내마루나 바닥에 실내조경을 안착시켜서 정원을 꾸미기 때문에 방수에 가장 주의해야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방수문제가 생긴다면 여러 집들의 피해까지 보상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화초에 물을 주는 시점에 물이 새어나와 바닥마루가 손상이 가고 물이 많이 새었을 때는 공동주택의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때문에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다.

2) 통풍문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

3) 식물을 식재하는데 있어서 물을 좋아하는 식물과 물을 싫어하는 식물을 구분하여 토양의 배합과 토심의 높낮이를 신경 쓰고 배수량까지 계산해야 문제가 없다.

4) 본인 또는 가족의 성격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면 어떤 것을 적용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다.

5) 자신의 집 베란다에 정원을 시공할 수 있는지 관리사무실에 문의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하중 정도에 따라 습식인지 건식인지 적용 방법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6) 정갈 조경을 취미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넓은 면적보다 베란다 면적의 1/4미만정도만 적용하는 것이 추후에 관리하기에 좋다.

다양한 정원사레들
TV가 있는 거실정원, 코너정원, 벽면정원, 아치형정원 등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정원을 들여놓는 사례들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지는 실내조경사레 전과 후

나만의 정원만들기

나만의 정원을 만든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겐 말도 안되는 생각일 수 있다. 하지만 베란다라는 공간에 나만의 작은 공간으로 꾸밀 수 있는 방법은 참으로 무궁무진하다.

보통은 화분을 사서 또는 화분에 심겨진 식재를 통째로 꾸미는 경우가 많은데, 집안의 소품이나 집 안팎의 소품을 이용할 때 더 나은 정원을 꾸밀 수 있다. 예를 들자면 흙을 담을 수 있는 집안의 모든 용기는 화분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버리는 PET병이나 깨진 항아리, 과일 박스(딱딱한 박스) 등등은 모두 재활용이 가능하다. 토양만 구한다면 작은 텃밭으로 활용도 가능하다. 심지어는 가족부츠나 버려지는 가방도 비닐을 한번 씌워서 화초를 키우시는 분도 있다. 개개인들만의 작은 정원이기에 내가 만족한다면 나만의 예쁜 정원이 되겠다. 사업장에서는 패타이어를 세워놓고 물이 고이는 부분만을 이용하여 작은 화분들을 만든 영업장도 있었다. 물론 비닐을 이용하여 방수도 간단히 하고 배수구멍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전



↓

후



시공방법의 장단점

>>시공방법의 장점: 실내에 가장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시공한다.

외부의 자연적인 햇빛과 바람 그리고 비의 영향으로 살아가는 식물들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집안으로 자연을 들여온 상태이기 때문에 시공하는 자재들이나 소품들이 최대한 자연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장점이 될듯 하다. 한 예로 화단테두리는 자연석을 이용하거나 원목을 이용하여 색칠 않게 방부 처리한 제품이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제작하였으나 인체에는 해롭지 않은 제품을 쓰는 것이 실내정원을 꾸미면서 실내에 정원을 틀이는 이유가 될 것이며 장점이 될듯하다.

>>시공방법의 단점: 관리의 소홀이다.

적지 않은 시간과 금액을 투자하였지만 금전적으로는 손해이며 눈으로 보는 아름다운정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장시간 여행을 다녀와서 망쳐버린 정원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물주는 시기를 놓치거나 너무 자주 주어 관리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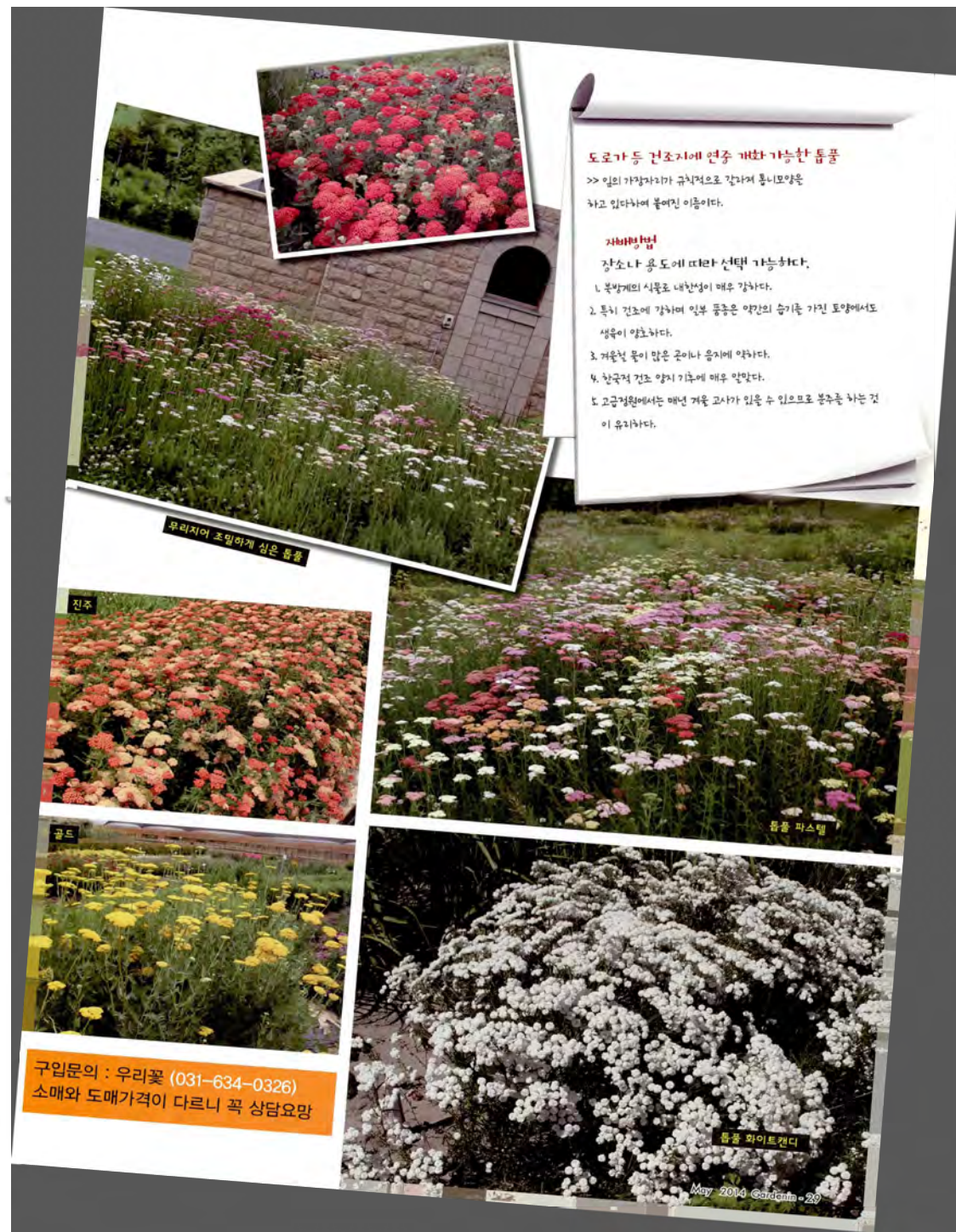
멀리서 보면 한송이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여러 개의 작은송이들이 무리를 이루어 피어난다. 국화과의 여러해살이 풀인 톱풀은 시초, 우의초, 거치초, 가새풀, 배암새, 산톱풀, 가새나물, 거초 등의 이름이 있지만, 톱풀 뒤에 비단, 문라이트, 스노우, 레몬, 오렌지, 진주, 화이트캔디, 골드, 파스텔 등의 이름으로 종류를 나눠 불려진다. 줄기에는 연한 털이 있고 약 1m까지 자란다. 잎은 가장자리가 규칙적으로 갈라져 톱니처럼 뾰족뾰족하고 어긋나 있으며 잎자루가 없다. 길이는 약 6~10cm 정도, 너비는 약 5~7mm 정도다. 꽃은 보통 6~8월경까지 끝에 모여서 핀다. 향기가 좋다. 꽃의 지름은 약 5~7mm이고 두상 화이며 한번 피면 오래간다. 50~60일 동안 피어있는 것도 있다.



치유, 가르침, 지도의 꽃말이 있다. 톱풀은 자세히 오래보아야 예쁜 꽃이다. 작은 꽃송이를 살펴보면 돋보기가 필요해 보인다. 허양, 노랑, 주황, 다홍색을 피우며 무리지어 조밀하게 심으면 보기 좋다.

톱풀 스노우

톱풀 비단



도로가 등 건조지에 연중 개화 가능한 톱풀

>> 일의 가장자리가 규칙적으로 갈라져 톱니모양을 하고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자화방법

장소나 용도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1. 북방계의 식물로 내한성이 매우 강하다.
 2. 특히 건조에 강하여 일부 품종은 약간의 습기를 가진 토양에서도 생육이 양호하다.
 3. 겨울철 물이 많은 곳이나 음지에 약하다.
 4. 한강적 건조 양지 기후에 매우 약하다.
- 노고금정원에서는 매년 겨울 고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분주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무리지어 조밀하게 심은 톱풀

진주

골드

톱풀 파스텔

톱풀 화이트캔디

구입문의 : 우리꽃 (031-634-0326)
소매와 도매가격이 다르니 꼭 상담요망

식물의 선택이 중요한 회의실 실내조경, 이렇게 해보자

회의실 실내조경

회색빛 공간에 들여놓은 식물은 분위기를 바꾼다. 화사하고 활기차다. 화분 몇 개가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전문가가 만든 화단이 가져다줄 수도 있다. 5월호에는 회의실에 꾸미는 조경을 소개한다. 실내에 맞는 식물선택, 정돈된 식물식재와 분위기에 맞는 식물구성 등이 회의실 분위기를 품위있게 높임은 물론, 안정된 역할을 하리라 본다. 직접 구성하고 심고 하는 과정을 따라가 보며 회의실 실내조경을 배워보자.



운대 신선한 녹색을 가진 식물이 좋다. 또한 병충해가 없는 식물을 선택해야 하는데 되도록이면 깎지벌레가 안 끼는 식물이 좋으며, 신선감이 도는 밝은 황색이나 라임색, 크림색 무늬가 들어있는 무늬종이 좋다. 크기는 컨테이너 높이와 식물의 크기가 테이블 높이(75cm)보다 낮아야 하므로 높이가 50cm 이하의 크기가 적당하다. 이번 식물 재료로는 남천과 테이블아자, 문라이트, 콩고, 셀라기넬라, 선인장류, 산세베리아류, 금전수, 다발니아, 스킨답서스, 스킨답서스 '라임', 흰꽃안수리움, 산호수, 드라세나 와네키, 아글라오네마 '실버 더스트' 등을 선택하였고 시설물로는 석재 물확과 석재분수대용으로 준비되었으며 마감재료

로는 석회석과 이끼, 흰색의 잔자갈과 마사토를 체로 쳐낸 굵은 모래를 준비하였다. 또한 방부목의 색채가 주변의 테이블색을 조화시키기 위해 목재용 붉은 황토색 스테인을 칠하였다. 그리고 분수대 모터를 돌리기 위해 전기코드를 설치하였다

식재 후 유지관리

관수와 욕엽, 띄워 따주기, 병충해관리와 있으며 1, 2년이 지나면서부터 생육이 부진하거나 고사하는 것들은 보식하거나 갈아 심어 주어야 한다. 또한 토양이 오래되면 영양분이 손실되어 비료를 시비해주어야 하는데 이때는 하이포넥스를 1000배액을 타서 분무기로 뿌려주거나 그린코트 같은 정제를 뿌려주는 것도 좋다. 특히 미량요소 결핍현상이 나타날 때도 있는데 이런 때를 대비하여 배양토를 교체시 일반 토양을 소토하여 10% 정도 혼합해 주면 좋다.

관수관리

식물의 잎이 윤기가 없어지거나 잎을 만져 봐서 뻣뻣하지 않고 부드러우거나 할 때에 적당히 물을 주면 된다. 관수 지표식물로 셀라기넬라 잎이 시들시들할 때 전체적으로 물을 준다. 욕엽(浴葉)은 잎이 오래되면 먼지가 많아 신선감이 떨어지므로 물로 세척하거나 오래 찌든 먼지라면 잘 닦아 주어야 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연약한 잎이 상처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띄워 따주는

식물도 살아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오래되면 노화되는 잎은 어떻게 변한다. 이런 땀 전정(剪定)위로 잘라내어야 전체 분위기가 살아난다.

병충해관리

되도록 병해가 없이 잘 자라는 식물을 선택해서 식재해야 한다. 어떤 식물은 관상가치



윤평섭 삼육대학교 명예교수

회의실이라 하면 작은 공간과 큰 공간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30평정도 규모의 공간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과정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실내조경을 위해서는 컨테이너가 준비되어야 하며 방수용 재료와 배수판, 부직포, 흡수층토, 배양토, 시설재료, 관상식물, 마감재 등이 필요하게 된다. 컨테이너 크기는 폭이 1,650mm, 길이가 9,850mm로 하나

의 컨테이너로 만들기에 너무 커서 길이를 반으로 나누어 4,925mm로 하였고, 높이는 270mm로 하였다. 컨테이너 재료는 방부목을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식물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데 햇빛이 없는 실내환경에서 잘 견디며 자랄 수 있는 내음성식물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보기도 좋아야 하며 빨리 자라지 않는 식물로 녹색식물 가

는 있지만 병충해가 잘 서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식재하다보면 이웃식물에까지 영향을 주어 퍼지게 되므로 보기가 싫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물은 삼가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크로톤이나 아글라오네마 같은 식물은 보기는 좋지만 환기가 안 되는 곳에

서는 깎지벌레가 많이 서식하므로 지저분하게 되며, 이웃식물에게까지 퍼지게 하여 좋지 못한 사례가 되고 있다.

보식은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

연광과 자연의 비, 자연의 바람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되면 생육이 부진하여 죽거나 상태가 안 좋게 되는데 이때에는 갈아 심어야 한다.

실내조경 - 컨테이너 실내조경 따라하기

전문가를 따라가 보자. 직접 하면 너무 큰 작업이라 엄두가 안 나지만, 단계단계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중요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전문가의 포인트를 살려 작은 화단을 직접 만들어보는 어떨까? 식물과 암석, 작은 돌학, 이끼 등의 마감재를 마련해 아가자기하게 구성해보자.

사무실 작은 공간, 구석진 자리에 화사하게 작은 화단 하나 들여놓으면 분위기도 업~, 실내환경도 업~



방부목으로 컨테이너 짜기



컨테이너 밑판대기 완성모습



흡수층을 위한 필터이트 깔기/배양토 넣기



부직포 깔기



배수판 깔기



배양토 넣은 후 배적작업



다육식물 식재 / 마감처리 완성



관엽식물로 컨테이너 식재



관엽식물로 식재된 컨테이너 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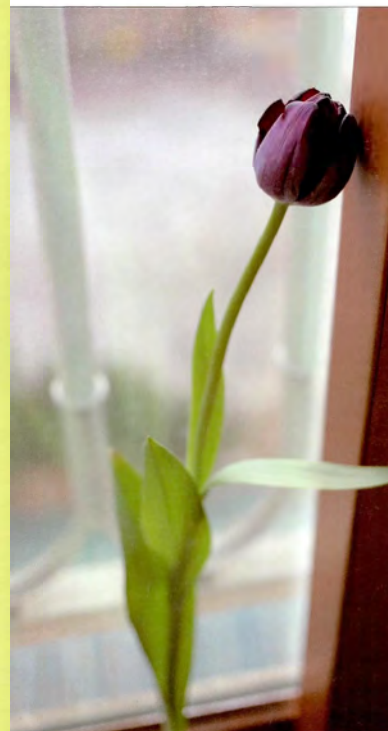


석재물의 돌학으로 분수대와 폭포

5월, 여름을 대비하자!

자칫하면 식물이 쉽게 죽어나가는 계절이 있다. 바로 여름과 겨울. 이 계절은 봄과 가을에 비해서 한가한 계절이지만 자칫하면 시들어 버린 화분이 늘어가기 쉬운 계절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름과 겨울이 오기 전에 반드시 잘 대처하여 조금이라도 시드는 식물이 없도록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때문에 늦봄인 5월은 여름을 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다.

글 사진 퀘럼 오하나



지난 겨울은 참 따스했던 편인 듯하다. 재작년 겨울은 너무 추워서 월동이 가능한 허브도 밖에서 월동이 되지 않곤 했는데, 2013년의 겨울은 만발의 준비를 한 것이 쓸모가 없어질 정도로 온도가 높은 편이었다. 야외 온도가 영하 10도로 내려가는 일이 별로 없었으니 말이다. 겨울이 따스하니 당연히 봄도 금새 찾아왔고 3월에 특하한 찾아오는 꽃샘 추위의 후유증 없이 따스한 기운이 가득해졌다. 봄이 빨리 찾아오니 화려한 꽃들을 빨리 감상할 수 있다는 생각이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서기 시작한다. 봄이 빨리 온만큼 더위, 즉 여름도 빨리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로 병충해. 다른 계절이야 병충해가 활기를 칠만한 온도가 아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슬슬 더워지기 시작하는 5월부터 어디서 왔는지 모를 병충해들이 스물스물 보이기 시작한다. 특히 베란다에 식물을 많이 키워 뽐뽐하게 늘어놓았거나 병충해가 잘 생기는 채소 등의 식물을 많이 키울 경우 병충해로 시달릴 가능성이 많아질 것이다. 때문에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해놓는 것이 좋은데 미리 연하게 희석한 천연 살충제를 뿌려준다면 병충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목초액을 희석하여 뿌려주면 병충해에 강해져서 병충해로 인한 피해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다. 천연살충제를 뿌려주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병충해는 건강한 식물보다는 연약한 식물에 더 잘 생기는 편이기 때문에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병충해 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이다. 그렇다면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

첫 번째는 바로 햇빛이 잘 드는 공간이다.

일부 관엽식물이나 강한 직사광선을 좋아하지 않아 반양지 혹은 반그늘에 두는 것이 좋지만 대부분의 식물은 햇볕을 좋아하기 때문에 최대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는 것이 좋다.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식물에게 열심히 공급해도 햇빛이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면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것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통풍'이다.

통풍이 잘 되지 않으면 식물에 병충해가 더 잘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로즈마리와 같은 일부 식물은 흰가루병 등의 병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겨울에도 회사에 출근할 때 꼭 창문을 열어주고 가는 편인데 창문에서 들어오는 찬 바람에 남아 있던 해충이 죽어 다가올 봄을 대비하려는 마음도 있었다. 통풍을 위해서는 창문을 자주 열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식물

아직 해야 할 일을 다 못했다면 더욱 분발할 것!

모종을 구입하면 꼭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분갈이다. 처음부터 큰 모종을 구입했다면 모를까 10센티 감색 포트에 들어 있는 모종은 너무 작은 화분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2~3주 이내로 옮겨 심어주는 것이 좋다. 이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분갈이를 할 때 식물이 새로운 화분에 적응하지 못하고 앓을 수가 있다는 점이다. 안그래도 분갈이를 하여 힘든데 휴식을 취해야 할 여름과 겨울에 분갈이를 한다면 식물은 더욱 지쳐버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되도록 여름이 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분갈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종 구입도 되도록 여름 전에 하는 것이 좋는데, 여름에는 자칫 모종에 병충해가 탈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여름에 구입해야 한다면 꼼꼼히 모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봄에만 꽃을 보여주는 화초도 많기 때문에 꽃을 좋아한다면 더욱 서두를 필요가 있겠다. 씨앗을 심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씨앗을 여름에 심을 경우 새싹이 더위로 인해 약하게 자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아직 파종을 하지 못했다면 되도록 5월초에는 파종을 끝내는 것이 관리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다.

애지중지 관리하여 드디어 퍼준 튤립

봄이 되면 튤립축제가 열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고 있는 봄의 구근 화초, 튤립! 나 또한 이 튤립을 직접 구근부터 시작하여 키워보고 싶어 지난 가을에

을 너무 뻘뻘하게 배치하면 통풍을 방해하고 다른 식물에 붙어 있던 병충해가 옮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좋다. 또, 식물이 너무 풍성하게 자랐을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하면 안쪽까지 통풍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적당한 물이다.

사람이 밥을 너무 적게 먹으면 힘이 없고,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날 수 있듯이 식물도 너무 적은 물과 많은 물은 옳지 않다. 물을 너무 과하게 주면 식물이 뿌리가 썩기 쉽고 뿌리 괴리 등의 해충이 흙에 서식하기 쉬워진다. 그렇다고 물을 너무 주지 않으면 뿌리가 말라버리기 쉽고 건조한 환경에 잘 생기는 옹에 등의 서식이 쉬워질 수 있다. 그렇다면 물은 어떤 때 주어야 할까? 대부분의 식물은 겉흙이 말랐을 때 주면 되고, 건조함에 강한 식물은 흙을 파봐서 속흙이 마른 것을 확인하여 주면 된다. 다육식물의 경우에는 물을 자주 주면 물러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 정도 준다는 생각으로 아주 건조하게 키워야 한다.

네 번째는 식물을 배치한 곳의 온도이다.

대부분의 식물은 20~25도 정도의 온도에서 잘 자라는 편인데

에서 먼저 어여쁜 보라색 꽃을 피워주었다. 하지만 뿌리를 제대로 뻗기도 전에 너무 급 성장을 해서인지 잎이 좀 부실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나머지 튤립은 겨울 동안 베란다의 온도가 10도 안팎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온 처리에 실패한 것이 아닐까 걱정했는데 먼저 꽃 피운 튤립

보다는 늦었지만 꽃대를 올리는 모습을 보니 튤립의 정상 개화시기인 4~5월쯤에 더욱 튼튼한 꽃을 피워줄 것 같다.



♪ 튤립 키우기



1 튤립구근의 껍질을 벗겨 준비하고, 락스나 बे노밀 등의 살균제를 500~1000배 정도의 물에 희석하여 구근을 담가 소독한다. 1시간 정도 담근 후 튤립구근을 꺼내어 바짝 말린다. 튤립은 곰팡이 등이 잘 생기기 때문에 소독을 해주는 것이 좋다.



4 서늘한 베란다에서 관리하였더니 튤립의 잎이 아주 느리게 성장을 했다. 온도가 높은 곳에서 관리하면 웃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서늘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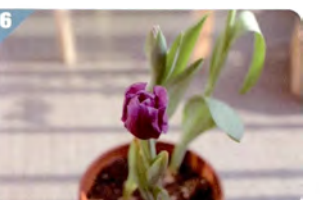
2 빈 화분에 마사토를 섞은 흙을 반 정도 채우고 물기를 바짝 말린 튤립구근을 넣어 흙을 덮어준다. 노지에 심을 때는 튤립구근의 2배 이상 흙을 얹어주는 것이 좋지만, 화분에 심을 때는 꼭 그러지 않아도 된다. 0~8도 이하의 베란다나 창고 등의 공간에서 화분을 놓아 저온처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5 드디어 튤립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꽃대가 올라오고부터는 햇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쓰고 흙이 너무 마르지 않도록 한다.



3 1~2달 정도 기다렸더니 튤립 구근에서 작은 싹이 올라왔다. 싹이 올라올 때까지 딱 한번만 물을 주었고, 싹이 올라오고부터는 속흙까지 마르면 물을 주었다. 그 전에는 그늘진 곳에 두어도 되지만 싹이 올라오고부터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관리한다.



6 예쁜 보라색 튤립이 피었다. 꽃이 핀 후에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면 너무 꽃이 활짝 피고 빨리 지기 때문에 약간 그늘진 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작은 향아리꽃이 아름다운

무스카리 (Grape-hyacinth)

잎이 없는 꽃줄기 끝에 파란색, 흰색, 분홍색을 띠는 향아리처럼 생긴 작은 꽃들이 뿔뿔하게 무리지어 피는 무스카리는 봄의 관상식물로 뜰에 심으면 아름답다. 무스카리는 예쁘기도 하지만 가장 키우기 쉬운 구근식물 중 하나이다. 예쁘고 키우기도 쉬운 이 꽃에 대해 알아보자.

하양과 파랑의 꽃을 띠는 무스카리가 핀 작은 화단

개요

무스카리는 유럽이 원산지인 아스파라거스과의 구근식물이다. 꽃은 이른 봄에 흰색, 청색으로 피는데, 환경적응력이 매우 강하고 개화력이 좋아 예전부터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구근식물이었다. 게다가 번식도 잘 되고 관리를 거의 안 해도 잘 죽지 않으니 초보자도 키우기에 이만한 구근식물을 찾기는 힘들 정도이다. 또한 꽃 색이 파란색이기에 다른 봄꽃들과 혼식해두면 조화가 잘 되어 대단히 아름다우므로 봄 정원에 빼놓을 수 없는 화초라 하겠다. 최근에는 많은 품종개발으로 특이한 분홍색 무스카리도 나오고 있다.

식재 정보-배수가 좋은 땅에 심는다.
무스카리는 햇빛만 잘 든다면 웬만한 장소

에 심어도 잘 살지만 그래도 배수가 좋은 토양에서 생육이 가장 좋다. 게다가 흙이 비옥하기까지 하면 금상첨화. 한 번 심어 두면 몇 년간 캐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되는 점이 매력적이다. 그러나 배수가 좋지 않은 곳과 음지에서는 생장이 좋지 않으므로 그러한 장소는 피한다. **화분재배 시에는 깊이 10cm이상의 화분을 준비하여 구근은 윗부분이 보일 정도로 얇게 심고 햇빛을 잘 보이며 키우면 잘 자란다. 참고로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키울 때는 항상 직사광선이 드는 곳에 두어야 못자라지 않고 내년에도 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구근은 가을에 심으며 작은 구근인 만큼 흙에 5~10cm사이 깊이의 구멍을 파고 심도록 한다. 식재 간격은 10cm정도가 이상적이지만 사실 식재 간격을 5cm이하로 하여

심어도 잘 자라며 꽃이 촘촘하게 피어 더욱 아름답다.

비료, 물주기-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된다.

무스카리는 수 근 윗부분이 땅위에 노출될 정도로 얇게 심지 않았다면 물주기에 그리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겉흙이 말랐을 때 혹은 4~7일에 한 번 물을 주면 된다.

무스카리를 정원에 심었을 때는 가뭄이 심하지 않은 이상 물주기에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비료주기는 가을에 주는 퇴비만으로도 충분하나 봄에 추가적인 속효성 비료를 사용하면 내년에 더욱 풍성한 꽃을 기대할 수 있다. 추가적인 비료를 줄 때는 비료를 설명서에 쓰여 있는 비율로 희석하여 2주 한 번 물과 함께 주면 된다.

번식법- 분구번식을 주로 한다.

무스카리는 씨뿌리기, 분구로 번식이 가능하며, 구근식물 중에서는 씨로 번식해도 개화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은 편이다. 하지만 씨를 받아야 할 정도로 구근번식이 안 되므로

씨앗을 받기보다는 꽃이 지면 꽃대를 잘라버리고 구근의 생장에 집중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무스카리는 구근이 잘 늘어나므로 2~5년에 한 번씩 가을에 구근들을 캐내어 늘어난 구근을 나누어 심는다.

병충해- 특별한 병충해가 없는 강건한 식물이다.

무스카리는 특별한 병충해가 없어 관리가 쉽다. 하지만 식재된 장소가 그늘지고 배수가 안 되는 등 환경이 좋지 않다면 생육에 이상이 오므로 애초에 **구근을 햇빛이 잘 들고 배수가 좋은 곳에 심도록 한다.**

무스카리의 구근 관리-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다

대부분의 봄 개화 구근은 여름에 잎이 지고 장마에 약해 구근을 캐어 건냉암소에 보관하지만, 무스카리는 여름에도 한 동안 잎이 남아있고, 장마철이 와도 잘 죽지 않으므로 캐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된다. 단 배수가 좋지 않은 곳에 무스카리를 심었다면 잎이 진 후에 구근을 캐어 건냉암소에 보관해야 한다. 구근을 캐서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무스카리의 월동- 내한성이 매우 강하다

무스카리는 서울 지역에서도 화분에 심은 채로 노지월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한성이 정말 강한 식물이다. 정원에서는 아무리 이상 한파가 와도 월동 관련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화분에 심었을 때 노지월동을 시킨다면 이상 한파가 올 때 위험할 수 있으므로 매우 추운 날에는 화분을 0도 전후의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다. 몇몇 초보 원예가들이 가을에 나는 잎이 얼어 죽을까봐 잘라내는 게 좋지 않느냐고 묻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잎은 아무리 추워도 늘어지지만 할 뿐 겨울 동안 죽지 않고 봄에 싱싱해지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무스카리 구근



구근에서 줄기가 났어 나야 있는 모습



연한 파랑, 연한 분홍, 파랑위에 하양색의 꽃이 줄기 에 달려 있다. 초봄처럼 순차적으로 피어난다.



두 개의 서랍을 이용한 플랜트박스(plant box garden)

날이 따뜻해지고 이사하는 집이 늘면서
재활용 구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가구이
다. 가구의 서랍을 이용해 플랜트박스를 만들고
그 안에 다양한 그린 계열의 식물을 식재하고
소품을 붙여 화사한 봄 가드닝 작품을 만들어
실내, 외의 분위기를 바꿔보자.

글, 사진 우정아 가든 디자이너



>> 완성된 플랜트 박스



배양토, 숯가루, 화산석, 색돌(검은색), 마사토, 베고니아, 피토니아화이트스타, 세덤, 트리초스, 페페로미아, 글루건, 칠판스틱, 소품, 서랍 2개, opp비닐

Step by Step



1 서랍 두 개를 안쪽 면을 마주 대고
피스나 못을 박아 서로 고정시킨다



2 opp비닐을 두 겹 바닥에 깔 후 배수층으로
화산석을 채운 후 그 위에 숯을 넣는다



3 마사토를 간후 적당히 배양토를 넣는다



4 베고니아 3개를 포트에서 분리해서 좌측
박스에 식재한 후 트리초스 2개를 포트에서
분리해 우측 박스에 식재한다



5 페페로미아를 뒤면 중간지점 가까이 식재한
후 세덤도 32로 가르고 좌우로 나눠 식재한
후 빈 공간에 배양토를 채운다



6 밖으로 나온 opp비닐을 박스의 높이에 맞게
자른후 못으로 흙과 이물질들을 털어준다



7 소품을 앞쪽으로 하여 글루건으로 붙인다



8 칠판 스틱에 정원의 제목을 쓰고 꽃는다



관리법



임이 두꺼운 식물을 혼식했기 때문에 관수 주기는 표토가 완전히 마르면(핑거테스트) 준다. 관수량은 배수구멍이 없기 때문에 배수층(화산석과 숯은 고이는 물의 정화를 돕는다)에 고이는 정도만 준다. 배수층보다 관수량이 많으면 뿌리가 썩을 수도 있다. 통풍이 잘되고 직사광선은 피하되 밝은 곳에 둔다. 공중 습도가 높은 것을 좋아하므로, 하루에 한 번 정도 분무기를 이용해 습도를 맞춰준다. 분무 시 꽃을 피해서 분무해야 꽃을 오래 볼 수 있다.

GARDENIN POINT

관수주기-

- 표토가 완전히 마르면 준다.(배수층이 없음에 유의)
- 통풍이 잘 되는 밝은 곳에 둔다.
- 하루에 한번 꽃을 피해 분무한다.

실내정원의 기본기술 I

실내정원을 가꾸기 위한 황금규칙 열 가지

10



글/사진 정순진
농촌진흥청
도시농업연구팀 농업연구사

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인 사람도 있다. 예뻐서 곧잘 사오지만 너무 사랑을 많이 줘서 일까? 식물이 시들해지거나 또는 물 주는 시기를 놓쳐 고사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식물키우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하고 해도 무리는 아닐 듯 싶다. 식물키우기를 넘어 실내정원까지도 도전할 수 있으니 눈에 불을 켜고 봐볼 일이다. 이쯤에서 '실내정원을 가꾸기 위한 황금규칙 10'가지다. 잘 지키기만 하면 누구나 도전해도 성공률 100%(?)라 해도 좋을 규칙이니 꼭 숙지해서 시작해보자. 눈부시게 아름다운, 꽃보다 초록이 예쁠 시기이니 조금은 욕심 내 봐도 되지 않을까?

자 트리 마당 한 평 없는 아파트에서 사는 현대인들은 삶의 공간 주변에 꽃 한 송이, 식물 한 포기 곁에 두기가 쉽지 않다. 실내에서나마 녹색식물이 주는 정신적 위안과 신선한 공기를 만끽할 수는 없을까? 식물의 잎을 주로 관상하는 관엽식물이 인테리어 기능 이외에도 공기정화, 냄새제거, 전파차단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린 인테리어'는 물론 '그린 테라피' 효과를 누리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 서일까?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관상용의 짧은 수명을 가진 식물들보다 실내에서 계속 관상할 수 있는 실내식물을 더 많이 구매한다고 한다. 크라고도 모두들 실내식물을 잘 키우는 것만 아니라, 실내에서 꽃과 잎을 관상할 수 있는 실내식물을 잘 키우는 데에도 방법이 있다. **우선 실내공간에서 녹색 친구와의 편안하고 안전한 동거를 위해서는 열 가지 황금 규칙을 알아두어야 한다.**

1. 식물의 뿌리를 절대로 침수시키지 않는다.
2. 식물들에 휴식을 준다.
3. 일시적으로 꽃 피는 식물들의 짧은 수명을 인정한다.
4. 충분한 습도를 유지한다.
5. 발생하는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한다.
6. 서로 무리를 지어서(grouping) 배치한다.
7. 분갈이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8. 현명하게 선택한다.
9. 실내정원을 가꾸기 위한 적절한 도구를 갖춘다.
10. 식물들의 특수한 요구조건들을 점검한다.

1 식물의 뿌리를 절대로 침수시키지 않는다.

흙 속에 있는 뿌리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필요하다. 항상 배지가 흠뻑 젖은 상태로 유지되면, 뿌리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해 질식사하게 되고, 이후, 뿌리로부터 물과 무기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잎과 줄기가 시들어 죽게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적절한 물주기(관수)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2 식물들에 휴식을 준다.

거의 모든 식물이 겨울에 휴면을 취한다. 이 시기는 식물이 활발히 자라는 봄~가을철보다 필요로 하는 물의 양, 비료, 온도 요구량이 적다. 즉, 우리가 밥을 많이 먹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하면 탈이 나는 것처럼 이때는 약간의 무관심으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식물에 더 도움이 된다.

3 일시적으로 꽃 피는 식물들의 짧은 수명을 인정한다.

시클라멘, 국화, 글록시니아와 같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 때 구입하는 식물들은 꽃을 관상한 이후 대개 몇 주 안에 죽게 된다. 이런 종류의 식물들은 꽃을 주로 관상하는 식물로, 실내공간에서 키울 때 수명이 짧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4 충분한 습도를 유지한다.

겨울철 난방 때문에 상대습도는 20~3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 실내식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약 50~60% 정도의 습도를 좋아한다. 적절한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대처해야 한다.

5 발생하는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한다.

식물체 아랫부분에 시든 잎, 상한 잎, 시들어 떨어진 잎 등을 바로바로 제거하는 것은 기본이다. 항상 식물체의 잎을 돌쳐가며 관심을 줘야 한다. 이때금 한두 마리의 깍지벌레가 보인다면 칫솔이나 손톱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다. 만약, 그 시기를 놓쳐 벌레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농약을 이용해야 하거나 식물체를 내버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지나친 관수는 처음에는 치명적이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식물을 죽일 수도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초기의 징후를 인지하여 빠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6 서로 무리를 지어서(grouping) 배치한다.

창 바깥으로 보이는 정원을 한번 살펴보자. 정원은 여러 가지 형태와 크기를 가진 식물들이 주가 되는 식물을 기준으로 모아 심어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왜 그럴까? 키가 크고 형태가 뚜렷한 식물은 화분 하나만으로도 그린 인테리어 효과가 있지만, 대부분의 식물들은

다양한 형태, 크기, 색깔을 지닌 식물을 무리지어 배치할 때 더 강한 자연의 생명력을 전달할 수 있고 디자인적 효과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무리지어 배치하는 방법으로는 각각의 화분에 심긴 화분들을 모아 배치하는 방법과 커다란 하나의 용기에 여러 가지 식물을 함께 심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무리지어 배치한 식물들은 겉으로만 예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물주기, 습도 관리 등이 더 수월해져, 식물 관리에 자신감이 생기게 해 준다.

7 분갈이는 용기나 배양토를 교체하거나 뿌리의 상태를 갱신해주는 것을 말한다. 흔히 뿌리가 너무 자라서 더는 뺨을 공간이 없을 때, 뿌리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또는 부적절한 관리 탓에 배양토의 물리성이 나빠졌을 때 해준다. 식물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분갈이를 해주기 위해서는 분갈이 방법을 알아두어야 한다.

8 현명하게 선택한다.

우리 집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을 선택해야 한다. 빛, 온도를 요구하는 정도에 따라 공간별 배치장소를 선택할 수도 있다. 집에서 키우기 수월한 식물로 아글라로니아, 테이브야자, 산세베리아, 세룰레라 '홍콩', 호야 등을 들 수 있는데, 공간별 배치장소별 추천 식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언제쯤 자세한 설명을 할 계획이다.

9 실내정원을 가꾸기 위한 적절한 도구를 갖춘다.

- 길고 좁은 주둥이 모양, 사워형테기의 관수도구, 물양동이
- 습도 상승, 먼지제거를 위한 분무기, 해충 방제를 위한 분무기
- 혼합배양토, 각종 화분, 식재도구로 이용하는 막대기, 유인용 곤 종류
- 가정용 비료 한 통
- 안전한(저독성) 가정용 살충제
- 부드러운 스펀지
- 숟가락, 포크, 모종삽
- 전지가위 (목분용, 초본용)
- 장갑, 양치마 등

만약, 기성 제품의 전문 원예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재활용 페트병, 신문지, 나무 막대기, 재활용 끈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10 식물들의 특수한 요구조건들을 점검한다.

키우고자 하는 식물의 각각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식물마다 요구하는 환경, 관리수준, 관리 정도가 다르므로, 선택한 식물이 어떤 식물인지, 무얼 원하는지에 대한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Step by Step

분식물 장식 시 고려할 사항

1 배수구가 없는 용기의 배수층 처리



- 분식물 장식의 규모가 작은 경우, 입자솜을 이용하여 배수층을 만들면 정화작용까지 겸할 수 있다.
- 솜 입자에 뿌리가 직접 닿지 않도록 배양토로 경계를 두고, 식재부와 구분한다.
- 수경형 정원의 경우, 솜은 정화작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쓰는데, 보통 통솜을 이용하고, 가벼워 들 수 있으므로 무거운 배지(세척한 마사토, 맥반석 등)로 처리 후 식물을 식재한다.

2 지제부 모아 뿌리 정리하기



- 화분에서 흙을 떨어내고 뿌리를 가지런히 정리 한다.
- 지제부를 모아가며 식물의 얼굴을 만들어 본다.
- 가장 맘에 드는 얼굴을 결정한 후, 뿌리 부분을 사방으로 자연스럽게 펼쳐준다.
- 뿌리는 용기 안 쪽 중심식물을 향하도록 하여 건조 스트레스를 적게 받도록 한다.
- 특히 덩굴성 식물인 경우, 작은 돌을 껴어 얼굴을 높여 주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식재할 수 있다.

분식물 장식 전 고려할 사항

첫째, 실내환경 및 관리조건에 알맞은 식물을 선택한다.

식물마다 좋아하는 온도, 광, 물 조건이 있고, 배치하고자 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식물을 선택해야 한다.

둘째, 식물과 어울리는 용기를 선택한다.

식물과 용기의 형태 및 크기를 비교하여 어울리는 짝꿍을 찾아주는 것이다. 다양한 크기, 잎 모양, 질감, 색상 등의 조화에 포인트를 두어야 한다. 더불어 배치장소의 배경 이미지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 결정 요소이다.

셋째, 식물의 형태와 모양을 고려한 정원 구성 요소별 식물을 선택한다.

구성 요소별 식물을 적절히 선택하면 디자인의 표현 방법이 다양해질 수 있다.

- 추가 되는 식물 : 높이감을 주는 큰 키 모양의 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중간 키 모양의 식물 : 정원의 기본적인 골격(framework)을 형성하고, 특히 잎의 색이 다양한 식물을 선택하면 그 효과가 더 강조된다.
- 늘어지는 덩굴성 식물 : 분식물 장식의 흐름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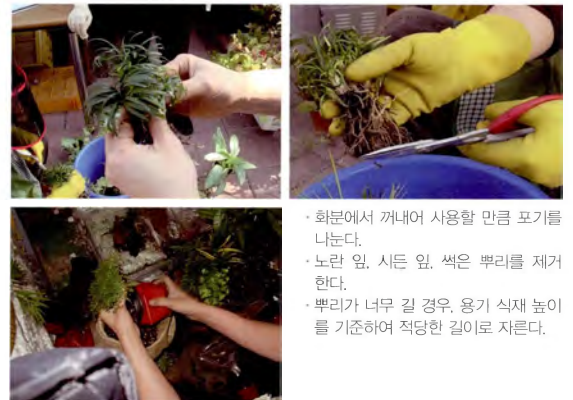
접란 필레아 글라우카가 천정에 매달려 있다.

3 식물체 얼굴 정하기



- 식물체의 사방을 살피며 앞 얼굴을 정한다. 안쪽으로 작고 낮은 잎이 보이고 후면에는 크고 높은 잎을 배치한다.
- 식물체를 쥐고 심을 때는 줄기 윗부분을 꼭 쥐지 말고 뿌리와 줄기가 나누어지는 지체부를 살짝 잡고 뿌리를 고정하여야 본연의 얼굴을 살릴 수 있다.

4 심기 전 노란 잎과 상한 뿌리 정리는 필수!



- 화분에서 꺼내어 사용할 만큼 포기를 나눈다.
- 노란 잎, 시든 잎, 썩은 뿌리를 제거한다.
- 뿌리가 너무 길 경우, 용기 식재 높이를 기준으로 적당한 길이로 자른다.



형광스킨답서스

소형 팔레놉시스

수목원을 여는 열쇠, 식물표찰

식물의 이름표, 표찰.

4월호에 이어 5월호에도 식물표찰의 기사가 나옵니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식물표찰을 만나보고, 수목원에서 전문적으로 만드는 표찰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또 나만의 개성있는 식물표찰을 만들어 우리집 정원에, 내 화분에 꽂아 식물의 이름과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제이드가든 수목관리팀 권순식

<http://www.lubirdbaby.com/2010/06/our-veggie-garden.html>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식물표찰

식물표찰이 어떤 것인지, 왜 중요한지는 지난번에 말씀 드렸기에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식물표찰은 어떻게 만들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수목원과 같은 전문적인 기관에서는 식물표찰이 대량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기계를 이용하여 자체 제작하거나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설치하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파손이나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 내구성이 뛰어난 재질로 만들어 사용됩니다.

하지만 일반 가정의 화분이나 화단처럼 소량으로 필요한 곳에서는 굳이 비싼 비용을 들여 기계를 사거나, 업체에 주문 제작하지 않아도 훌륭한 표찰을 만들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소재 위에 원하는 식물의 이름을 적어서 식물 앞에 놓아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국립수목원의 '무늬마삭줄' 식물표찰〉



인쇄는 손가락에 식물의 그림과 이름이 적혀있다. 다양한 손가락만 큼이나 재미도 다양하다.

<< http://www.etsy.com/listing/97013557/herbs-5-illustrated-vintage-silverware?ref=shop_home_active_1



<< <http://www.lifechadce.com>



<http://www.flickr.com/photos/quinnanya/3549735749/>



<< <http://www.lifechadce.com>

위 사진들은 구글을 검색하여 나온 다양한 식물표찰들입니다. 수목원의 표찰처럼 정형화된 모습은 아니지만 오히려 개성넘치며 독창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식물표찰은 정해진 형태나 재질이 없습니다. 식물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식물표찰이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원이면 됩니다.

안 쓰는 물건이나, 버리고 했던 재활용품, 심지어 돌이나 나뭇가지처럼 무엇이든 식물표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집게, 막대기, 와인뚜껑 등 재밌는 소재로 만들어진 이름표. 보는 이의 상상력을 끌어내지 않을까요?

수목원의 다양한 표찰

수목원에서도 앞에서 보여드린 사진과 같은 개성있는 표찰들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목원에서 식재된 식물만 해도 몇 천에서 몇 만 종류를 헤아리기에 기계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또 사람이 쓴 글씨보다 기계가 쓴 글씨가 대체적으로 가독성이 높고, 오래도록 사용하기 위해 내구성이 좋은 재질로 선택되는 플라스틱이나, 금속류에 글자를 새기기 위해서라도 기계는 필요합니다.



잉크레이브 머신으로 표찰을 만들기 위해 ABS보드 위에 글자를 새기고 있다. ABS나 아크릴등은 내구성이 좋아 표찰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위 사진은 잉그레이브머신(Engrave Machine)이라는 기계로 드릴 모양의 갑날을 고속으로 회전시키며 작업대 위에 올려놓은 ABS보드에 홈을 파서 글자를 새기는 작업 사진입니다. ABS나 아크릴 등은 가공이 쉽고, 내구성이 좋은 편이어서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수목원에서 표찰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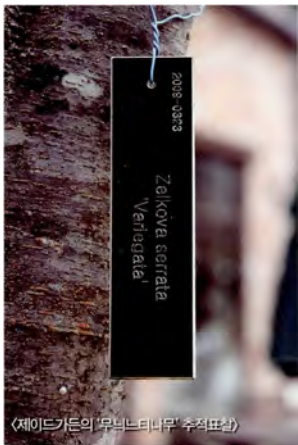
이 외에도 금속재질의 표찰을 이용하며 이 때는 금속판 위에 직접 글자를 프린팅하거나 레이저 잉그레이브머신 등을 이용하여 글자를 새기기도 합니다.

물론, 손으로 직접 만들고 글씨를 써서 사용하는 표찰들도 있습니다. 주로 임시로 사용하며 정식으로 표찰을 설치하기 전까지 식물을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종이, 플라스틱, 합성필름, 구리판 등이 있습니다.

정식표찰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사용하는 임시표찰들
임시로 사용하는 표찰: 플라스틱, 합성필름, 구리판등의 소재를 이용해 임시로 쓰는 표찰들



가장 기초가 되는 작은 형태의 표찰인 추적 표찰은 가드너를 위한 표찰이다. 일련번호와 학명만이 기재된다. ▼



〈제이드가든의 '무늬느티나무' 추적표찰〉



〈제이드가든의 '원두리' 제사카 릴리안' 식별표찰〉

추적표찰은 언제 어디서 들어온 어떤 식물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단서가 된다. 최소한의 정보가 담겨 있다

방문객에게 해당식물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련번호, 과명, 국명, 학명, 원산지 등이 표기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비전문가인 일반인분들이 식물들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설치하는 표찰이 안내표찰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표찰을 만드는지 차원에서 제질에 대해 말씀 드렸으니,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표찰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제이드가든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전세계의 수목원들은 다양한 표찰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고 있는 더 발전된 형태의 표찰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3가지 형태의 표찰이 있다는 사실만 아셔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추적표찰, 식별표찰, 해설표찰”

가장 기초가 되는 표찰이자, 작은 형태의 표찰은 추적표찰입니다.

추적표찰은 방문객이 아닌 가드너들을 위한 것으로, 최소한의 정보(일련번호, 학명)만을 담아서 식물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표찰입니다. 작고 가볍게 만들어서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어디서 언제 들어온 어떤 식물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단서가 됩니다.



어려운 학명이나 과명보다 방문객분들이 보다 식물에게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을 적어서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며, 수목원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안내표찰보다 더 크고 많은 정보를 담는 것도 있는데, 이때는 안내표찰이라고 보다 안내판 또는 해설판이라 부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식물표찰은 어떻게 만들어지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양한 사진 사례를 통하여 말씀드리고 보았습니다. 제가 몇 년째 수목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이다보니 머리 속에서는 쉬웠는데, 막상 글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몰랐는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독자분들께서도 본인의 화분과 화단을 더욱 가치 있게 가꾸시기 위하여 표찰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내표찰은 방문객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이해를 높인다
”

Gardenin guide

표찰의 종류

추적표찰 가드너를 위한 표찰, 최소한의 정보(일련번호, 학명)가 담겨있어 식물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언제 어디서 들어온 어떤 식물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단서.

식별표찰 핵심적인 정보 제공. 일련번호, 과명, 국명, 학명, 원산지 등이 표기된다.

안내표찰(해설표찰) 식물에게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을 적어서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는 표찰.



내가 만드는 식물표찰

다양한 재료로 식물표찰 만들기

나만의 개성 넘치는 재미있는 표찰을 만들어 내 작은 정원에 꽃아보자. 식물의 이름을 모르는 것이 대부분인데, 한번 만들어놓으면 어떤 식물인지, 언제 구입해서 언제 꽃이 피고 언제 새 순이 올라왔는지 등을 알게 된다. 표찰은 보는 사람의 궁금증도 풀어주고 내 정원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알려주게 된다.

재료: 흰색의 플라스틱(구할 수 있으면 화분에 꽂아져 있는 이름표를 재활용해도 된다). 나무젓가락, 막대기, 숟가락 또는 일회용숟가락, 안쓰는 연필, 부직포, 색칠할 수 있는 재료 등으로 만들어보자.



직접 식물표찰을 만들면 재미있고, 손이 많이 잡아서 이왕이면, 식물들에게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식물을 가꾸고 꽃을 심는 일

가드닝의 즐거움을 나누는 온실 오랑주리

식물을 기르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하다. 세심하게 살피고 돌보는 과정에서 꽃이 피고 무럭무럭 자라는 식물이 자연스레 만들어준 마음이다. 늘 한결 같음으로 때때로 물을 주고 병충해도 살피고 계절별 온도도 체크해야 한다. 이렇듯 돌보는 세심함과 정성을 요구한다. 맹목적 강압적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마음에 온기를 지피고 자연의 경이로움에 감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홈가드닝', 오랑주리의 가든클래스에서 그 시작하는 길을 가든인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글, 사진, 주레민



봄이 시작하는 3월이면 언 땅을 깨고 고개를 드는 크로커스와 스노우드롭처럼 이른 봄의 기운을 맡으며 오랑주리로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한다.

2012년 2월에 시작했으니, 어느덧 초록의 기운이 샘솟는 온실에서 초록의 에너지와 함께 맞는 봄도 세 번째이다. 오랑주리라는 이름은 간단히 오렌지나무 온실을 말한다. 개인적으로, 가드닝 활동 중에서 온실에서의 섬세한 손 움직임을 좋아하고, 작더라도 유리 온실이 있는 정원을 가지는 게 소망이다. 나만의 정원을 만들기 전에 먼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온실을 빙자한

오랑주리에는 작은 오랑주리가 제 기능을 톡톡히 한다. 씨앗이 품은 에너지를 한껏 머금은 온실속에서 함께하는 가드닝의 즐거움으로 초록이 싱그럽게 물들어간다.



작업실이었다. 남창으로 햇빛이 충분히 비춰주고, 파종이며 삼복에 가드닝의 작업으로 복잡복잡 거러니 오랑주리라는 이름이 아주 틀리지는 않는다.

오랑주리에는 실제 아주 작은 미니 온실이 몇 개 있다. 그냥 지나쳐보면 데커레이션을 위한 소품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곳에서 발아를 하고, 잎눈을 틔우며 생명을 키워내는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다. 특히 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유용하게 쓰이는데, 밤에는 뚜껑을 닫아주고, 대낮이면 작은 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다. 작업실의 여주인들은 매일 아침, 얼마나 싹이 나왔는지, 밤새 얼마나 자랐는지, 허리를 굽혀 얼굴을 훑어 바짝 대고 보는 걸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그뿐이겠는가, 수시로 들여다보며 흙이 마르지 않게 미스트를 공급해주는 일은 밥 먹는 일보다 중

요하게 여길 정도다.

봄이 시작하는 3월이면 언 땅을 깨고 고개를 드는 크로커스와 스노우드롭처럼 이른 봄의 기운을 맡으며 오랑주리로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한다. 2012년 2월에 시작했으니, 어느덧 초록의 기운이 샘솟는 온실에서 초록의 에너지와 함께 맞는 봄도 세 번째이다. 오랑주리라는 이름은 간단히 오렌지나무 온실을 말한다. 개인적으로, 가드닝 활동 중에서 온실에서의 섬세한 손 움직임을 좋아하고, 작더라도 유리 온실이 있는 정원을 가지는 게 소망이다. 나만의 정원을 만들기 전에 먼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온실을 빙자한 작업실이었다. 남창으로 햇빛이 충분히 비춰주고, 파종이며 삼복에 가드닝의 작업으로 복잡복잡 거러니 오랑주리라는 이름이 아주 틀리지는 않는다.

오랑주리에는 실제 아주 작은 미니 온실이 몇 개 있다. 그냥 지나쳐보면 데커레이션을 위한 소품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곳에서 발아를 하고, 잎눈을 틔우며 생명을 키워내는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다. 특히 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유용하게 쓰이는데, 밤에는 뚜껑을 닫아주고, 대낮이면 작은 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다. 작업실의 여주인들은 매일 아침, 얼마나 싹이 나왔는지, 밤새 얼마나 자랐는지, 허리를 굽혀 얼굴을 훑어 바짝 대고 보는 걸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그뿐이겠는가, 수시로 들여다보며 흙이 마르지 않게 미스트를 공급해주는 일은 밥 먹는 일보다 중요하게 여길 정도다.

“ 매일 아침 얼마나 싹이 나왔는지, 밤새 얼마나 자랐는지, 허리를 굽혀 살피는 걸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이 가드닝이다. ”



새싹이 커서 성장하는 것은 자연의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과정을 보고 있으면 신비롭고 대견해서 애정을 쏟을 수밖에 없게 된다.

화분을 키우고 꽃을 심는 일을 가드닝이라고 한다면, 이 곳에서는 좀더 다양한 홈가드닝을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 사실, 꽃만 보기 위해 화분을 지속적으로 사고, 매년 봄마다 농장에 나오는 눈에 띄는 꽃을 골라 심는 것 이상의 재미난 것이 가드닝에 포함된다. 또, 우리가 실제 키우고 심을 수 있는 식물의 종류도 다양하다. 식물의 특성을 접할 수 있고, 생육조건에 맞게 심고, 키우고, 번식하는 방법들을 모아 12주 과정으로 가드닝 클래스를 진행 중이다. 처음에는 수강생 한 명과 일대일 수업으로 진행했었다. 현재는 전문가, 취미과정을 나누어 평일, 주말 스케줄이 진행되고, 대기자가 줄 설 만큼 관심과 참여가 늘었다.

첫 수업이 시작되는 날, 설렘과 기대에 찬 표정의 수강생 한 분 한 분 얼굴에서는 정원에 처음 심은 품종의 모종에서 꽃봉오리가 맺혔을 때와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 과연, 어떻게 생긴 꽃이 언제 필지 기대에 차고, 그 꽃에서 어떤 이야기가 피어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기본 좋은 셀렘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홈가드닝 실습을 하면서 흥미로운 과정을 지켜보게 된다. 식물을 다루는 경험이 적었던 분들은 처음 화분에 식물을 심을 때에 아기 다루듯 조심조심 한다. 그러다 6주차가 지나면 식물을 만지는 손 매무새에 과감함이 보이기 시작한다. 초반에 장갑을 고



수하던 분들이 그때 즈이면 맨손으로 흙을 만지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나는 그녀들의 손이 이제야 식물과 친하게 지낼 수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그 변화의 과정을 보는 일이 마냥 즐겁다.



식물을 만지고 있는 손은 섬세하고 아름답다. 비록 흙 때로 얼룩덜룩해질지언정.



“
식물은 다칠 수도 있고,
몸살을 앓기도 하고,
지치기도 한다.
”

수업시간에 배운 방법대로 심어 각자의 집에 가져가 배란다나 정원에서 키운다. 관심과 열정을 기울여 키운다고 모든 것이 건

강하게 잘 자라지는 않는다. 식물도 아플 수 있고, 몸살을 할 수도 있고, 지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한다. 그때마다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고, 적시에 처방을 내려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마저도 수업의 과정이다.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지만, 실제 경험이 답을 찾아가는 길을 만들어 줄 뿐이다. 매주 수업 시작 전에 수강생들과 그간의 식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체크한다. 집집마다 환경이 다르고 사람마다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조건으로 심어도 상태는 천차만별이다. 다양한 상황을 공유하다 보면,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가드닝에는 가이드 라인은 있지만 정답이 없다. 연륜이 쌓이는 가드너들은 직접 시험해보고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한다. 체험과 경험을 통해 얻은 결과들이 그들을 숙련된 가드너로 완성시킨다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는다.



배란다조차 없는 토여사님과 가드닝을 하던 첫 해가 기억난다. 거실 확장 공사를 했지만, 식물을 키우고 싶은 욕망을 막을 수는 없었다. 어느새 햇빛이 가장 잘 드는 상층에는 화분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다 순간, 잘 자라던 '마다가스카르' 자스민에 딱지벌레가 생겼다. 그 이후 그녀와의 메시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작되었다. 딱지벌레뿐만 아니라 응애, 진딧물도 집안에서 화초들을 시시콜콜 노리고 있었다. 손으로 일일이 잡기도 하고, 인티벳을 보며 다양한 퇴치 방법을 써보기도 하고 추천해주는 약을 쓰기도 했다. 그 결과 1년이 지난 후에는 벌레가 생겨도 전혀 두렵지 않게 되었다고 그녀는 말한다. 홈가드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를 내리고 사는 식물을 위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접하는 식물의 태생은 천차만별이다. 칼라데아 인시그니스 (Calathea insignis Bull.)는 뜨거운 열대지방에서 건너왔고, 인기 있는 다육식물인 흑범사 (Aeonium arboreum)는 스페인

의 해변가 언덕이 고향이다. 세계 곳곳을 고향으로 둔 식물이니 같은 조건에서 살기란 쉽지 않은 게 당연한 이치이다. 그들을 우리의 삶 안으로 들여왔으니 잘 살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주고, 적당한 수분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어찌 보면, 가드닝이 식물을 키위 내 옆에 두는 데에 대한 책임에서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식물은 절대 일방통행적인 보살핌만 받는 법이 없다. 그들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녹색으로 피로를 풀어주며 보답을 한다. 그리고 가장 큰 보답은 식물을 보살피는 과정에서 생기는 온기의 마음과 몸에 베이는 보살핌, 자연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가드닝에 한번 빠져들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다.

“
식물이 주는 가장 큰 보답은
식물을 돌보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따뜻한 마음,
배려, 자연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는 점이다.
”



사진 03) 직접 키운 채소로 건강한 샐러드 한 접시를 내놓을 때면, 기르는 기쁨에 수확하는 즐거움에 건강한 식탁까지, 즐거움이 두 배 세배가 된다.

자연과 식물, 정원은 알아차려야만 보이고, 누릴 수 있는 숨은 보석이 무수히 박혀있다. 이른 봄에 파릇하게 물이 차오르는 연두 빛의 이파리들을 보르고 그냥 지나치면 어느 순간 진녹색으로 변해있다. 땅을 뚫고 주름을 펴는 매말톱 꽃의 새잎도 순간 지나간다. 가드닝을 통해 우리는 관심의 시선을 넓혀가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해간다. 각박하게 지나는 도시에서 자연과 숨쉬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행복의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정원에 필요없는 존재처럼 취급되는 잡초를 뽑는 일에서조차 우리는 가드닝에 중독된다. 조용히 빠져드는 순간, 내려놓음이 시작됨을 경험한다.



휴케라 엔코

초록이 아닌 검붉은 색의 잎이 남다르다. 붉은 빛이 많은 휴케라 엔코, 검붉은 자주 휴케라 프린스, 잎의 윤기가 많은 검붉은 자주의 시디언, 검은 초록을 띤 레이첼 등 많은 종류가 있다. 초록일색인 정원에서 우아하게 자태를 뽐내며, 꽃보다 잎을 자랑한다. 분홍색, 자주색, 금색, 호박색, 황록색, 짙은 자주색 등의 다양한 잎색을 자랑한다. 우리나라에선 특이한 잎색을 가진 휴케라가 유통된다. 풍성하게 원형으로 퍼져나간 잎속에서 길쭉길쭉 나온 꽃대 끝에 작은 꽃이 소금을 뿌려놓은 듯 피어난다. 꽃색은 하양, 연분홍 등의 은은한 색과 붉은 색 등이 있다.

반그늘을 좋아해 정원의 나무 밑을 꾸미거나 베란다화분에서 가꾸기 좋다. 붉은

바위취라는 별명답게 붉은 꽃이 피는 꽃이란 이미지가 있지만, 유럽과 북미에서는 꽃보다는 잎을 관상하는 식물이란 이미지가 더 강하다. 휴케라라는 이름보다 붉은 바위취라는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다.



휴케라 레이첼

반그늘에 심자

나무 밑, 반나절만 해가 드는 곳에 심는다. 하루 종일 해가 드는 곳은 잎이 탈 수 있다. 자주, 분홍 계열이 녹색종보다 직사광선에 더 강하다. 노란색종은 녹색종보다 더 약하다.

물은 마르지 않게 주자

김흠이 마르면 바로 물을 주자.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호한다. 멀칭(낙엽, 왕겨)을 해주면 자연강우만으로도 해결된다.

낙엽활엽수를 좋아해

나무그늘 밑에서 잘 자라는데, 침엽수보다는 활엽수, 상록수보단 낙엽수가 더 좋다. 왜냐면 반그늘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번식은 포기나누기로

번식력이 좋지 않다. 3년 정도 지나면 포기나누기를 해서 번식시킬 수 있다. 열매가 생기면 바로 파종하면 이듬해에 개화할 수 있다.

추위에 강하다.

북미가 원산지라 추위에 매우 강하다. 우리나라에선 산간지방을 제외하곤 노지월동이 가능하다. 배수가 안되면 얼어 죽을 수도 있다.



흔한 초록색이 아닌 고급스런 자주색으로 멋스러움을 자랑하는 휴케라는 관상 가치가 높다. 우리꽃에서 구입문의 할 수 있다. 031-634-0320

휴케라의 특징

1. 화경이 고급스럽고 잎이 아름답다.
2. 발육속도가 빠르며 이듬해만 관상성의 포인트를 이룬다.
3. 반음반양생성이 강해 물빠짐이 좋은 비옥한 토양을 선호한다.
4. 많은 경우 평양은 황해안까지 분포하여 과잉 개 단절된다.
5. 겨울철 사육에 주의를 기울여 물이 차는 지점에서 절제와 해빙을 반복할 때는 배수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휴케라 엔코



봄비! 병원균에 기름 붙어 넣다!!

사진 3: 봄비를 맞아 부풀어 오른 향나무 녹병균의 겨울포자 덩어리.

사진 1. <균핵(菌核, sclerot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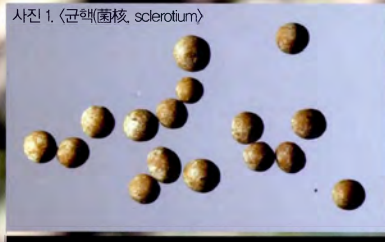


사진 1: 병든 식물의 잔재물이나 흙 속에 섞여 있는 곰팡이의 균핵(흑회색 등 사진보다 어두운 색인 것들 많음).



글 사진 충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장 차병원

병원균에 기름 붙어넣을 봄비를 멈추게 할 전지전능한 재주가 없다면 예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뭄다 해도 봄비는 오기 때문입니다. 봄비가 단비이듯 병원균에게도 꿀맛 같은 단비일터. 오는 비 막기보단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 예방하면 됩니다.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가든인 5월호에는 딱딱한 병원균에 대한 내용을 수목진단센터장님의 특유의 재밌는 글로 이야기를 읽듯 재밌게 읽어보길 권합니다.

봄비의 가격이 4,000억???

겨울가뭄이라고, 미세먼지 수준이 장난이 아니라고 난리들이었는데 다행히도 봄비가 내렸습니다. 미세먼지도 말끔히 씻어 내렸고, 대지도 촉촉이 적셨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봄비인지 모르니다. 그 뿐인가요? 봄비는 삼지퍼 분위기까지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봄비 내리시는 날, 차라도 한 잔 들고 커다란 유리창의 빗방울을 보고 있노라면, 게다가 애절하게 절규하는 듯 노래하는 박인수의 '봄

비'라도 들려온다며... 우와! 지나간 시간에, 떠나버린 사람에 애달파 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봄비는 참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쾌활하게 만드는가 하면 또 감성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대기를 깨끗이 씻어주는가 하면 또 유리창에 얼룩을 남기기도 하고, 이번에 내리신 빗물은 매우 값진 것이었는지요? 한동안 계속되던 건조주의보를 단순히 해제시키고 목마른 모두에게 시



사진 1: 병든 잎사귀의 엽육조직에 파묻혀 머무러있는 병자각(작은 점들).

원함을 주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린 비의 반 이상은 개천이나 강으로 흘러나가고, 40% 정도만이 대지에 남는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되는 것은 이 가운데 36% 남짓이랍니다. 결국 그 러고저러고 따지면 봄비의 가격이 1mm당 7억원에 이른다는데요, 여기에 산불예방 효과와 미세먼지를 씻어주는 대기정화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봄비의 경제적인 가치는 밀리미터당 수십억은 가볍게 넘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상청에서는 몇 년 간의 자료들을 분석하여 봄비가 내릴 경우 대기질 개선, 수자원 확보, 산불예방, 가뭄피해 경감 효과 등으로 1mm당 212억이라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우와!!! 봄비가 1mm에 200억이라니... 엇 그제 내린 비는 20mm였으니 그제 얼마 인가요? 4,000억??? 그 날 우리는 돈벼락을 맞았던 것이군요.

모든 생명에 기름 붙어넣는 봄비- 병원균도 예외는 아니랍니다.

그렇습니다. 봄비의 효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하지만 뽀뽀뽀 하 여도 그 중에서 가장 큰 효과는 바로 모든 생명에 기름 붙어 넣는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도 가련해 보이던 나뭇가지들도 봄비 내리신 다음 날엔 눈이 부풀어 오르지 않던가요? 겨울 동안 웅크리고 살았던 모든 생명들이 봄비를 맞으며 잠을 깨고 생

기를 되찾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저런! 그 중에는 병원균도 있네요, 그것도 조금 아니라 많이 있네요. 공기도 매우 차갑고 먹을 것도 없어서 겨울 동안 죽은 듯 잠만 자던 병원균들도 봄비를 맞으면 깨어납니다. 이들에게도 봄비란 그야말로 '신비의 생명수'입니다. 잠

겨울을 나느라고 휴면하고 있던 병원균들이 깨어나는 데 가장 큰 관건은 온도와 습도입니다. 물론 둘 다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병원균들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온도가 아무리 적당해도 습도가 낮다면 병원균은 계속 잠입입니다. 습도가 아무리 적당해도 아주 춥거나 너무면 병원균은



사진 4: 봄비가 내린 이후 나무껍질에 묻혀있는 병자각에서 포자가 밀려 나오는 모습(200배).

자는 자신을 깨워주고 씻겨주고, 그 고마운 봄비가 병원균이 먹을 식물까지 주변에 키워주고 있으니 정말 신비한 생명수 맞겠지요.

병원균을 깨우는 온도와 습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병원균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겨울잠을 잡니다. 군사가 모여서 모래알이나 작은 콩알같이 단단해진 균핵(菌核, sclerotium, 사진2)으로 겨울을 나기도 하고, 군사를 엮어 두꺼운 외투 같은 껍데기(자낭각, 자낭구, 병자각 등, 사진4)를 만들고 그 안에서 포자로 겨울을 나기도 합니다. 어떤 것들은 자신이 감염한 기주식물의 조직 안에서 월동하기도 하지요. 이들은 봄비를 맞으면 부풀어 올라서 다시 자라든지(사진1, 4) 아니면 껍데기가 터져서 안에 있던 포자들이 밖으로 흩날립니다(사진3, 6). 조직 안에 있던 곰팡이들은 엄청난 속도로 자라서 밖으로 빠져나오기도 하지요. 봄비를 맞아 활기를 찾은 병원균들은 역시 봄맞이를 하고 있는 주변 식물들을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봄비가 내리면서 바야흐로 휴면기는 끝나고 또 다시 생존경쟁의 시작입니다.



사진 5: 병자각에서 밀려나온 포자덩어리가 말라서 만들어진 구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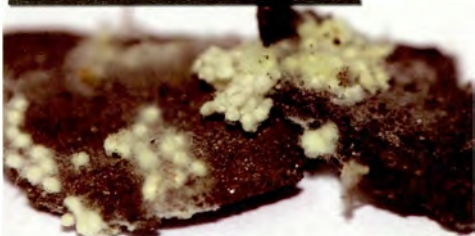
병원균 예방법

그러니 봄 가뭄이 들면 병 발생이 적고 늦어지는 반면, 봄비가 잦으면 병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봄비가 잦다면 그 해는 병 발생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균핵이나 자낭각, 병자각 등은 병들었던 식물의 잔재물에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잔재물들은 봄비가 내리기 전에 모아서 태워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균핵은 병든 식물이 자라던 흙 속에 섞여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난해에 병이 심하게 발생한 식물이 자라던 토양이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봄비는 생태계에 참 많은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봄비가 병원균에게 기를 불어 넣어 식물들 병들게 하기도 한다는 것을 안 이상, 봄비의 가치를 그대로 둘 수는 없겠지요? 적어도 몇 억 짜리는 깎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진 6: 봄철에 비를 맞아 자라난은 균사로 뒤덮인 균핵들.



병원균의 종류

균핵(菌核, sclerotium):

매우 부적당한 환경을 견디어 내기 위하여 곰팡이의 균사가 치밀하게 집합하여 만들어진 딱딱한 덩어리로 내부까지 균사로 가득 차있을 뿐, 포자는 없다. 크기는 작은 모래알부터 콩알 크기까지 다양하나, 대개 암갈색 내지 검은색의 어두운 색을 하고 있으며 모양은 공모양 내지 달걀형이다. 환경이 적당해지면 휴면에서 깨어난 균핵 위에는 종종 자실체가 형성되거나 균사가 자라기도 한다. 균핵은 혹독한 환경을 견디어 내는 능력이 뛰어나며, 균핵을 만드는 곰팡이가 많은 편이다.

자낭각(perithecium):

균사가 뻗뻗하게 모여 공모양의 껍데기를 만들어 그 안에 포자가 든 주머니(자낭)를 보호하고 있는 곰팡이의 유성생식 구조물로서 위쪽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다. 일부 곰팡이가 무성생식기의 한 방법으로 이러한 구조물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는 자낭이 들어있지 않고 껍데기 안쪽에서 균사가 발달하여 분생포자를 만든다. 이것은 병자각(pyrenidium)이라고 한다.

Gardenin point 병원균 예방법

균핵이나 자낭각, 병자각은 병들었던 식물의 잔재물에 많이 형성되므로 봄비가 내리기 전에 모아서 태워버리는 것이 좋다.

균핵은 병든 식물이 자라던 흙 속에 섞여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난해에 병이 심하게 발생한 식물이 자라던 토양이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국화 500일간 사랑에 빠지다. 우리꽃 국화분재 교실

함평나비축재의 신화, 이순영소장님이 이끄는 감동의 때릴리, 그름 강의 2주에 한번, 국화에 빠지다.
국화 분재는 일반적인 나무 분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1년으로 일생을 경험하는 국화분재의 사랑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 모 집 안 내 ■

- 모집인원 : 약 30명
- 수 강 비 : 50만원
- 교육일정 : 5~11월(매주 목요일)
- 교육시간 : 3시~5시까지(격주 2시간)
- 교육장소 :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87
- 담당전화 : 010-3117-2262, 010-8636-2664
Tel. 031-634-7990
Fax. 031-634-7991 www.uriseed.com

너무 쉽고 간단한 채소재배 법

폴리 텃밭

무겁고 투박한 용기, 차라리 최고급 화분으로 교체하시고 1년생 채소 및 화초는 가뭇과 자유로운 폴리 텃밭을 이용하세요.



폴리텃밭 1호(상추)



폴리텃밭 2호(당근)



폴리텃밭 3호(토마토)



폴리텃밭 4호(질보)

이제 채소 재배에 무리한 용기는 필요 없습니다.

싸고, 가볍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가능 | 옥상, 베란다, 어떤 환경도 OK!

종목	재질	규격 (cm)	가격 (₩)	용도	
폴리 1호(상추)	PE (녹색)	55x15x15	4,500	상추 등 잎채소, 화초용	Tel : 010-3117-2262 Tel : 031-634-7990 Fax : 031-634-7991 홈페이지 www.uriseed.com
폴리 2호(당근)	PE (녹색)	45x40x27	5,000	당근 등 뿌리채소 및 열매채소	
폴리 3호(토마토)	PE (녹색)	55x35x20	6,000	잎채소 및 고추, 토마토용	
폴리 4호(질보)	PE (녹색)	45x45x45	7,500	다용도	

접었다 폈다, 열었다 닫았다.

포켓가든-감자용

감자, 고구마 재배 중에도 고추 파릇 수확할 수 있습니다.



종목	재질	규격 (cm)	가격 (₩)	용도
----	----	---------	--------	----

감자재배용 PE (녹색) / 질시 30x45 7,500 감자, 고구마

전화 010-3117-2262 Tel. 031-634-7990

fax. 031-634-7991

www.uriseed.com

가든조아

천상의 아름다움 하늘국화
한국시장에 상륙합니다.

별다른 기술이 필요하지, 통나무통, 통나무통을 준비합니다.

농장가게 - 4차 2,000원 (6차 7,000원) (1차 20,000원)



전화 010-3288-2844 Tel. 031-634-7990 Fax: 031-634-7991

www.uriseed.com

가든조아

우리꽃농업연구소

Celebration Greeting

The Writing Staff

만민 축하 모음



축하합니다.

월간 '가든인'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1년동안 '가든인'이 정회원권 전문지로서 가드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되었을 것으로 믿으며, 초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원문화를 선도해 주신 편집진 및 경영주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정원(가든)은 인간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생활 속의 터전입니다. 가드닝을 하면서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느끼고 배려와 관심,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기도 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의 중요성도 이해하게 됩니다. 꽃은 어떻게 사는지, 곤충들과 어떤 관계인지, 또 사람과 식물과는 어떻게 함께 존재해야 하는지, 자연과학적인 사고를 넘어 인문학적인 소양까지 한없이 자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정원문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월간 '가든인'이 우리가 정원을 통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한국 정원문화 창달의 중심에 서서 꾸준히 최선을 다하실 것으로 믿으며 더욱 발전하는 월간지가 되길 기원합니다.

2014년 4월 한국정원문화포럼회장 송창선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든인」을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에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현재가 있기까지 애정으로 항상 보살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13년 5월에 창간호를 발행한지가 벌써 1년이 지나 한 돌을 맞아 '창간 1주년 특집'을 내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급속히 변화되는 사회와 불황 속에서도 또한 본 잡지를 출간하도록 재정적으로 물심양면 지원해주신 우리꽃 대표로 수고하시는 박공영사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원예와 조경, 그리고 기타 생활의 지혜를 잡지를 통해 필요해주시는 독자여러분들의 기대에 더 많이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원예와 조경 전반에 걸쳐서 2014년은 '가든인'이 한 획을 긋는 한해가 되도록 재조명하며 독자여러분들의 눈높이에 걸맞은 질 높은 잡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사랑과 성원으로 애용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가슴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모두 행운이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기원하며 인사를 드립니다.

윤평섭 삼육대학교 명예교수



멋지고 아름다운 이름 "가든인"을 짓느라 고민하고 뜻을 모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새 한해가 지나고 돌이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출발이었지만 열두 번째의 가든인이 발간되면서 크게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꽃과 더불어 토종 먹거리 파일도 즐겨 읽으시는 지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심도록 노력하고 가든인의 끊임없는 발전을 기대하면서 오래오래 꽃과 정원을 아끼고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의 갈망이로서 더욱 더 사랑받는 가든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완식 토종씨드 대표



첫돌을 축하합니다!

이제 겨우 첫돌이라고요?

무슨 첫돌배기가 이렇게 속이 짝 차 있을까요?

갓 태어난 잡지 같지 않게 알찬 내용들을 가득 담아, 오랜 역사와 노하우를 자랑하는 원예잡지들과 감히 어깨를 견주고 있는 '월간 가든인'의 첫돌을 축하합니다. 식물을 조금은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저도 가드닝을 보면서 새로운 지식들을 얻는 재미가 너무 쏠쏠한 한 달이 무척 빠르게 지나갑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여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가 손에서 놓지 않는 훌륭한 정보제공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차병진 충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장

가시없는 장미 3품종 개발

5월에 아름다운 장미, 가시없어 더욱 아름답구나!

꽃하면 장미다. 꽃중의 꽃 장미는 특히 5월이 되면 우리를 설레게 할 정도로 화려하고 향기롭게 피어난다. 장미를 노래하고 장미를 추억하기 위해 사진에 담아놓는다. 이 시기엔 어디에 가든 장미를 볼 수 있다. 가시가 있어 더욱 매력적이라고 혹자는 말하지만, 가시가 없으니 더욱 가까이 가고 싶어진다. 가시없는 장미 필립, 러브레터, 러블리데이를 개발한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육종팀장인 이영순님의 '가시없는 장미'의 탄생비화를 들어보자.



글 사진 이영순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육종팀장



히 수고해 준 손길들의 맘과 정성이 숨어 있어 있다.

가시가 없고 꽃색이 화려한 장미 '필립'
일반적으로 장미 줄기에는 가시가 있다. 가시는 장미를 다루는 사람들(농가, 플로리스트 등)에게는 좋지 않은 특성이다. 농가에서는 가시 때문에 나무를 관리하고 꽃을 수확할 때 두꺼운 가죽장갑을 끼고 작업을 해야 한다. 수확 후 이동하면서 가시는 꽃잎과 잎에 상처를 입혀 품질을 손상시킨다. 소비자들도 꽃을 꽃을 때 가시를 제거하고 사용한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2010년에 육성한 '필립'(해외품종명:딤퍼플)은 줄기에 가시가 없고 꽃색이 매우 화려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콰도르, 콜롬비아, 케냐 등)에서도 인기가 매우 높다. 가시없는 장미 '필립'은 2006년도에 화색이 주황색이며 줄기에 가시가 적은 'GR99-21-90'계통을 모본(♀)으로 하고

파스텔분홍색 '미라바이' 품종을 부본(♂)으로 하여 교배를 하였다. 2007년에 실생을 양성하여 화색과 화형이 우수한 53계통을 예비선발 하였으며 2008년 2010년에 1, 2, 3차 특성검정과 품평회 결과 절화특성이 우수한 GR06-13-50 계통을 최종 선발하여 '필립(Feel Lip)'으로 명명하였다.

어떻게 탄생된 '필립'은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고양, 파주, 김해, 전주 등 전국으로 보급되어 생산되고 있다. 특히 고양의 변유섭농가와 김해 조용준농가는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필립'을 찾고 있고 꽃 가격도 높게 받아서 소득이 높아졌다고 한다. 그리고 에콰도르와 콜롬비아에서는 묘를 공급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대가자들이 많다고 한다. 이럴 때 육성자는 성취감을 느끼고 더 좋은 완성도 높은 품종을 개발하고 싶은 욕심이 간절해진다.

가시없는 장미 '필립'은 해외에서는 '딤퍼플'이라는 이름으로 생산, 유통되고 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173만주가 에콰도르, 콜롬비아, 케냐 등 11개국 100개 농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어 그들로부터 우리장미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받고 있다.

적색의 대형장미 '러브레터', 분홍색 중형장미 '러블리데이' 가시없는 장미가 인기를 끌면서 2011년 적

색 대형장미인 '러브레터(Love Letter)'를 개발, 현재 김해지역 3농가에 2만주를 보급한 상태다. 지난해 12월에는 분홍색 중형장미 '러블리데이(Lovely Day)'를 개발, 올해 국내 농가보급을 앞두고 있으며, 아프리카 케냐에도 중요 판매가 이뤄질 전망이다.

장미 재배를 위한 적정환경의 유지기술은 자연적인 환경을 바탕으로 하여 시설과 장치를 동원해야 한다. 적정온도 유지 기술에는 온수보일러를 쓰는 것이 좋으나 경제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온풍난방기를 쓰기도 하지만 장미의 경우 흰가루병 발생이 많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온은 이중커튼을 설치하여 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낮에 커튼을 걷어 올렸을 때 차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광도 유지를 위해서는 자연광에 의존하면서 비닐 등에 흠먼지를 잘 제거하여야 한다.

광과 온도와의 관계의 경우 광의 세기가 적정보다 약한 계절에 강건한 절화를 수확하려면 주야간 온도를 낮게 관리하여 생육속도를 늦추는 기술이 필요하다. 온도 관리에 따른 절화기간의 차이는 온도가 15~20℃ 범위에서는 1℃마다에 3~4일 차이가 난다.

장미생육에 해가 되는 여름철 고온 여름철 고온은 시설재배 시 고품질 장미

생산에 더욱 문제가 된다. 27℃가 넘는 고온은 장미 생육에 해롭다. 27℃를 경계로 하여 환기도 해야 하고 고온대책도 세워야 한다. 고온은 일사량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일사를 차단하는 것이 대책이다. 일사를 차단하면 광부족 증상으로 또 한 문제가 된다. 고온 대책은 제 1단계는 환기, 제 2단계는 광차단, 제 3단계는 fog 환기, Pad & Fan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재배적 대책으로는 잎면적 확보로 호흡과 증산으로 고온스트레스에 견디게 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앞으로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우리나라 기후에서 재배가 쉽고 소비자들이 계속 찾는 정밀 배려적인 장미를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우리장미를 생산하는 농가, 우리장미를 파는 상인, 우리장미를 보고 즐거워하는 소비자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장미품종의 육성에 대한 열정은 계속 될 것이다.



<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가시없는 장미 3품종 >



필립(딤퍼플)
가시가 없고 꽃색이 매우 화려하다.



러브레터2
2011년 개발한 빨간색 대형장미



러블리데이
지난해 12월에 개발한 분홍색 중형장미

Flower Supplement

Gardenin Tip!

꽃병의 장미꽃을 오래 가게 하려면

1. 꽃병 속 물에 소금이나 설탕을 1숟갈 정도 넣는다.
2. 아스피린 반개 정도를 넣어둔다.
3. 사이드를 조금 넣는다.
4. 물은 염산에 잠깐 담갔다가 꺼낸다.
5. 물속에 넣고 비스듬히 잘라서 꽂는다.
6. 잘리는 면을 깨끗하게 자른다.
7.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을 자주 갈아준다.
8. 꽃이 조금 시들었을 때는 꽃병의 물을 갈아 준 다음 부엌용 중성세제를 조금 넣어주면 꽃이 다시 싱싱해진다.

싱싱한 장미를 유지하려면

1. 미지근한 물에 곧바로 펴서 15~20분간 담가 놓은 후 건져서 꽃병에 장미를 넣어 놓는다.
2. 직사광선이나 통풍이 없는 서늘한 지역에서 늘 신선하게 유지한다.
3. 매일 매일 물을 주고 꽃병 상단까지 물을 채

Tip

꽃을 오래 꽃이 두면 꽃병에 미생물이 번식한다. 미생물 때문에 꽃은 일찍 시들게 된다. 이럴 땐 꽃병의 물을 자주 갈고, 락스나 표백제로 살균해주면 꽃의 수명을 늘릴 수 있다. 꽃이 빨리 시들 때는 가지 끝을 자른 뒤에 신문지로 싸서 미지근한 물에 약 2~3시간 정도 담가 놓으면 다시 싱싱해진다.

인터넷이 알려준 장미 관리요령

아름다운 장미를 오래 보려면 특별한 노력과 주의가 필요하다. 보통 장미는 5월 이상 그 싱싱함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특히, 노란색과 하얀색 장미는 보통 장미보다 적은 수의 꽃잎을 가지고 있어 보존 기간이 더욱 짧다. 장미의 보존 기간은 장미의 형태와 색깔 그리고 얼마나 잘 보존하는가에 달려 있다. 특히, 장미 줄기에 수막이 생겨 꽃봉우리까지 물을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꽃잎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수막이 생겨난 부분을 잘라주면 된다.

장미 보존 법

물속절단을 하면 장미가 물을 빨리 흡수해 더 싱싱해진다! 장미는 물이 닿는 줄기부분에 잎이 있으면 잎속에 안좋은 물질이 물속으로 흘러들어가 장미가 더 빨리 시들어진다고 한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줄기만 들어가도록 잎을 정리하자.



세계 최초의 황홀한 분홍색 숙근 코레우리!

MIRI 미리

정원의 안방마님, 신혼이 따로 없다!

미~리 미~리 미리~뽕~

계절별로 화색을 바꾸는 정원의 안방마님!
봄부터 가을까지! **노랑으로 시작해 분홍으로 피어납니다.**

농장가격 : 3치 1,500원, 4치 2,500원 6치 12,000
전화 010-5018-9063
Tel. 031-634-7990 Fax.031-634-7991
www.uriseed.com
본 상품은 무단 증식,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꽃영농조합법인

Celebration Greeting

망인 축하 모습

The Writing Staff

가든인 창간 1주년을 맞아 더욱 좋은 내용으로 가득 찬 잡지가 되길 바랍니다.

손관화 전안암대학 화훼디자인계열 (가드닝 전공+플로리스트리 전공) 교수



가든인의 아름다운 돌을 축하합니다.

모든 이가 행복해지는 정원을 그리는 가든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정아 가든디자인어 경기조경대학 강사



가든인을 연재한지도 엇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가든인 1주년이 되었다니 기분이 참 묘합니다.

처음 가든인 잡지가 나왔을 때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던 원예 분야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같아 참 많은 용원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기자님의 제안으로 가든인

잡지에 연재하게 되어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요. 베란다에서 가드닝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남편에게 부탁하여 사진에 남기는 일과 어떤 주제로 원고를 작성할까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지만 따끈한 가든인 잡지를 받아 들었을 때는 예쁘게 편집된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2주년 3주년, 그리고 10주년이 넘어가도록 오래 번창하는 잡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하나 블로그 허브향 가득한 캐럴레 화단

가든인과 창간호부터 함께 하였는데 어느새 1년이 되어 창간 1주년 호도 같이 준비하네요. 가든인의 창간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창간 1주년을 맞아 원예가들의 신뢰와 기대 속에 대표 원예 관련 잡지로 한 차원 더 도약하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잡지에 재배법을 다룰 수 있는 식물은 굉장히 많은데 잡지 특성상 용량이 큰 원본 사진이 필요하지만 저는 원본 사진들을 컴퓨터 용량 때문에 삭제하는 습관이 있었고 실상가상으로 편집장님들은 다음 달에 개화하는 식물을 다뤄달라고 요청하시니 사진이 없어 매 달마다 원고를 힘들게 준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도 가든인이라는 잡지에 파워블로거 '류제'라는 이름으로 함께 할 수 있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가든인같은 원예 전문잡지가 나온다는 게 우리나라의 원예 자체 발전했다는 의미인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원예와 가든인 끝없이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가든인 애독자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할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류제 블로그 류제의 정원 운영



생활 속에서 취미로 식물을 기르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여가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인간의 기르기 본능을 자연스럽게 발휘하게 만듭니다. 영어 단어 컬처(culture)는 원래 라틴어 '쿨투라(cultura · 식물을 기르다)'에서

유래한 것처럼, 인간의 생활에서 다른 생명체를 길러서 유용하게 이용하는 것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본능으로부터 멀어져버린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회, 심리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생물을 대상으로 한 취미활동은 기본적으로 얼마만큼의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생명체를 대상으로 한 취미생활은 생명체와 주변의 환경 등 모든 조건의 상호관계를 통해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이런 복잡한 조건에서는 성공을 거두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생명체와 교감하면서 본능적으로 그 복잡한 단한 관계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해 생명체가 행복해졌을 때의 기쁨은 어디에도 비할 수 없다. 이 외에도 녹색의 심리적 편안함, 계절 변화 감지 등을 통한 정서 생활, 스트레스 해소, 교육적 효과(상상력, 관찰력, 분별력, 집중력, 계획성 함양), 저렴한 운동 및 취미생활, 장식적 효과, 치료적인 효과, 환경 개선(실내공기질 정화, 온습도 변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월간 가든인의 추구하는 목표가 바로 이러한 취미로서 식물 기르기이므로 앞으로 많은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취미로서 식물기르기가 앞으로 월간 가든인의 노력으로 국민의 10대 취미생활로서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정남 박사 국립종자원 서부지원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늘 정원전문 잡지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바래왔는데 벌써 가든인이 생기기 1년이 되었네요.

좋은 정보와 정원에 대한 관심을 감사드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원잡지로 정원문화를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늘 즐겨 찾는 잡지가 가든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서수현 가든디자인어



가든인의 창간 1주년을 축하합니다.

보가만 하는 설치 정원이라 아닌, 그곳에 머무르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소통하는 정원 문화를 이끌어 주세요. 정순진 농진청 도시농업연구팀 농업연구사

재미있는 다육식물

넌 어디서 왔니 ~ ~

다육은 인기가 많다. 작은 토기화분이나 도자기화분에 앙증맞게 자리하고 있는 다육을 보면 절로 손이 간다. 화려한 꽃을 피우거나 강한 향기를 만들지 않아도 그 독특한 모양에 끌리는 것이다. 다육을 좋아하지만 수많은 종류의 다육식물은 알진 못한다. 하다못해 이름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에 가든인에서는 다육의 멘토, 다육전문가인 호자원대표 강석정님께 다육이야기와 다육키우기의 비법을 배워보고자 한다. 5월호엔 다육을 찾아다니고, 다육에 빠지게 된 사연과 더불어 몇 십 년 전, 다육의 상륙에 대한 이야기도 넘치시 비친다. 다육전문가를 따라가 보면 어느새 다육식물에 대해 알게 될 거라 여긴다.



글 사진 강석정 호자원대표

지금은 아파트가 많아져 화단을 갖는다는 게 어렵지만, 뜰 안 자그마한 화단에 화초를 심고 물을 주어 가꾸던 추억이 있을 줄 안다. 요즘처럼 품종이 다양하지는 않지만 애지중지 키우며 즐거워했던 시절을 말이다. 넓은 의미의 가정원예(home gardening, 家庭園藝)란 대상작물이 광범위하여 취미원예(趣味園藝)란 말이 적당한 것 같다. 사전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화훼(花卉) · 채소 또는 과수를 재배하는 일'이라 한다. 취미원예는 주로 화훼재배를 말하며 난이나 분재, 국화, 선인장과 다육식물, 야생화 등의 작은 범주의 품종을 재배하여 분화되어 있으며 기술적인 면에서도 차츰 전문화되었다. 기술이 늘고 지식이 쌓이다 보니 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경우도 있다. 돌이켜 보면 취미원예로 선인장과 다육식물을 재배하였기에 이것을 업으로 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다육식물을 좋아하게 된 것도 작은 보탬이 됐으리라. 70년도 말경으로 기억되어 지는데 당시에는 시장에서 아주머니들이 신문지에 싸 선인장을 양은다라(?)에 담아 팔았다.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른다. 그때 작은 것은 300원 큰 것은 500원 조금 희귀성이 있으면(우리나라에 없는 것인지 번식이 어려운데 애매하지만) 몇 천원씩 하는 것

도 있었다. 대부분이 선인장류였고, 다육식물은 몇 종류 되지 않았다. 믿기지 않았지만 지금의 다육식물 가격과는 거의 변동이 없다. 종로 5가의 리어가 상인들을 찾아가거나 옛날 구과발의 75번 버스 종점 근처의 지축리 부근의 선인장 농장들을 찾아가면 이미 애호가라 할만한 사람들도 있다. 그 당시엔 인터넷도 없었던 시절인걸라 친인척들이 해외에서 모종을 구해다 주거나 서적을 선물로 받으면 밤새워 보고 또 보았던 기억이다. (외국어는 몰라도 사진만 보아도 좋았다) 선인장 서적을 보면 제일 먼저 쓰인 말이 '선인장은 다육식물이다'이다. 선인장은 식육목 선인장과 식물의 통칭이다. 선인장(仙人掌)은 영어로 cactus, 일어로 사보텐(샤보텐)이라 하는데 이는 스페인어 sapoten에서 유래된 것이다. 선인장목 식물은 워낙 대과(大科)이다보니 편의상 다육식물과는 따로 분류한다.



step by step

에케베리아 자구심기

편리하게 집안에서 번식시키려면 잎을 따 잎꽂이를 하거나 자구가 생기면 잘 때내 순서대로 번식시키면 된다. 한달에 두 번 정도 충분히 물을 준다. 햇빛과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기르고 강한 빛을 볼수록 더 짙게 자란다.

1. 포트에 만들어놓은 배양토(파는 것을 사도 됨)를 살포시 담는다. 포트에 배양토를 담는다.



2. 포트에 자구를 하나씩 살포시 꽂는다. 포트에 다육을 꽂는 식으로 심는다



3. 자구를 꽂은 포트를 관위에 정렬시키고 있다. 꽂은 다육을 판매 정렬시켜 놓고 있다



4. 물을 주면 뿌리를 내린다. 수분을 공급해줘 안정적으로 활착된 상태



앞으로 배울 다육교육 다육식물이란 무엇인가?

- 정의, 종류, 분류
- 원산지?
- 원산지의 기후 환경
- 다육식물의 재배
- 용토, 광, 관수, 온도, 계절별관리, 번식 등
- 다육식물의 식재 및 디스플레이
- 인터넷을 이용한 다육식물 검색

gardenin tip

선인장은 다육식물이다. 하지만 모든 다육식물이 선인장은 아니다. 다육식물은 여러 과(科)에 걸쳐 있다. 선인장과(Cactaceae), 대극과(Euphorbiaceae), 용실난과(Agavoideae), 번행초과과(Aizoaceae), 돌나물과(Crassulaceae), 협죽도과(Apocynaceae), 용수과Didiereaceae), 쇠비름과(Portulacaceae) 크산토로이아과(Xanthorrhoeaceae).

노화를 방지하는

참깨

5월호엔 참깨다. 약방에 감초처럼 참깨는 나물요리에 없으면 안된다. 맛을 결정하고 맛을 끌어올려 주는 중요한 양념이다. 참깨는 단순히 양념으로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다. 민간요법으로 요긴하게 쓰였으며, 보양음식으로도 훌륭했다. 이런 쓰임새가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 참깨에 대한 다양한 쓰임새를 알고싶다면 안완식 박사의 참깨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자.



글 사진 안완식 토종씨드림 대표

깨 소금과 참기름은 한국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양념이다. 나물을 무칠 때 참기름이 빠지면 한국의 음식 맛은 그 참맛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여인네들이 양념으로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고소한 맛의 참기름과 깨소금이다. 맛으로만이 아니라 참깨는 우리의 건강을 챙기는 데도 한몫을 한다. 현대에 이르러 많은 학자들이 인간의 노화현상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였는데, 대표적인 이론으로 '노화프로그래밍설'과 '노화프리레디컬설'의 두 가지가 있다. '노화프로그래밍설'이란 유전자 중에 노화의 정보가 조립되어 유전자의 수명이 미리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화는 숙명적이라는 설이다. 반면에 '노화프리레디컬설'은 유해산소 등이 세포막이나 유전자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노화가 이루어진다는 설이다. 유해산소란 프리레디컬이라고 하는 상당히 산화력이 강한 분자의 무리로서, 식물성 기름 등이 산화할 때 생기는 과산화지질로 넓은 의미에서는 유해산소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다. 유해 산소는 세포막을 공격하여 세포막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유해산소에 의해 세포막이나 유전자인 DNA까지도 상처를 받게 되어 나타나는 것이 노화와 암이라는 설이 '노화프리레디컬설'이다. 노화프리레디컬설에 의하면 나이를 먹어가면서 항산화물질의 양이 감소되기 때문에 유해산소를 무독화하는 효소의 기능이 저하되고, 과산화지질이 증가하여 세포가 상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 노화



참깨밭과 농부



가지깨의 개화 모습

가지깨가 영글고 있다.



팔모깨, 1과성, 4심8방, 연핑크 꽃



느리깨가 익어가고 있다. 1과성, 2심 4방



주저리참깨, 3과성, 2심4방, 절관장 중정도

과정에서 항산화물질을 보충해 주어 노화의 진행을 예방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식품 중의 하나가 참깨이다. 참깨가 지니고 있는 세사민과 세사모린이라는 성분이 바로 항산화물질인 것이다.

참깨는 그 대부분이 리놀레산, 리놀레인산 등 불포화지방산이어서 건강과 미용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며 혈액 중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 리놀레산은 또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부신피질호르몬이나 남성호르몬을 활발하게 분비시키는 작용을 하며 스트레스나 초조감도 진정시킨다. 참깨는 필수아미노산을 여러 종류 포함하고 있으므로 콩과 맛목을 정도의 영양가가 있으며, 노화를 방지해주는 비타민으로 알려진 비타민 E가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여 피부를 윤기있게 하고 노화를 억제한다.

고전인 신농본초경에 "참깨는 허약과 오장을 보하고 기력을 돕는다" 또 "살이 찌고 두뇌를 좋게 하며 사기와 풍한을 다스린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본초강목에는 "오장이 허해질 때 기운을 보하고 근골을 든든하게 한다" 든가 "젖이 잘 나오지 않거나 적을 때 먹으면 좋다"라고 되어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날 참깨에서 짠 기름은 약으로 쓰고, 볶아서 기름을 짠 것은 식료로 쓰고 약용은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한국

민속약에 의하면 **참깨는 기침·눈병·단독·화상·변비·풍치·폐결핵·응혈·십이지장충·치통·강장제·건위·가슴앓이·종기·대하증 등에 유효하고, 검은깨는 위산과다·건위·가슴앓이·폐렴·현기증·편도선염에 좋다고 하였다.** 또 다른 기록에 “참깨로 기름을 짜는 데는 흰깨가 우수하나 먹는 것은 검은깨가 좋다.”, “참깨를 먹으면 장수하고 젊어지며 선약(仙藥)에 드는데 근세에 와서는 드물게 쓴다. 오래 먹으면 이익이 있다. 옛날에 한 여인이 참깨밭을 지어 먹고 장수하였다. 선가의 식품이다.” 등 온갖 효능을 들고 있다. 아프리카와 인도가 원산지인 참깨(*Sesamum indicum* L.)는 인류가 기름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재배한 기름작물 중에서

가장 재배역사가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깨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시기는 잘 알 수 없지만 고대 중국에는 기원 전후인 한 나라 때 도입되었고, 일본에는 서기 538년 백제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는 일본에 앞서 중국으로부터 들어왔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면적이 넓지 않아 지역에 따른 기후의 차이가 극심하지 않고 참깨의 적응성도 큰 편이어서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다. 배수만 잘 되면 토양을 가리지 않지만 가능한 한 연작을 피하는 것이 좋다. 발아온도는 최저 10~12℃, 최적 35℃ 정도이므로 파종적기는 남부지방이 5월 초순이고 중부지방은 5월 중순이다. 고온 다습하고 기후의 변동이 적은 곳에서 잘되며 비가 자주 오고 습기가 많은 곳

에서는 생육이 불량하다. 참깨의 함유량은 45~55% 정도인데 중근동산에는 60%를 넘는 것도 있다. 일반적으로 건조지대에서 재배된 것이 함유량이 높은 경향이 있다. 또 종피의 빛깔에 따라 검정색보다 흰색계통에 함유량이 높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어 오던 참깨는 그 이름이 다양하여 색깔에 따라 흰깨, 누른깨, 검은깨가 있다. 검은깨는 시금자, 벽깨라고도 불린다. 꼬투리의 모양으로는 팥모개(4실8방), 네모개(2실4방), 네줄백이참깨가 있고 꼬투리가 줄기에 달린 정도에 따라서는 느리게, 느레참깨, 조잘참깨 혹은 주저리참깨가 있다. 익는 때에 따라서는 올깨, 늦깨가 있는데 올깨를 경상도 지방에서는 끝깨라고도 부른다.

이야기 하나

익어도 쏠아지지 않는 병어리깨

지금부터 25년 전 토종을 수집하던 양주에 갔을 때 기억이 난다. 쌀과 볶을 이어주는 자루의 다리에서 25km쯤 떨어져 있는 양주군 남면 신산리에 들었을 때 왕영철(6세) 아저씨는 아복 것도 없으면서 톱종 종자를 썰고 가지나 내놓았다. 올깨, 병어리깨, 차조, 찰수수, 재롱팔, 메주콩, 천관페밀(식물 오보트)만 두었다. 심어도 식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유월두, 속청, 강남콩까지.....

지금은 세계적인 농산물 수입자유화로 인해 중국의 참깨가 들로면서 우리 것에 비해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기계화에 의한 생산단가 낮추기가 큰 몫을 하게 되는데, 참깨는 식량화 면 전작물 특격 쏠아지지 버리기 때문에 기계로 손 쓸 여지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영글도 쏠아지지

않는 참깨를 찾고자 했었는데, 왕영철 아저씨에게는 병어리참깨라고 이름붙인 익어도 쏠아지지 않는 참깨가 있었다. “올깨는 배설로 되고 깨가 되고 좋아서 심어도 그런 병어리참깨는 깨 색깔은 좋지 않아도 쏠아지지 않아서 심심.” 우리에게는 큰 수확을 한 날이었다. 여러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러 나왔다. 그 병어리깨는 기계화 수확 품종 개발에 큰 힘을 더할 것이다.



참깨의 과성(果性)과 심방수(室房數)
-과성: 한 잎이 붉은 위에 달리는 꼬투리의 수를 말함(1과성, 3과성).
-심방수: 꼬투리에 형성되는 종자가 들어있는 실과방의 수이며, 방은 종자가 들어있는 열을 말함(2실 4방, 4실 8방).



올깨는 빨리 여문다. 1과성, 2실 4방



늦깨는 늦게 여문다. 1과성, 2실 4방



병어리깨는 다 여물어도 깨가 잘 쏠아지지 않는다. 1과성, 2실 4방, 무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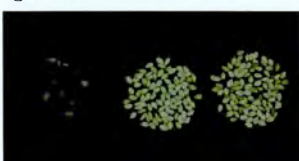
늦깨가 여물어가고 있는 모습



시금자는 검은색의 참깨이다. 조금 늦는다. 1과성, 2실 4방



토종참깨. 1과성, 2실 4방



화관 내부가 연분홍색인 토종참깨



연분홍 꽃 토종참깨



화관 외부와 끝이 연분홍색인 토종참깨



분홍 꽃 토종참깨



분홍꽃 사사동참깨



순백색 꽃의 토종참깨



연한 분홍빛이 도는 흰꽃 토종참깨

검은깨죽

중장년층의 아침식단으로 좋으며, 섬유질이 풍부해서 변비 증세가 잦은 사람에게 좋은 음식이다.

재료: 밀쌀 1컵, 검은깨 ½컵, 소금 ½컵
쪄는 방법:

1. 쌀을 물러 놓았다가 건져 믹서에 넣고 쌀 불려낸 물을 2컵 정도 붓고 갈아서 겉체에 발라 놓는다. 믹서는 저속에서 점차 고속으로 해가 무리가 없다. 믹서가 없으면 분마기에 곱게 간다.
2. 씻어서 물기를 빼놓은 검은깨를 냄비에 넣고 볶는다. 본래 색이 검기 때문에 타지 않도록 조심하고 손으로 문질러 보아 잘 부서지는 정도로 볶는다.
3. 볶은 검은깨를 분마기에 넣고 1컵 정도의 물을 조금씩 부어 가면서 곱게 간다.
4. 발쳐 놓은 쌀물과 갈아 놓은 검은깨를 솥에 합하여 넣고 물 2컵 정도를 부어 익힌 불에서 나무주걱으로 저으면서 끓인다. 완전히 끓은 후 먹을 때 소금 간을 한다.

참깨 잘 보관하기

참기름은 상온보다는 저온에서 산패가 늦어지므로 캔이나 병에 넣어 밀봉한 상태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빵은 참깨는 공기와 접촉하면 산화되어 신도가 떨어지므로 참깨를 사용할 때는 먹기 직전에 필요한 양만큼 빵아 쓰는 게 이상적이다. 기름을 짜서 오래두면 산화하여 산패가 되므로 먹을 수 없게 되지만 참기름은 들기름에 비하여 산패가 훨씬 더디다. 새로 짠 들기름에 참기름을 10%정도 섞어서 보관하면 들기름의 산패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

이야기 하나

어머니에 대한 그림움이 살아 있는 시금치

여섯 집이 뽕나무 밑에 살고 있는 흥복 재판만 수년 회수리 배마음골은 나의 목이 열대성 나이에 뽕나무로 출렁기 전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다. 늘 언젠가는 그곳 어디선지 한번 찾아보고 싶었고 그 배마음골은 나이 50이 넘어서야 찾은 기적이 왔다.

토종 참깨를 찾아 배마음골을 찾았지만, 나는 이번 기회에 나의 배마음골을 찾아보고 싶었다. 그러나 몇 대에 걸쳐 그곳에서 살아왔다는 진주 강지 중에서도 외사촌과 같은 한결(衍列)이었고 강행(行)은 이미 청수로 떠난 지 오래 되었다고 한다. 배마음골은 같은 한결(衍列)이었다.

팔은 힘이 세는 어머니를 한번 보고 가고 싶었고, 이제는 어릴 때 마치고 귀향, 뽕밭에서 배마음골과 배마음골을 삼키고 깨면 아스팔트로 덮여져 차라리 다시 보지 않음이 더 아름다웠을 듯 싶었다. 그러던 중 텃밭에 배마음골을 길게 깔고 긴 작대기로 구멍을 뚫어 텃밭속에서 시금치를 심는 참새의 아주머니로부터 그 깨가 어떤 감자가 있었는지 물어볼 때가 되었다. 그 감자는 말로 듣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그 시금치를 한 묶음 주고 어머니의 어렸던 시절 배는 주웠으니 행복을 그때를 생각해 본다.

생활 속의 민간요법

병후 회복 :

시금치국은 병후의 회복에 좋고 매일 먹으면 모발이 많아지고 백발을 예방하며 늙지 않는다고 한다. 먼저 양·곱창·쇠고기 등을 삶아서 잘게 썰어 간장·후춧가루·다진파·깨소금으로 양념하고, 오이를 기름에 살짝 볶아 섞는다. 여기에 볶은 검은깨에 끓인 물을 차게 식혀 붓고 갈아서 소금으로 간을 하여 고소한 껌국을 만들어 부어 차게 해서 먹는다.

현미리예방 :

참깨 1kg을 2~3회 썰서 건조한 후 가루로 만들어 꿀에 버무려서 0.3g 크기의 환으로 만들어 1회 3알씩, 1일 3회 따뜻한 물로 복용한다. 알약 대신 밥 위에 볶은 참깨를 듬뿍 뿌려먹어도 좋다.

피부미용 :

참깨 가운데서도 검은참깨에는 생명활동을 보살피고 세포를 젊게 만드는 비타민 E가 많이 들어 있다. 따라서 검은 참깨를 먹으면 세포가 활력을 얻어 젊어지고 피부가 고와 지며 임신과 출산도 쉬워진다.

눈다래끼 치료 :

다래끼가 생겨 꿀앓을 때 소독한 바늘로 끝 부분을 따고 고름을 짜낸 다음 깨끗이 닦아내고 참기름을 바르면 효과가 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지방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레시틴은 뇌를 이루는 중요한 성분이다. 검은깨에는 레시틴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정신노동으로 뇌 속의 레시틴을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검은깨가 들어간 아침식사가 좋다. 검은깨를 갈아서 죽을 만들어 복용하면 좋다.

변비에 :

참깨는 심장과 혈관의 기능을 도와 온몸에 활력을 주고 장을 튼튼하게 만들며 해독 작용도 있기 때문에 변비를 없애 준다. 변비에 걸리기 쉬운 임신 중에는 현미밥에 잘 볶은 참깨를 거칠게 갈아 으갠 다음, 볶은 자연 소금을 조금 섞어 녹죽해지지 않도록 냉장 보관하여 두고 현미밥을 먹을 때마다 듬뿍 뿌려먹으면 된다.

그 밖의 여러 가지 증상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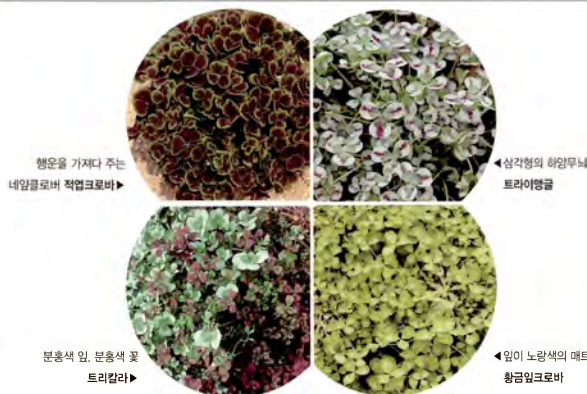
검은깨+꿀은 폐결핵에, 깻잎은 썩기에 쏘인 데, 옷 오린 데, 깨+익모초+대추는 위장병에, 깨 줄기는 독사에게 물린 데, 참기름+벼이삭은 마른버짐에, 참기름+수은은 음에, 참기름+콩은 채독에, 참기름+파뿌리는 식재·소아기 침에, 참기름+쇠머리는 채독 등에 유효하다고 한다. 화상이나 부종, 치질이나 자상 또는 성기의 교상에 참기름을 발라주면 금세 효과를 볼 수 있고, 등산 전에 발바닥, 발꿈치, 손에 바르면 물집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준다. 손 등에 사마귀가 났을 때는 참깨의 꽃을 따서 비빈 다음 그 즙을 바르면 효과가 있다.

크로바도 꽃 이다.

우리꽃 크로바 4종 아름다운 잎,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생명력,
행운, 행복을 드립니다.

농장가격 3치 1,000원, 매트단가 12,300원
담당전화 : 010-5018-9063
T. 031-634-7990 F.031-634-7991
www.uriseed.com

우리꽃영농조합법인



가드닝의 추천하는 Book & Flowerpot



텃밭정원 가이드 북

오도 저 / 15,000원 / 208쪽(188×244) / 그물코

채소를 기르는 텃밭, 꽃을 가꾸는 정원 텃밭 속에 정원이 있고, 정원 속에 텃밭이 있는 텃밭 정원으로 초대한다.

텃밭정원? 텃밭은 텃밭이고, 정원은 정원이지 텃밭정원은 뭘까? 먹기 위해 기르는 채소와 보는 즐거움을 위해 가꾸는 꽃을 함께 심는 텃밭정원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산업화 이전 시골집 뜰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풍경을 떠올리며, 저자는 자급 위주의 소농 중심이었던 전통농업에서 한정된 땅에 작물의 특성을 살려 서로 섞어심었던(혼작) 지혜를 다시 배워야 할 때라고 말한다. 이 책에서는 처음 해보는 텃밭정원, 여럿이 함께 만드는 텃밭정원, 도심 어린이집 벽을 따라 만드는 텃밭정원, 걸어다니는 텃밭정원까지 텃밭정원을 어떻게 설계하고 만드는지 사진과 함께 그 과정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있다.

텃밭정원에 심을 모종을 키우는 과정과 발에 아쿠스믹까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텃밭정원의 가장 기본인 흙 만들기과 음식물 찌꺼기로 퇴비 만드는 법, 텃밭정원에서 피할 수 없는 무법자들(해충)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쇠뜨기풀로 만드는 자연농약으로 무법자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린다.

먹는 채소를 기르는 텃밭과 보는 꽃을 가꾸는 정원을 하나의 개념으로 보는 텃밭정원의 핵심은 작물의 특성을 살려 서로 섞어심는 것뿐이다. 어린 시절, 빨간 꽃을 따서 꿀을 빨아 먹은 경험이 있는 사투비어. 원래 이름은 샬비어인데 브로콜리의 잎을 갈아먹는 배추흰나비를 샬비어가 막아준다. 그래서 브로콜리를 심고 그 사이에 샬비어를 심는 것이다. 시금치 사이에는 대파를 심고, 양배추 옆에는 상추를, 토마토 아래에는 땅콩을 심어 병해충도 막고, 서로 잘 지라게 해주는 섞어심기의 다양한 예를 실제 사진과 함께 실었다.

채소마다 각기 다른 특성에 따라 씨앗을 받는 방법으로 저자의 실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사진과 함께 설명해 텃밭정원을 처음 해보는 사람들도 씨앗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타사튜더 나의정원

타사튜더 지음 / 19,000원 / 192쪽(188×254) / 월북

정원은 하룻밤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12년은 참고 기다려야 하지요. 하지만 나는 정원이 좋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 타사튜더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동화작가 타사튜더. 그녀의 정원의 최근 풍경을 담은 대형 사진집이 출간되었다. 2006년 출간된 '타사의 정원'이 정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타사의 라이프스타일에 초점을 맞춘 책이라면, '타사튜더, 나의 정원은 타사튜더가 직접 풀어놓는 자신의 정원 이야기를 담아 두었다. 버몬트 주 산속에서 1971년부터 홀로 정원을 가꾸어온 타사는 이 책에서 어떻게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는지부터 지금의 정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자기만의 가드닝 노하우까지 차근차근 들려주었다.

'타사튜더, 나의 정원은 타사가 직접 안내하는 정원 가이드북이다. 꽃을 키우게 된 배경부터 가드닝 비법까지 저자 특유의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조곤조곤 들려주었다. 특히 꽃들의 본래 빛깔과 세밀함을 한껏 살린 매력적인 사진이 인상적이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정원의 최근 풍경을 주로 담아두었으며 처음 정원을 구상했던 오래된 스케치와 정원의 기초를 만들던 시기의 흑백사진이 추가되어 감동을 더한다. 꽃들의 아름다움만큼이나 그 뒤에 숨어 있는 작가의 땀과 노동과 애정 덕분에 그녀의 정원은 더욱 빛난다.

도시가 발달할수록 초록이 모자라다.

밭당숙이 아닌 진짜 숲을 원하고, 숲을 가질 수 없으니 작은 정원이나 화분 하나에 정이 간다. 단순히 화분에 화초를 키우며 즐거움을 느꼈던 사람들은 식재료를 직접 기르길 원한다. 작은 텃밭에서 가족과 함께 채소를 기르고, 채소가 주는 소박함과 풍성함을 식탁에서 함께 하길 바란다.

5월은 정원이 예뻐나

정원은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니란다. 이름 하여 텃밭정원, 예쁜 정원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그 작물들의 위치와 잘 자랄 수 있게 섞어심기를 하는 방법,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들어있는 책과, 정원에 관심 많은 사람들의 입에 들으려하는 다채로운 책들을 소개한다. 발행된 많은 책들이 왜 그리 일문소문을 타는지 책을 통해 확인 바란다.



벽걸이주머니화분 포켓가든

37,500원/500×375/가든조아

벽면이나 창가 등에 부착하여 식물을 식재할 수 있는 재미있는 주머니 형태의 화분이다. 간단하게 텃밭 활동을 하고 심을 때나 손쉽게 관리하여 재배의 즐거움과 수확의 기쁨을 주고자 할 때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거실벽을 장식하여 인테리어 효과를 주고 심을 때는 어울리는 식물을 키우면 된다. 튼튼한 부직포재질이라 관리가 용이하다.

소엽풍란 64 체리원목 화분액자

30,000원/150×100

우리 기술로 수출하는 친환경 화분액자로 5월 감사의 선물로 사용하기 좋은 듯하다. 가족의 사진을 액자 안에 넣으면 사진도 보고 화분도 키우는 일석이조의 상품이다.

가정원예용 황토화분 3종세트

3000원/330×230
크기 안에 차례로
2개가 더 들어있다/가든조아

가정원예용으로 적합한 화분으로 배란다정원, 옥상정원에 쓰임새가 좋다. 플라스틱재질이라 쉽게 깨지지 않고 단단하며 황토색의 느낌이 식물과 잘 어울려 인테리어 효과도 좋다.

감자박사님과 함께 하는 감자이야기

수미, 대서, 추백, 자영, 홍영, 고운, 새봉, 홍선...
누구의 이름일까요?
바로 감자의 이름입니다.
수미감자는 광고를 통해서 봐온 터라 익숙하지만,
다른 이름은 영 낯설지요.
우리가 좋아하는 감자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세계 중요 식량작물이기도 한 감자는
신의 축복이란 말처럼 늘 가까이 하는 뿌리채소입니다.
감자를 심고 수확하고 요리는 하지만
정작 감자는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도 잘 모릅니다.
5월호에는 감자를 심어놓고
감자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해결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감자이야기를 마련했습니다.
가든인 독자들에게
우리나라 감자업계를 이끌고 계신
조지홍 박사님께 감자에 대한 역사와
감자연구에 대한 이야기(?),
감자재배방법 등을 들어볼까요.



글 사진 조지홍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센터
(033-330-1620, jhcho0103@korea.kr)



감자열



수미꽃



수경재배 씨감자

감자는

감자는 페루 안데스산지가 고향이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한 이후 신대륙에서 들어온 작물 중에 신의 축복과 악마의 선물 이 하나씩 있는데, 악마의 선물은 담배이고 **신의 축복은 감자이다**. 처음 유럽에 소개되었을 때에는 성서에 나오지 않는 작물이고, 모양도 울퉁불퉁한데다가 햇빛을 본 감자를 먹고 탈이 나는 경우도 있어 감자를 악마의 선물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쌀, 옥수수, 밀과 함께 가장 중요한 식량작물**이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1824년경에 북간도를 거쳐서 들어온 것으로 문헌에 나와 있다. 초근목피를 먹고 연명해야 했던 당시 조선사람들에게 감자는 매우 귀중한 식량작물이었을 것이다.



감자씨

감자품종

감자에 꽃이 필 때 꽃에서 수술을 채취하여 다른 감자꽃의 암술에 묻히주면 방울토마토 같은 감자열매가 달리게 되는데, 이 열매 안에는 100~200개 정도의 감자씨가 들어 있다. 이 감자씨들을 하나씩 심어 좋은 품종을 선발하게 된다. 대략 10만개의 감자씨를 뿌리면 8~9년 후에 1품종 정도를 선발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외국에서 도입한 5품종,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21품종을 포함하여 약 60개 정도의 품종이 있다. 가장 많이 심는 품종은 '수미' 품종인데 미국에서 처음 육성하여 우리나라에는 1978년에 도입되었다. 감자

칩을 만들기 위해 재배하는 품종은 '대서'라는 품종이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으며, 가을에 심는 품종으로는 '대지', '추백' 같은 품종이 있다. '추백'은 2007년 북한에 제공되었는데, 북한에서는 '두벌감자2호'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농가에 공급되고 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안도시아나 함량이 높고 속색이 자주색인 '자영', 붉은색인 '홍영', 가을철 첨가공용 감자인 '고운', '새봉'과 비타민C 함량이 높은 '홍선' 등이 육성되어 공급되고 있다.

씨감자

감자는 벼, 보리, 콩처럼 종자를 심어 번식하는 것이 아니고 씨감자를 잘라서 번식한다. 이런 번식방법을 영양번식이라고 하는데, 꽃이나 과수를 번식시킬 때 쓰는 꺾꽂이와 비슷하다. 크기가 30g정도 되는 씨감자를 쓰기 때문에 빨리 자라고 줄기도 튼튼하지만 이 씨감자가 바이러스 같은 병에 걸리면 수량이 줄어들거나 감자품질이 나빠지게 된다. 더욱이 씨감자를 자르는 칼을 통해서 병에 걸리지 않은 감자로 병이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씨감자를 자를 때 칼을 소독**해야 한다. 또 바이러스는 발에서 진딧물을 통해 옮겨지기 때문에 씨감자를 재배할 때는 진딧물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모기장 같은 망을 씌워 씨감자를 생산하고 있으며, 진딧물 방제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살충제를 살포하고 있다.

봄에 심는 씨감자는 강원도 고령지에서 생산된 것이 가장 품질이 좋다. 이것은 감자의 나이와 관련이 있다. 충남부지방에서 수확하는 감자는 6월 하순~7월 상순에 수확하게 되는데, 이 감자들을 감자 심는 이듬해 2~3월까지 저장하면 약 3~4개월 정도 지나면 감자씨가 나면서 씨감자가 늙게 된다. 반면 대관령을 중심으로 한 고령지에서는 9~10월에 감자를 수확하기 때문에 5~6개월 정도로 저장기간이 짧고, 온도가 낮은 시기이기 때문에 씨감자의 노화도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다.

감자재배 방법

보통 감자를 심는 시기는 남부지방에서는 2월 하순이지만 중부지방에서는 3월 중하순이 적기이다. 씨감자는 발에 심기 한 달 전쯤 구매하여 썩을 틈돈다. 아파트 베란다나 가정집 창고 같은 데에 두고, 밤에는 열지 않게 하고 낮에는 바람이 잘 통하게 한다. 직사광선을 받으면 감자나 감자씨가 데일 우려가 있으므로 그늘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씨감자량은 100m² 당 15~16kg 정도를 준비하면 된다. 감자씨를 내면서 한편으로는 씨감자를 자르게 된다. 씨감자 자르는 칼은 끓는물에 30초 정도 소독한 후 찬물에 식혀서 감자를 자른다. 감자는 눈이 모여있는 윗부분에서 아랫부분으로 자르는데, 한 쪽당 30~40g 정도가 되도록 하고, 한쪽에 반드시 눈이 1개 이상 있어야 한다. 또 아랫부분 1/5 정도를 자르지 않고 붙여두면 자른 부분이 잘 아물어 붙는다.



씨감자 절단하여 썩어 자란 모

감자밭은 물이 잘 빠지고 유기물 함량이 많은 곳이 좋다. 20cm 정도 깊이로 밭을 갈고, 비료를 뿌려준다. 요즘은 감자진용복합비료가 나오는데, 100m²당 10kg 정도를 뿌려주면 적당하다. 비료를 뿌리고 이랑을 만든 후 씨감자를 심는다. **이랑사이**는 75~80cm로 하고 **이랑내에서 포기사이**는 20~25cm 정도로 한다. 비닐 멀칭을 하는 경우에는 10~15cm 정도로 깊게 심고, 멀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5cm 정도로 얇게 심은 후 썩어 올라오면 복을 주는 것이 좋다.

감자씨가 올라오면 잡초제거를 겸하여 1~2회 정도 복을 주는데, 고령에 있는 흙을 감자 이랑에 덮어주는 것이다. 복을 주면 잡초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땅속 감자가 빛에 노출되어 생기는 독소를 막을 수도 있

보라색 감자꽃이 피어있는 감자밭

다. 감자가 빛에 노출이 되면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생기는데, 이 독소는 매우 유독하기 때문에 유통이나 저장중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6월 중하순경 감자를 수확하게 되는데 맑은 날 감자를 수확하여 햇빛이 들지 않는 그늘에서 잘 말려 저장하면서 먹으면 된다. **감자를 오랫동안 저장하면서 먹기 위해서는 3~4℃ 정도 되는 저온저장고나 냉장고에서 저장하여야 한다.** 저장온도가 높으면 썩이 빨리 나게 되어 먹을 수 없게 되므로 온도를 낮추어 저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바람이 잘 통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감자가 썩거나 속이 시커멓게 변하여 먹을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감자를 많이 심는 봄철은 매우 가운 경우가 많다. 이렇게 가물면 물을 자주 줄 필요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병 발생이 적은 장점도 있다. 대부분 감자병들이 습도가 높을 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봄에 감자를 심을 때에는 농약을 거의 살포하지 않아 친환경감자를 생산할 수 있다. 다만 진딧물이나 28점박이망우당벌레(뿔박벌레)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지만 살충제를 1~2회 살포하면 쉽게 방제할 수 있다.

감자에 얽힌 추억과 이야기거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감자는 둥글둥글하고 길은 노란색이면서 속은 흰색이다. 반면 유럽이나 베트남 같은 곳에서는 속이 노란 감자를 좋아하고 미국, 캐나다에서는 길이 붉은 감자도 많이 먹는다. 모양도 장타원형이라고 해서 고구마처럼 길쭉한 것이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자튀김용으로 '세풍'이라는 품종을 들여와서 재배를 하기도 했는데, 모양이 김쪽하다보니 농민들이 좋아하지 않아서 지금은 재배가 되지 않는다. 감자를 심거나 캐 갈 식으로 감자를 삶아먹는데, 일하시는 할머니들이 처음에는 '세풍'을 노란 고구마라고 안드시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필자가 '세풍'만 먹는 것을 보고 몇몇 분이 맛을 보시더니 그 후에는 '세풍'만 삶아드시는 것이었다. 지금은 재배되지 않지만 가끔 아

이들과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세풍' 생각이 난다. 더욱이 최근에는 일부 패스트푸드점에서 국산감자를 이용한 감자튀김을 준비하고 있는데, 씨감자가 공급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보는데, 이럴 때에는 더욱 아깝다는 생각을 한다.

감자품종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지역적응시험이라고 해서 대관령뿐만 아니라 강릉, 청주, 나주, 무안, 제주 같은 곳에 있는 도농업기술원에서 재배시험을 2~3년동안 하게 된다. 또 품종이 만들어진 후에는 농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각 지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시험을 실시한다. 시험지가 전국에 있다 보니 감자를 재배하는 기간에는 매년 전국 일주를 3~4번씩 하게 된다. 한번 출장에 1,500km 정도를 다니는데, 한편으로는 다양하고 새로운 음식도 먹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많은 분들이 좋은 감자를 생산하기 위하여 엄청난 열정으로 노력하시는데, 이 기회에 그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

1990년대 중반 북한에서 식량난이 심각해지자 북한 정부에서는 주작물을 옥수수에서 감자로 전환하였다. 우리나라 민간단체에서도 씨감자 생산기술과 품종을 지원해주었는데, 이와 관련된 기술들은 모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들이었다. 필자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한 바 있는데, 그 때 당황했던 것이 **북한에서는 씨감자를 자르지 않고 통감자로 심는 것이었다. 감일성 주석이 생전에 감자는 통으로 심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씨감자를 잘라 심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굵은 것들은 포기사이를 넓게 하여 심고 잔감자들은 좁게 심는다는 것이었다. '추백' 같은 우리 품종이 북한에서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경직된 그 사회현실이 안타깝기도 한 상황이었다.

북한은 감자재배면적이 약 20만ha로 우리나라보다 8배나 많이 심는다. 그 중심이 백두산 옆에 있는 대흥단군이라고 하는데, 통일이 되면 우리 연구센터 직원들이 가장

먼저 대흥단군 감자연구소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병에 강하고 수량도 많고 맛도 좋은 감자를 만들어 감자연구소로 가면 그만한 보람이 더 있을까?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감자가 다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하여 사람 살기에는 좋지만 감자가 자라기에는 아주 나쁜 환경이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감자 심는 환경으로는 극지방을 빼고는 최악이라고 할 것이다. 반면 **감자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이다.** 이 환경조건에 적응하는 품종이면 전세계 어디에서나 재배할 수 있고, 씨감자생산 기술도 새로운 것을 자주 개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든 품종이나 씨감자생산 기술을 저개발국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국가적으로 보면 매우 유용한 외교적 자산이다. 이미 북한뿐만 아니라 알제리, 에티오피아, 케냐, 베트남 같은 나라들, 나아가서는 감자의 고향인 페루, 볼리비아 같은 곳에서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베트남에 방문했을 때 농민 한분이 한국산 씨감자가 아주 좋다고 "꼬레아" "꼬레아"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것을 보았을 때, 아 이런 맛에 감자연구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다. 다양한 나라들을 방문하여 기술지원도 하고 관광도 하는 기회가 많은 것이 감자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점이라고 생각한다.



감자 한포기

Gardenin

POINT

씨감자만들기

씨감자량은 100m² 당 15~16kg 정도를 준비 감자썩을 내면서 한편으로는 씨감자를 자른다. 자르는 칼은 끓는물에 30초 정도 소독한 후 찬물에 식혀서 사용한다. 감자는 눈이 모여있는 윗부분에서 아랫부분으로 자른다. 한 쪽당 30~40g 정도가 되도록 하고, 한쪽에 반드시 눈이 1개 이상 있어야 한다. 아랫부분 1/5 정도를 자르지 않고 붙여두면 자른 부분이 잘 아물어 붙는다.

감자보관방법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노출시 솔라닌이라는 독이 생긴다.
심었을 땀 : 잡초제거기 흙을 1,2차례 덮어준다.
수확후엔 : 되도록 맑은 날 수확, 햇빛이 들지 않는 그늘에서 잘 말려 저장
오랫동안 저장하려면 : 3~4℃ 정도 되는 저온저장고나 냉장고에서 저장하여야 한다. 저장온도가 높으면 썩이 빨리 나 먹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온도를 낮추어 저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 좋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감자가 썩거나 속이 시커멓게 변하여 먹을 수 없다.

감자심기에 좋은 밭

물빠짐이 좋고 유기물 함량이 많은 곳
20cm 정도 깊이로 밭을 깊게 갈고, 비료를 뿌려준다. 감자전용복합비료를 100m²당 10kg 정도를 뿌려주면 적당하다.
비료를 뿌리면 이랑을 만들어 씨감자를 심는다.
이랑사이에는 75~80cm, 포기사이에는 20~25cm 정도
비닐 멀칭을 할 경우 : 10~15cm 정도로 깊게 심는다.
비닐 멀칭을 하지 않을 경우 : 3~5cm 정도로 깊게 심은 후 썩이 올라오면 복을 주는 것이 좋다.

감자의 일생

식탁에 오르기까지 감자는 어떤 삶을 살까

씨감자를 준비한다

(씨감자만들기 참조). 씨감자는 강원도 고령지에서 생산한 것이 좋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씨감자를 구매할 수 있는 여러 정보가 많이 나와 있다.



감자를 심는다

(거리는 감자심기에 좋은 밭 참조). 구멍을 쉽게 뚫어주는 도구를 활용해서 심는 장면. 작은 텃밭에 한 고랑만 심을 시엔 거리를 두어 호미나 모종삽을 이용해 심을 수 있다.



자라는 상태, 감자꽃이 피어있다.

감자꽃을 처음 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감자를 심어서 얻을 수 있는 덩이다. 아이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감자수확

둥글둥글 감자가 고랑에 줄지어 있다. 맑은 날 수확해서 습기를 말려 담는 게 좋다. 보관만 잘하면 1년 동안 우리의 식탁을 즐겁게 해줄 것이다.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씨감자에서 수확까지 넉달 동안만 기다리면 만날 수 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통감자튀김. 집에서 기름 경우엔 깊이가 있는 재배팩이나 큰 화분에 심으면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안양 벌말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인 서정남 박사님

찾아가는 종자교실

미래세대에게 가드닝식물기르기의 희망을 심는다

종자원에서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종자교실을 운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종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종자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중요성도 잘 모릅니다.
그냥 씨앗정도일까요.
소중하다고 자꾸 일깨워줘야 귀하게 생각합니다.
종자에 대한 교육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겠죠.
미래의 인재가 자라는 초등학교에서
종자원의 큰 뜻이 들어있는
'서정남 박사의 씨앗사랑-찾아가는 종자교실'을
저희 가든인 미래역군에게도 소개할까 합니다.
아이들이 깨쳐야 미래의 종자가 든든해지리라 여기는 건
자명한 일이니깐요.

글 사진 서정남 박사
국립종자원 서부지원 suhin@korea.kr

국립종자원 홈페이지 <http://www.seed.go.kr>

국립종자원(원장 신현관)에서는 "씨앗사랑-찾아가는 종자교실"을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작년 업무협약(MOU)을 맺은 안양시 벌말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 종자교실은 식물 재배과정을 몸소 체험하여 생명과 먹거리의 소중함을 깨치고, 계절별 다양한 식물재료를 교육아이템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흥미유발과 정서함양에 긍정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립종자원의 다양한 교육아이템을 개발·활용하여 미래세대 대상 교육을 통해 생명의 근본인 종자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작년에는 '움직이는 식물' 등과 같은 스토리텔링 「식물이야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3월에는 식물기르기 기초강의를 통한 교사연수를 시작으로 1학년들을 대상으로 '상추 씨앗심기'를 실시하여, 상추기르기 설명과 함께 씨앗심기 실습을 하였다. 학생들은 고사리 손으로 직접 작은 상추 씨앗을 하나하나 플러그 셀에 심으면서 즐거워했다.

4월부터는 계절에 맞춘 '식물기르기' 실습을 학년별로 추진했다. 4월에는 허브썬꽃이(로즈마리, 라벤더, 민트)와 여름초화(꽃베고니아, 좁은잎백일초, 임파티엔스, 페튜니아) 모아심기, 5월에는 토마토도 심기와 관엽식물(아이비, 스

킨답서스, 페페로미아) 지퍼백 꺾꽂이, 7월에는 위와 같은 실습의 결과를 확인하거나 수확하여 식물기르기의 즐거움을 맛볼 예정이다. 2학기인 9월에는 가을초화도 심어서 연중 꽃으로 가득찬 교정을 가꿀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물은 최종적으로 10월 벌말초등학교의 축제행사 중에 전시를 힘으로써 학부모나 지역사회와 함께 원예식물 기르기의 즐거움을 같이할 것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식물기르기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특별활동 '원예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화 꺾꽂이 등과 같은 다양한 원예프로그램을 집약적으로 체험학습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초등학교의 현장 여건과 계절에 맞는 식물기르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얻어진 경험(계절별 식물기르기 프로그램, 준비물, 예산 등)과 그 결과를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제작하게 될 매뉴얼은 향후 전국에 산재한 국립종자원 9개 지원의 사회공헌 활동이나 초등학교 자체의 식물기르기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학교에서 식물기르기의 의미

- 원예활동과 식물을 매개로 학생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정서순화 등 원예치료 효과
- 채소를 직접 재배하면서 채소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 식생활 습관 개선 효과
- 종자에서 개화·열매수확까지의 식물의 전 성장단계를 본인 스스로 관리하고 관찰함으로써 정서적 소통과 더불어 성취감 고취
- 교육과정을 통해 생명의 시작이 종자임을 학생 스스로 깨우쳐 종자의 가치와 중요성을 습득하고 교육요과의 연속성을 기대



안양 벌말 초등학교에서 하는
4월 프로그램

허브식물 꺾꽂이

허브식물이란

허브는 줄기나 식물체에서 향기가 나 향신채로 이용되는 식물을 말합니다. 로즈마리, 라벤더, 민트, 타임(백리향), 세이지, 바질 등이 있지요.



로즈마리 [Rosemary]



라벤더 [Lavender]



민트 [Mint]



허브를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잎 안에 가지고 있는 향기기름을 조금씩 내어 향기를 냅니다. 싫어하는 벌레나 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죠.



로즈마리의 향기기름주머니



라벤더의 향기기름주머니



민트의 향기기름주머니

허브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오늘의 수업주제 껌꽃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껌꽃이란 식물체의 일부를 잘라 적당한 조건에서 뿌리를 새로 만들어 새로운 식물체를 번식시키는 몸체기 번식방법입니다. 식물은 동물과 달리 하나의 세포가 모든 식물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껌꽃이할 수 있는 관엽식물



자른 꽃으로도 껌꽃이를 할 수 있다.

STEP BY STEP

라벤더 허브껌꽃이



은은한 향기와 보라색 꽃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허브식물로 햇빛을 매우 좋아해 실내나 아파트베란다에서 기릅니다. 서늘한 봄과 가을에는 물을 충분히 주면서 관리하고 무더운 여름철이나 추운 겨울철에는 다소 적게 줍니다. 잎이 너무 무성해지면 통풍이 잘 되지 않아 병충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필요에 따라 가지를 솎아주면 됩니다.

1



화분에 모래를 채우고 물을 충분히 준 다음 이쑤시개 등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는다

2



라벤더의 가지를 7~10cm 정도 자른다.

3



가지 밑의 잎은 떼어낸다.

4



모래에 가지를 꺾고 꺾 눌러준다

5



가지가 시드는 것을 막기 위해 투명한 유리나 플라스틱 병으로 화분을 덮어준다. 일주일 정도 실내의 그늘진 곳에 두었다가 이후 어느 정도 햇빛이 들어오는 창가에 두고 기른다.

6



한 달 정도 지나 뿌리가 나면 일반 베양토가 담긴 화분에 심는다.

허브식물 어떻게 길러야 하나요?

허브식물을 잘 길러려면

	햇빛	온도	물	토양
로즈마리	충분히	서늘	적당	물빠짐
라벤더	충분히	서늘	적당	물빠짐
민트	적당	서늘	많이	물빠짐

INTERVIEW

국립종자원에 계시는 박사님~~ 종자원이 궁금해요.

Q. 국립종자원이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A. 국립종자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로는 주요 작물(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의 우량종자를 농업인에게 공급하고, 신 품종의 심사와 등록을 통한 농작물의 지식재산권을 육종가에게 부여하여 종자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곳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농업생산의 근간인 주요 작물 종자의 공급은 국가가 보증하는 종자를 농업인이 사용하여 재배함으로써 우수한 품종을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물을 수확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품종의 심사와 등록은 교배나 돌연변이의 발견을 통하여 얻어진 우수한 형질을 가진 농작물의 품종에 대하여 육종가에게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육종가에게는 육종비용을 회수하고 육종의욕을 고취시켜 좀더 좋은 품종을 육성하도록 하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농업인에게 우수한 품종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종자원은 품종생산, 수입판매신고 접수, 품종명칭 등록, 종자 검사 및 보충, 민간육종 활성화를 위한 정보, 기술 및 홍보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육종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는 종자연구회와 함께 개인육종가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 농가에 종자보급을 위해서 종자원에서 남다른게 노력하시는 교육이 있나요.

A. 벼 등의 주요 작물에서 올바른 파종전 처리 등에 대한 교육을 농민 청 및 지자체와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Q. 일반인들이 종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나 종자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종자관련 프로그램이 있나요.

A. 일반인에 대한 종자교육은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일부 학교에서 종자와 품종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육종가에 대한 교육은 종자연구회와 함께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Q. 종자의 가치와 중요성은

A. 종자는 우수한 유전력을 가진 품종을 꾸준히 후대에 발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생산의 기본이자 국민 생활을 윤택하게 만드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전자산업의 놀라운 발전에는 효율적이면서도 미세화된 반도체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할 수 있는데, 농업에서 이러한 반도체가 바로 종자인 것입니다.

Q. 종자산업분야에서 우리꽃의 역할이나 비중, 경제적인 가치가 있나요.

A. 아직까지 덜 개척된 우리나라의 유전자원으로서 향후 우수한 품종을 육성할 수 있는 훌륭한 유전자원으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한편, 일부 종류는 약간의 개량을 통해서 우수한 우리네 풍경을 연출할 수 있는 좋은 화훼작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모종심기체험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정의 달에는 누구나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어린이날(5일)이 있고, 어버이날(8일)이 있으며 성년의 날(20일)이 있고, 최근에는 부부의 날(21일) 생겼다. 가족은 어머니 품속처럼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아늑한 동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곳이라고 하지만 오늘날 이런 가족이 얼마나 될까? 가족이라고 하면 편안함보다 굴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가족은 나의 힘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하며, 친밀할 뒤에 미묘한 갈등이 숨어 있기도 하고, 한없이 사랑하다가도 한없이 미워지기도 한다. 가족은 이처럼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고 가족문제 전문가인 최광현씨는 말했다. 영국의 유명한 가족사회학자인 올리버 벡 부부는 사랑은 너무나도 지독한 그러나 지극히 정상적인 혼란이라고 하면서 가족이라는 구성원은 하나의 단일체가 아니라 매우 다양한 차이를 가진 집단이라고 하였다. 부모와 자녀 간에는 학력차가 있고 소득격차가 있으며 나이가 다르므로 세대차이가 있고 부부간에도 남편의 성(性)차가 있고, 서로 살아온 배경이 다르다 보니 관심사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며 생활방식과 가치도 다르기 마련이다. 더욱이 요즘의 가정은 외국인 엄마나 아빠가 있기도 하고, 부부가 이혼하여 한부모 가정이 있기도 하고, 부모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는 가정도 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작물을 심고 기르면서 치유 받고 건강해지고

치유농업

2014년 키워드 치유(힐링), 치유프로그램, 치유음식, 치유여행 등 치유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깊숙이 들어와 있다.

갈등을 풀고 마음 속 상처를 치료하고 위안을 받기 위해 사람들은 치유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결과로 생겨나는 것들이다.

치유농업은 작물을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긍정적인 효과 중에 하나이다. 한참 텃밭에 정성을 들이고 있는 가든인 독자들에게 얼마나 근사한 삶을 영유하는지 김경미 농업연구관님의 글을 통해 확인해보길 바란다.



글 사진 김경미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연구팀 농업연구관

에서는 당연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정을 이상적인 가정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논의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 드라마를 보아도 부모의 이혼 이야기를 나누는 유치원생의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이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갈등, 관계에서 오는 여러 문제-텃밭이 치유할 수도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아이들은 가정의 소득문제, 부모와 갈등, 친구들과 사이의 괴롭힘 등의 문제로 학업을 중단한다. 학교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고등학생 경우는 대부분 대학입시와 관련이 크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의 학생은 가족문제, 친구문제가 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해마다 학업을 중단하는 6~7만여 명의 50%나 된다고 한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과정이란 점에서 기본교육을 마치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들은 학교로 쉽게 돌아오지 못한다. 2014년에 대구에서 처음으로 방송중학교를 열었다. 그동안 사이버 강좌에 의존하던 학생들을 모아 함께 교육과정을 운영해보려는 취지였는데, 청소년보다는 성인들이 몰렸다고 한다. 과거 우리 사회의 전쟁과 가난 속에서 공부하지 못했던 성인들은 배우려고 학교로 오는데, 한참 공부해

야 할 시기의 아이들은 오히려 학교로 오지 않는다는 현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깊고 기존의 체계로는 해결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주변에서도 자녀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많다. 이럴 때 함께 여행을 다녀오면 좋겠지만 쉽지 않다면 좀 더 지속적인 방법으로 작물을 길러보면 어떨까? **학교에 텃밭을 운영하는 초등학교들을 보면 텃밭을 중심으로 학생과 선생님, 부모와 자녀가, 학교와 가정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소통하면서 협력하게 된다고 한다. 학교텃밭에서 작물을 심고 기르는 과정 자체가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상처를 치유하면서 미래의 꿈을 설계하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김천의 소년교도소에서 진행된 원예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활동 후에 불안감과 우울감이 크게 감소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애들 소꿉놀이 같다고 하던 그들이 가장 크게 보여준 변화는 바로 애착과 애정이었다.



고도스 원예활동 전경

국민건강증진 프로그램-치유농업

누군가를 염려하고 아끼는 마음. 그것이 바로 배려이고 사랑인데, 작물을 키우면서 내가 돌보지 않으면 어찌 될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보살피면서 스스로의 마음에 쌓여 있던 상처들이 어느새 조금씩 녹았던 것이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텃밭 돌보는 함께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런 농업의 치유적 기능에 주목해서 치유농업을 국민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치유농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거나 수가를 낮추어준다. 청소년이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대한 해결책으로 치유농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기도 한다. 알콜중독이나 게임중독 등의 완화에도 농업이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원예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반려견, 승마재활치료 등 동물을 매개로 한 프로그램도 늘고 있고, 일본에서는 농장에서 농작업에 참여하면서 재활치료를 받기도 한다. 치유농장에서 는 아예 장애인을 고용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을 주기도 한

다. 이처럼 농업의 치유적 기능은 농업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 국민에게 관련된다.

법무부는 출소예정 수형자에게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 정서적 안정과 인성함양을 도모해왔고, 교육부에서는 자유학기제나 학교폭력대책, 학업중단학생 대책으로 농업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치유와 직업, 창의인재 양성에 활용하려고 한다. 그 뿐인가? 텃밭 활동에 참여한 아이들의 건강과 영양적 균형은 매우 중요한 효과이고 이 부분은 미국 백악관에서 미셸 오바마가 주도하는 Let's Move 운동에 잘 드러나 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농업이 있다. 농업기술은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부, 농림축산부, 법무부, 국립목포병원 등이 농촌진흥청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부처가 상호 협력하고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3.0의 좋은 예이기도 하다.



텃밭 참여 후 아이들의 발표자료

4월부터는 각 지역 인근의 주말농장이 문을 연다. 가족과 함께 1~2평(3.3~6.6㎡)이라도 충분하다. 더 크면 부담이 된다. 그저 가족들이 함께 상추도 심고 쑥갓도 심고 꽃도 심고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돌봐주며 수확한 작물을 이용해 같이 요리하고 나누어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속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가족이 더 친밀하고 단단하게 엮인다. 한 번 해볼 만하지 않은가? 앞으로 농촌진흥청 도시농업연구팀에서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 단체, 상담센터, 복지기관, 병원 등에서 관심이 많다. 농업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것이 바로 치유농업이다.

유기농의 역사와 시작

21세기를 위한 유기농 가드닝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을 위한, 가든인 독자들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다.
단순히 작물을 키우는 것이 아닌 유기농채소를
재배하는 분들은 무늬만 유기농이 아닌 진심을 다해 농사를 지려 노력한다.
왜 유기농이어야만 하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받기
위해서라도 유기농에 대해서 알아볼 일이다.
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업과 농업연구소로 계시는
이민호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어보자.

“
정원사가 주는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다.
그것은 생명을 소생하게 만드는
정성이 깃든 물이다.”

정원사는 용이 죽어 묻힌 땅 위에 물을 주
어 꽃을 피운다. 정원사가 주는 물은 단순
한 물이 아니다. 그것은 생명을 소생하게
만드는 정성이 깃든 물이다. 일상의 정원
가꾸기가 연금술이 되는 순간이다. 이 순간
을 그림으로 남긴 이는, 20세기 초반에 분
석심리학을 개척한 칼 구스타프 융(C. G.
Jung, 1875~1961)이다. 그는 자신의 무의식
세계로서의 꿈을 그림으로 형상화시키고
이를 해석함으로써 인간정신의 탐구를 해
나간 과학자이자 의사였다. 그는 평생의 작
업을 그림일기책으로 엮었다. 앞서 설명한
그림도 이 책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는 이 그림에 대해 이렇게 풀이를 달고 있
다. **“땅은 숨겨둔 것을 내게 돌려준다.”**
칼 융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설명이 가능한
세계만이 전부가 아님을 일깨워준다. 우리
가 목도하지 못하거나 의식으로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세계 안에 실존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 이런 실존을 명확하게 파
악하기 위해서는 이성을 열린 마음으로 받
쳐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림 출처: Jung, C. G., (2009) 『The Red Book / Liber Novus』, (ed. by S. Shamdasani), 1st ed., Philemon series, [Image 123], p. 305.

“
생태환경의 황폐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수 천 년 동안 인류가 스스로
간직하고 살아왔던 해법들이었다.”



글 사진 이민호
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업과
농업연구소

칼융보다 앞서서 자연과 세계 인식을 의
식 안에 포함하려는 연금술의 전통을 현
대적 학문 체계로 발전시킨 사람이 있다.
루돌프 슈타이너(1861~1925)는 유물론과
물질만능주의로 인간 심성과 생태환경이
황폐화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를 치유시
킬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수 천 년 동안 인류가
스스로 간직하고 살아왔던 해법들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서양에서는 이미 용도 폐
기된 것들이었다.
산업혁명 1세기 동안 유럽 인구는 2배나
증가해 있었다. 프리츠 하버(1868~1934)
가 공중에 떠다니는 질소로부터 암모니아
를 합성해 비료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함으
로써 산업혁명으로 늘어난 인구를 부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정작 세계대전
이후 인류 앞에 놓인 세상은 인플레이션과
식량난과 부의 양극화였다. 농민들은 자신
들의 밭에서 지력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
을 경험했다. 그것은 눈앞에 현상이었고,
현상 너머에는 인류가 전통으로 계승해온
윤리적 판타지로서의 상징체계가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했다.

당시 농민들은 인지학의 창시자인 루돌프 슈타이너를 찾아와 이
런 문제의 해결책을 물었다. 슈타이너는 이에 답하여 1924년에
농업강좌를 개최하고, 후대 사람들에 의해 현대적 유기농의 시초
라고 불리는 생명역동농법(Biodynamic farming)을 강의하였다.
그는 농민이 가져야 하는 내면적 자세와 재배식물의 품종 개량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전수하는 작업을 끝으로 그의 생을 마감한다.

**유기농은 생산성과 생태환경보전을 동시에
충족해야하는, 가장 첨단 과학기술이다.**

현대적인 유기농의 시작은 이렇게 하여 지난 세기 몰락한 인류의
정신적 유산을 새롭게 부흥시키고자하는 상징체계로써, 그리고 토
양의 지력뿐 아니라 인류의 삶과 환경의 질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제시되었다.

20세기 초 생명역동농법에서 출발한 오늘날의 유기농은, 화학
비료로 상징되는 과학적 기능에 대한 의심이라기보다는 이것이 내
포하고 있는 가치관이 인도할 인류의 미래에 대한 직관이다. 그러
니 유기농이 과학적으로 타당한 가를 논하는 것은 칼 융의 말을 빌



인지학의 창시자
루돌프 슈타이너(1861~1925)

리면, “비판적 이성만 지배하면
할수록 인생은 그만큼 빈곤해진
다.” 그러나 집단 무의식적 존재
로 인류가 가고 있는 길을 의식
하면 의식할수록 우리는 더 많
은 것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유기농의 연금술
적 목표와 상징을 이해하는 것
이 중요하다. 이 말은 유기농이
비과학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유기농이 처음 대두된 20세기
초와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유기

농은 생산성과 생태환경보전을 동시에 충족해야하는, 가장 첨단
과학기술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유기농의 과
학성이 아니라, 유기농의 통합성이다.
오늘날 농민마저도 대다수의 도시 근로자처럼 밤낮없이 일하고 그
보상으로 대량생산 제품으로서 먹거리와 수동적인 여가생활을 제
공받는다. 농업은 엄청나게 증가한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면서도
막상 농민과 농촌은 본질적 가치가 흔들리는 위기 상황에 놓인 지
오래다. 대량의 생산성 효율만을 강조하는 시각과 반대편에서 전
세계적으로 생태, 환경, 여성, 농촌, 공동체, 창조적 문화 등 다원적
인 가치들이 ‘과정’을 지향한다. 이러한 유기농적 정체성이 일상의
생활문화로 구축되고 향유되기에 이르렀다.

**유기농은 단순히 식품 차원이 아니라
건강, 환경, 여가, 문화 등으로 영역을 확장시켜 놓았다.**

유기농적 생활문화를 구축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
제롬 어빙 로데일(1898~1971)이 꼽힌다. 그는 미국 유기농업 운동
의 선구자로, 오늘날 「Organic Gardening」으로 발간되는 「Organic
Farming and Gardening」을 창간하였다. 이 잡지는 지금 2천7백만
이나 구독하는 유명 매거진이 되었고, 유기농을 단순히 식품 차원
이 아니라 건강, 환경, 여가, 문화 등으로 영역을 확장시켜 놓았다.
한편으로 이러한 유기농생활 문화의 확장이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곳에는 유기농만 있는 것이 아니다. 20세기 화학연료시대에 정점
을 찍은 산업적 대량생산 시스템은 ‘무늬만 유기농’인 것들도 곧잘
만들어 낸다. 1세기 전에 1세기를 내다보며 준비한 선각자들의 윤리
적 판타지를 대신해서 우리 시대가 채운 것은 상업적, 개인적 이기
주의다. 얼골 없는 인증과 맹목적인 구매가 유기농 생활문화의 그
늘이 되어버린 듯하다.

보호받는 공간, 낙원을 일군으로써 가드닝 본래적 의미로 유기농
은 재해석되어야 한다. 다음 1세기를 바라보며 지구와 인류가 당면
할 처지를 생각한다면, 더더욱 유기농 가드닝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20세기 초, 화학비료가 발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과학자들
은 화학비료의 오남용이 부를 토양과 물의 오염을 예측할 수 있었
다. 지금 21세기 초에도 과학자들은 기후변화, 물부족, 석유고갈, 생
물다양성 격감과 같은 환경의 재앙과 자원고갈을 매일같이 경고하
고 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
게 짜내야 할 윤리적, 정신적 판타지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 생명역동농업을 실천하는 정농회 김준권 생명역동
농법연구회장.



정신적 거름으로 생명역동농업에 사용되는 각종 예비제.

초록내음 가득한 달콤 쌉싸래한 쌈채소로 건강 UP, 맛도 UP, 분위기 UP~~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아무리 바빠도 한번쯤은 나들이
계획이 잡혀있지 않을까?
캠핑바람도 거세니 아이들과 함께
캠핑 가서 지글지글 삼겹살에
갓가지 쌈채소를 얹어 맛있는
식사를 해보자.
고기에 부족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할 뿐만 아니라
고기의 유해물질까지도 제거해준
다고 하니, 5월엔 제철에 나는
쌈채소를 듬뿍 먹어보자.
마트에 가면 웬만한 쌈채소는
다 있다.



쌈채소 종류가 이렇게 많나?

상추, 치커리, 깻잎 정도 알았다면 명함을 내밀지 마시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쌈채소 종류가 다양하다. 비트, 적로즈, 적근대, 비타민, 레드치커리, 트레비스, 케일, 청겨자, 프라스타, 청로메인, 신기추, 생채, 홍삼배추, 흑상추, 적상추 등등 색깔, 맛, 크기, 향도 다양한 쌈채소로 뭉뚱그려 말하지 말고 한번쯤은 이름을 살펴볼지이다.



청로메인

로미인의 상추란다. 부드러운데 달짝지근한 맛과 감칠맛이 난다. 쌈싸먹기에 최고(적로메인도 있다.)



생채

유럽의 상추란다. 담백하고 단맛이 난다. 신선도가 오래 지속된다고 한다. 신선대사를 들고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니 많이 먹어보자. 쌈으로, 샌드위치, 비빔밥, 겉절이 등에 두루두루 쓰인다.



흑상추

잎의 끝부분으로 길수록 약간의 검은 빛이 난다. 쌈싸먹기 제격이다. 맛이 좋다.



적상추

붉은 빛이 나는 상추로 잎이 꽃상추처럼 생겼다. 줄기가 짧고 잎이 바로 퍼져 쌈싸먹기 제격이다. 대는 약간 쓴맛이 나지만 즐겨먹는 쌈이다.



프라스타

쓴맛이 은은하게 나 식욕을 돋운다. 무기질이 풍부하여 비타민이 많이 함유돼 있고 섬유질이 풍부하다.



적거자

특 쓰는 매운맛이 있어 이 맛을 좋아하는 분은 고기와 함께 먹으면 좋다. 잎이 크고 길다.



케일

어린잎은 적당한 쓴맛이 적어 쌈싸먹기에 좋다. 상추에 비하면 잎이 두껍고 단단하다. 녹즙을 내어 먹기도 한다.



청거자

붉은 매운맛이 있어 이 맛을 좋아하는 분은 고기와 함께 먹으면 좋다. 잎이 크고 길다.



트레비스

치커리의 사촌이란다. 약간의 쓴맛보다 조금 더 있다. 소화를 돕는다고 하니 생거야.

로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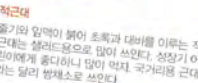
개암종류의 쌈채소다. 셀러드용으로도 많이 사용한다. 잎이 단단하다.

비트

아열 많은 셀러드나 쌈으로 먹는다. 상추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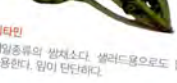
홍삼배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 있다. 약간의 쓴맛과 고소한 맛이 있다. 크기가 쌈싸먹기에 좋다. 이쯤저쯤 배추식감이 있다.



적근대

줄기와 양맥이 붉어 초록과 대아를 이루는 적근대는 셀러드용으로도 많이 쓰인다. 생강기아린에게 좋으니 많이 먹자. 국거리용 근대와는 달리 쌈채소로 쓰인다.



비타민

개암종류의 쌈채소다. 셀러드용으로도 많이 사용한다. 잎이 단단하다.



수기로그

아열 많은 셀러드나 쌈으로 먹는다. 상추보다



셀러리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 있다. 약간의 쓴맛과 고소한 맛이 있다. 크기가 쌈싸먹기에 좋다. 이쯤저쯤 배추식감이 있다.



재배 법

적근대



노지에서 덩스롭게 자란 비타민



재배 셀러리

“
상성한 상채소인 비타민과 목기질이 풍부...
쌈채소에는 비타민 C, 비타민 A 등의 비타민과 칼슘, 칼슘,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적당히 섭취할 경우 생활에 활력을 주고 생리대사 조절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별도의 가열, 조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충분한 세척만으로 섭취가 가능하다. 이렇게 먹는 쌈채소는 영양소 파괴없이 채소에 있는 영양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을뿐더러 자연의 살아있는 상성한 맛을 먹는 즐거움도 있다.”
”



연락처 : 031-634-7990 소�팅 : www.gardenjoa.com

쌈채소와 토마토, 치즈가 만나면~~

토마토 치즈가 들어간 쌈채소샐러드

사실 아이들은 쌈채소의 약간 쓴맛이나 매운맛을 싫어한다.
한번 그 맛을 보면 다시는 먹으려하지 않는다고 고집을 부린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즈를 활용해서 요리를 해봤다.
한창 나고 있는 토마토를 넣으니 색이 확 산다.

Organic Food

재료 : 쌈채소, 토마토, 치즈, 오렌지,
소스(오리엔탈소스)

갓가지 쌈채소와 빨갛게 익은 상심하고 단단한 토마토를 깨끗이 씻어 준비한다.
치즈는 바로 먹을 수 있는 걸 준비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부드러운 슬라이스 치즈를 준비해도 된다.
소스는 집에서 직접 만들어도 좋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소스를 활용하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1

토마토는 껍질이 싫으면 십자모양으로 칼집을 넣어 살짝 더딘 후 껍질을 벗겨낸 뒤 뽕뽕뽕썰는다.



칼집을 넣어 끓는물에 살짝 데친후 껍질을 벗기면 토마토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맛있게 먹는다.

2

치즈는 슬라이스로 사 토마토처럼 뽕뽕뽕썰어서 쓴다.



껍질벗길 오렌지, 토마토, 다양한 쌈채소, 샐러드용 치즈를 납작하게 썰었다.

3

쌈채소는 인분을 사용하지 않게 줄기부분을 잘라낸다. 오렌지도 까서 준비한다.



토마토 치즈 쌈채소를 차례로 빙둘러 놓은후 가운데 오렌지를 놓았다. 오리엔탈소스를 듬뿍뿌렸다.

4

토마토 치즈 쌈채소를 차례로 놓는다. 가운데 오렌지 (전복알과 알사탕)를 둘러 뒤 소스를 둘러서 뿌려준다.



깨소금도 뿌려봤다.

아이들이 맛있으며 많이 먹으려고 서로 말다툼을 벌일 정도로 맛있었다.
안 먹는 쌈채소를 좋아하는 치즈와 겉돌이니 완성적인 맛이라며 야단을 때를 아이를 보니 손이 좀 가지만 만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유기농쌈채소와 토마토를 먹었으니 만든사람도 어깨가 으쓱할만 하지 않을까. 다음호에도 아이들이 잘 먹는 맛있는 샐러드를 만들어봐야겠다.

Gardenin N/E/W/S

제 5차 정원문화포럼 전체회의 열려



정원문화포럼이 2014년 4월 10일 이천시 모가면 우리꽃농장에 있는 가든조아에서 열렸다. 봄이 화사하게 피어나는 농장견학을 시작으로 가든조아 매장 안에 마련한 회의실에서 정원문화포럼 정관에 관한 열띤 토의를 했다. 가드닝을 통한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 정원문화 활성화와 정원산업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원문화 포럼 정관'은 제1차 총칙, 제2차 회원 및 임원, 제3차 이사회, 제4차 총회, 제5차 부서 및 직원, 제6차 회계와 재정, 제7차 보칙을 만들어 회의를 진행했다.

도시농업의 교육적 활용-학교텃밭 심포지엄

한국도시농업연구회에서 학교텃밭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농업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심포지엄을 2014년 4월 30일에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학교텃밭 확산을 통한 도시농업과 관련산업 활성화, 학교텃밭 활성화를 통한 도시농업의 교육적 활용 추진을 목적으로 초등학교에 학교텃밭 확산을 통한 산업 확대와 학교텃밭 활성화를 통한 학생의 정서순화 등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예상한다.

일시: 2014. 4. 30(수요일), 10:30~16:10

장소: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국제회의장

주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한국도시농업연구회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경기도가 개발한 장미종묘 200만주 수출돌파

이번 호에 소개한 가시 없는 장미가 해외 시장을 공략한 지 6년 만에 수출 200만 주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고 한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장미는 2009년 해외수출을 시작으로 해마다 순위를 기록하며 공공행진을 했다. 그린뷰티, 덩퍼플 외 적색 계통의 락파이어와 실버쉐도우, 아이보리톤의 아이스베



어 등 5품종으로 2009년 5만주에서 2010년 11만주, 2011년 16만주, 2012년 51만주, 2013년 104만주, 올해 2월 현재 24만9천주 등 212만주의 수출을 기록했다.

서울에서 열리는 도시농업축제한마당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 24절기에 맞춰 농사를 짓던 전통을 살려, 서울 시내 주요 텃밭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신명나는 "도시농업축제한마당"이 개최된다.

4월 6일(일) 청명 날엔 토종씨앗나눔 축제로 이촌동 노들텃밭에서 열렸고

5월 입하 날엔 텃밭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상일동 상일공동체텃밭에서 열린다.

도시농업 자재나눔, 텃밭해설, 텃밭요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6월 하짓날엔 텃밭단오제를 은평구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텃밭에서 열리며 로컬푸드장터, 에코문화축제로 다가가며,

7월 소서 날엔 텃밭요리 경연대회로 상암동 상암드래곤테밭에서 여러 분을 만나다. 텃밭해설, 농산물품평회 등의 내용으로 채워지고,

10월 한로 날엔 텃밭운동회를 문래동 공공유통터에서 연다. 마을텃밭 채소장터, 텃밭체험, 텃밭해설 등으로 다간다.

11월 입동 날엔 김치품평회, 텃밭사진전을 도봉동 친환경농산물시장에서 연다.

조상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24절기 농사를 통해 계절감을 느끼며 다양한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도시농업축제 한마당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해 보길 바란다.

작은 정원에서 식물의 용도와 시각적 역할

중간식물은 대부분 구조적 식물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식물로 정원에 있는 대부분의 식물이 해당된다. 영국에 있는 정원으로 갈 것으로 중간식물이 잘 구성되어 있다.

글 사진 손관화교수
천안연암대학 화훼디자인계열
(가드닝 전공+플로리스트리 전공)
<http://sohn.yonam.ac.kr>

작은 정원을 직접 만들어 갈 때 전체적인 정원의 모습을 구상한 후 정원식물을 선정해야 한다. 처음에는 그 많은 정원식물 중 어떤 식물을 골라야 할지 막연할 수 있다. 그래서 선정해야 하는 식물의 범위를 좁혀가는데 그 방법 중 하나는 어떤 정원을 원하는지 잘 생각해서 정원의 주제나 색, 양식(style) 등을 정해 해당되는 식물을 골라낸다. 또한 주어진 정원의 생육환경 조건에 맞는 식물을 골라야 하며 용도(기능적인 역할)와 시각적 역할을 고려해서 선정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정원식물의 용도와 시각적 역할 2가지에 대해 살펴보자.

문 앞에 두 그루 나무가 말해주듯 구조적 식물이다. 우뚝 솟아오른 듯 서 있는 모습이 간결하면서도 어울린다. 지중해의 사이프러스 지역이다.

정원식물의 용도

정원에서 식물은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되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심터를 제공하고
2. 경계를 만들어 주며
3. 먹거리를 제공하고
4. 그늘을 조성하며
5. 바람을 막아주고
6. 향기를 제공하고
7. 이웃을 가려주고
8. 보기 싫은 부분을 가리고
9. 야생 생물이 살 곳을 만들어 준다.



새도이통을 걸어둠(영국)

시각적 역할에 따른 선정

정원식물은 형태와 크기, 생육습성에 따라 정원을 구성할 때 적합한 역할이 있다. 정원 디자이너에 따라 이런 역할에 대한 설명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정원식물을 구조적식물, 중간식물, 지피식물, 초점식물의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거나 또는 구조적식물, 장식적식물, 초본식물, 초점식물의 네 가지, 또는 골격식물(skeleton plants), 장식적식물, 다년초, 채우는식물(infills), 초점식물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기도 한다. 또 상부식물, 하부식물, 지피식물로 표현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4가지로 구분해 보았다.

주택앞의 중심역할을 해주는 나무가 정원의 구조적 역할을 해준다. 구조적 식물, 네델란드

정원을 구성하는 네가지 식물

구조적 식물 (Structural plants)	구조적 혹은 골격식물은 정원의 구조를 형성해주는 식물로 정원의 틀을 만들어주고 정원의 크기를 한정하여 다른 식물들이 한정된 공간 내에 자리를 잡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정원에서 식물을 배치할 때는 먼저 중심이 되는 식물을 정하고 이 식물을 어디에 배치할 지 결정하는데, 구조적 식물부터 시작하게 된다. 구조적 식물은 정원의 구조를 형성하면서 높이, 깊이, 색, 질감을 부여하여 초점을 형성하기도 한다. 구조적 식물은 주로 교목, 관목, 만경목의 목본식물을 이용한다. 정원을 둘러싸는 생울타리도 이 역할을 한다.	교목/ 관목/ 만경목
중간식물 (Midrange plants)	중간식물은 대부분 구조적 식물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식물로 정원에 있는 대부분의 식물이 해당된다. 꽃이나 잎으로 계절적인 흥미를 제공하는 작은 관목이나 그래스류나 구근류를 포함한 다년초가 주로 이용되는데 이러한 중간식물로 정원의 양식(style)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다양한 형태와 색, 질감을 가진 많은 종류의 식물군으로 인해 디자인하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꽃피는 다년초가 많아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일 년 내, 또는 늦어도 2년 만에 성숙한 크기로 꽃을 피울 수 있으므로 구조적 식물보다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다. 중간식물은 초본식물이 중심이라 초본식물이라 하기도 하고 장식적식물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또는 초본식물은 꽃이 중심이므로 예쁜식물(the pretties)이라 하는 디자이너도 있으며 일년초나 구근류를 중심으로 채우는 식물(infills)이라 하기도 한다.	저관목/ 다년초/ 그래스류/ 구근류
지피식물 (Groundcover plants)	원, 줄기, 꽃이 토양 표면을 이불같이 촘촘하게 덮는 지피식물은 빛과 주변의 수분을 독점하여 잡초를 눌러버리는 효과가 크다. 색, 질감, 형태 등의 요소로 정원에서 아름다운 태피스트리(tapestry)와 같은 느낌을 만들어 내고 다른 식물들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는 장식적인 효과를 가진다. 지피식물은 잔디와 같이 낮게 자라는 식물뿐만 아니라 장식성을 부여하고 잡초를 억누르는 역할을 하는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식물을 말한다.	낮은 다년초
초점식물 (Focal plants)	초점식물은 사람들의 시선을 정원으로 유인하거나 보기 싫은 경관을 보이지 않도록 하고 정원에서 시선을 끄는 역할을 하는 식물을 말한다. 정원에 초점식물을 꼭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디자이너의 필요에 따라 초점식물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위해 상록수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상록수 외에도 강한 형태나 색을 가진 식물을 이용한다. 또 계절적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식물을 이용한다.	상록수/ 독특한 형태나 색을 가진 식물/ 계절식물





양지바른 곳에서 잘 자라는 양지꽃

작고 연약하지만 강인한 꽃이란다.

햇빛을 좋아해 양지(陽地)꽃이란다.

흰한 길가에 노랗게 피어있는 뱀딸기꽃은

시선을 끌지 못하지만 빨간 열매는

눈에 잘 띄어 뛰어나 갖고 놀았던

기억은 누구인가 있을 것이다.

그 꽃이 양지꽃이란다. 작은 노란꽃잎이
여러 보였는데, 생각 외로 잘 자라는 걸 보면
강인한 꽃이 맞나보다.

5월초가 만나는 야생화 양지꽃. 몰랐던 걸
알게 되면 기쁘듯이 앞으로 뱀딸기보단
양지꽃이라 불러줘야겠다.



작고 약하지만 강인한 꽃

햇빛을 많이 받는 양지쪽 모퉁이에서 봄철에는 양지꽃이 노란 꽃을 가냘프게 피우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작고 약하게 생겼지만, 야생에서 자라는 꽃은 야생에 있을 때는 강인한 법이다. 길가, 자갈밭, 밭둑이나 산자락, 어디에서도 햇빛이 잘 드는 곳이면 강인하게 꽃대를 피워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작은 꽃 어디에서 그런 강한 힘이 솟아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글 사진 이명호
이명호의 야생화
<http://www.skyspace.pe.kr>



은양지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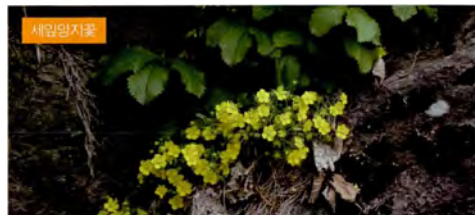
너도양지꽃



물양지꽃

햇빛을 좋아하는 꽃

양지꽃이란 원래 양지쪽에서 잘 자라는 꽃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들이 든 곳에서는 살기 어렵기 때문에, 숲이 우거진 곳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토양이나 양분, 일조차, 습도 등을 가리지 않고 햇빛이 잘 쏘이는 곳이면 어디든 자라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다. 매년 잘 깎아주는 묘지에서 유독 많이 보이는 것은 바로 햇빛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길가나 숲 가장자리, 마을 어귀 등 어디라도 하늘이 트인 공간에서는 어김없이 양지꽃이 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세잎양지꽃

곤충을 유혹하기 좋은 노란색의 꽃

봄꽃은 다른 색깔보다 유독 노란색의 꽃이 많다. 꽃들은 여러 색깔들로 곤충을 유혹하지만, 유독 노란색은 곤충의 시선을 많이 끄는 색이다. 노란색의 꽃은 나비나 벌의 눈에 쉽게 띄기 마련인데, 꽃들은 이런 작전으로 곤충을 유인하여 후손을 퍼뜨린다. 봄에 피는 노란 꽃은 곤충을 쉽게 불러들임과 동시에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를 발휘한다. 잔뜩 웅크렸던 겨울동안의 찬 기운을 노란 꽃으로 말끔히 씻어버리고, 따뜻하고 온화한 마음을 갖게 해준다. 새로운 출발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는 꽃이기도 하다.

양지꽃의 특징

햇빛이 잘 드는 무덤가나 산과 들의 양지바른 곳에서 잘 자라는 노란 양지꽃은 장미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 몸 전체에 긴 털이 있고 높이가 30~50cm이다. 잎자루가 길고 3~15개의 작은 잎으로 된 깃털겹잎이다. 3개의 정소엽은 크기가 비슷하며, 밑부분의 것은 점차 작아지고 넓은 도란형 또는 타원형이다. 잎의 길이는 1.5~5cm, 폭 1~3cm로서 양끝이 좁고 양면에 털이 있으며,

특히 맥 위에 털이 많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꽃은 줄기 끝의 취산꽃차례에서 10개 정도의 꽃송이가 땀혀 피는데 꽃다발처럼 보인다. 꽃잎과 꽃받침은 각각 5장이고 암술과 수술은 여러 개다. 열매는 난형이며 길이 1mm 정도로서 가는 주름살이 있다. 어린순은 나물로 먹는다. 한방에서는 식물체 전체를 약재로 쓰는데, 잎과 줄기는 위장의 소화력을 높이고, 뿌리는 피를 멈추게 하는 지혈제로 쓰인다.

양지꽃의 종류별 분류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양지꽃 종류는 대략 20여종에 달한다. 기본종인 양지꽃은 잎이 깃털겹잎이지만 세잎양지꽃은 긴 잎자루 끝에 작은 잎이 석장만 달리는 것이 특징이다. 바닷가의 양지에서 자라는 꽃은 온몸에 하얀 솜털이 뽀뽀 나있으며 잎이 깃털겹잎이지만, 백두산 지역의 고산에서 자라는 은양지꽃은 온몸에 흰 솜털이 밀생하고 잎이 3출겹잎인 점이 다르다. 작은 잎 가장자리에 톱니가 잘 발달해 있고 척박한 돌이나 바위틈에서 자라는 돌양지꽃이 있는가 하면, 제주에서 자라는 제주양지꽃은 포복지가 사방으로 퍼지고 털이 있으며 줄기가 자줏빛이다. 꽃줄기가 뿌리에서 나와서 길게 자라지 않고 약 10cm 정도로 곧게 올라와서 꽃을 대개 1개씩 피우는 나도양지꽃, 한라산과 백두산의 높은 곳에서 자라면서 가늘고 긴 작은잎이 3개씩 달리는 너도양지꽃은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다.

양지꽃 종류들은 대개 봄에 꽃이 피지만, 물양지꽃은 여름철에 산골짜기 냇가 근처에서 높이 70cm 정도로 곧게 자라면서 꽃을 피운다. 이름은 다르지만, 딱지꽃 종류와 개소시랑개비, 물사리풀, 가락지나물, 뱀딸기와 쫄매기 등도 모두 양지꽃 종류에 해당이 된다.

우리 야생식물의 보호

양지꽃 종류들은 양지바른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꽃이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훼손을 해서는 안 된다. 종류에 따라서는 아주 귀한 꽃들도 있기 때문이다. 야생화는 야생에서 자라야 제멋이 있고 강인한 법이다. 원예식물은 재배지에서 잘 길러줘야 하지만, 야생화는 자생지에서 제멋대로 자라야 품위가 있고 예쁘게 꽃이 피는 법이다. 야생화가 자생지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사람들은 한발 양보를 해야만 되겠다.



물양지꽃

정원을 즐기는 방법

정원디자이너와 함께 정원을 꾸며보자

정원 가꾸는 것을 즐긴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저 철이 바뀌면 꽃을 사다 놓고,
물을 주고 죽으면 다른 식물로
바꿔 심고 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일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정원의
정석(?)이 디자이너에겐 분명 보이리라 본다.
방치되어 있던 작은 화단이 어쩔 그리도
자연스럽게 연출되는지를 보면 말이다.
나무하나, 꽃 한송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디자이너의 역할인 것 같다.
5월엔 손바닥만한 정원이라도 자연스러움을
담아보자. 전문가의 손길을 따라가보자.

글 사진 서수현 가든디자이너



빌라 입구에 있는 버려진 화단. 주민들이 늘 곁에서 지켜보는 장소이지만 쓰레기장으로 사용되어버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게릴라 가드닝이란?

버려져 있는 황폐한 땅에 꽃씨를 뿌리거나 식물을 심어 정원을 만들어 주는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낙후된 도심의 곳곳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총대신 꽃을 들고 싸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식물로 도시를 밝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원 스타일은 어떤 것일까? 우선 정원이 어떤 이미지를 연상시키는지 물어보면 전통적인 한국의 정원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넓은 잔디밭과 소나무, 철쭉을 심은 화단의 형태나 텃밭을 말한다. 키우기도 쉽고 유지 및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계절 특성에 따라 이런 형태들이 굳어져 버렸다. 자신들의 정원을 새롭게 꾸며볼 기회를 갖더라도 늘 한결같은 디자인을 그린다. 특히 50대가 넘어 여유롭게 정원을 만들고 즐기는 연령층의 디자인은 바뀔 듯 하면서도 지금까지 보아왔던 고정관념의 틀을 깨기가 쉽지 않다.
식물을 너무 사랑해서 오랫동안 정원을 가져본 사람들은 많은 식물을 키워본 노하우가 있다. 그래서인지 정원디자이너가 만들어주는 정원보다 자신들이 만들어가는 재미를 느끼는 듯 하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식물을 모두다 가져다 놓은 것이 정원을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봄이 되어 꽃들이 고개를 내밀 때 화훼시장을 돌아보면 사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냥 지나치기에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하나 둘 사다 보면 집에는 각양각색의 식물들로 넘쳐난다. 한가지씩 보았을 때 너

무 예쁜 꽃들이 집안에 들어놓으면 집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 자칫 정글이 되어버리고 만다.

얼마 전 부천에서 '게릴라 가드닝'이 벌어졌다. 버려져 있는 황폐한 땅에 꽃씨를 뿌리거나 식물을 심어 정원을 만들어 주는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낙후된 도심의 곳곳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총대신 꽃을 들고 싸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식물로 도시를 밝게 만드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2004년 리처드 레이놀즈라는 한 청년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도시 속 작은 자연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다. 이번 게릴라 가드닝에는 한국공항공사와 부천시 그리고 '정원사친구들(그림디자인, 조경디자인이레, Lala)'이 연합하여 부천시 고강동 지역에 화단들을 탈바꿈 시켰다. 다른 게릴라 가드닝과는 달리 전문 정원 디자이너들이 참여해 전문가다운 면모를 보여 주었다. 한번으로 끝나는 정원이 아닌 지속적인 정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대상지마다 식물 수종을 다르게 해주는 장소와 시간 변화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졌다.



에 들여놓으면 집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 자칫 정글이 되어버리고 만다.

얼마 전 부천에서 '게릴라 가드닝'이 벌어졌다. 버려져 있는 황폐한 땅에 꽃씨를 뿌리거나 식물들을 심어 정원을 만들어 주는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낙후된 도심의 곳곳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총대신 꽃을 들고 싸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식물로 도시를 밝게 만드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2004년 리처드 레이놀즈라는 한 청년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도시 속 작은 자연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다. 이번 게릴라 가드닝에는 한국공항공사와 부천시 그리고 '정원사친구들(그림디자인, 조경디자인이레, Laa)'이 연합하여 부천시 고강동 지역에 화단들을 탈바꿈 시켰다. 다른 게릴라 가드닝과는 달리 전문 정원 디자이너들이 참여해 전문가다운 면모를 보여 주었다. 한번으로 끝나는 정원이 아닌 지속적인 정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대상지마다 식물 수종을 다르게 해주는 장소와 시간 변화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졌다.



식물을 심기 위해 땅을 고르던 중 발견한 돌과 베어져 버린 고목의 밑둥을 이용하여 스토리가 있는 정원 만들기. 감나무, 말채, 화살나무를 심고 그 사이사이 봄을 알리는 애니시아와 수선화로 노란색을 입혀 완성한 모습.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함께 꾸민 손바닥정원이 완성되었다. 쓰레기가 쌓여있던 곳이 보기 좋게 탈바꿈 하였다. 일반인들만 게릴라 가드닝을 구상해서 식재를 했다면 아마 자연스러운 모습보다는 일렬로 심어진 형태를 보게 되었을 것이다. 식물들 보기 좋게 심는 것도 방법이 있다.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파악하고 자연스러워 보이게 구도를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살아있는 생명체인 식물도 얼굴이 있다. 사람마다 얼굴 생김새가 다르고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더 예쁜 쪽과 덜한 쪽이 있다. 식물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쪽은 꽃이 더 많이 달려있거나 고개를 내밀고 있는 방향이 있다. 정원을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이런 것들을 정해 주어야 한다. 식물이 나를 보고 웃어주는 듯이 심어주어야 한다. 또한 그룹을 지어 모아 심어주거나 높낮이를 다르게 하여 리듬감을 갖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한 디자인 요소이다. 맥문동 같이 바닥에 가득 심어주거나 일년생 화려한 식물들 심어줄 때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줄지어 심는 것보다 지그재그 혹은 삼각형 구도로 심어준다. 멀리서 보았을 때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이 좋다.



서수현 기증디자인과 그림디자인의 '정원사친구들'이 전문가로 일반인들과 한 팀이 되어 디자인하는 방법 및 식물 식재 방법에 대한 설명 후 정원 시공을 하고 있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 같은 공간에 정원을 꾸밀 때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 그 정원의 모습이 달라진다. 보통 전문가를 고용하여 디자인을 한다는 것에 부담스러워 한다. 특히 식물 가격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고, 쓸데없는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아깝다고 생각한다. 물론 직접 만드는 것이 처음엔 더 쌀 수도 있다. 하지만 정원도 건축이나 인테리어와 같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처음에 구조를 잘 짜고 디자인을 잘해 놓으면 그 다음 비전문가 즉, 일반인들이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가구를 배치하고 소품을 가져다 놓는 것처럼 정원도 처음에 큰 틀을 잡고 식물들을 선정해 주면 그 다음 자신들이 키우고 싶고 좋아하는 식물들을 더 심어주면 된다. 크기가 큰 나무나 관목과 같은 식물들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옮겨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정원을 조성할 때 계획성 있게 심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고 자신들의 정원에 어울리는 식물이 어떤 것인지, 어떤 스타일의 디자인이 적당한지 알아보는 것이 자신만의 정원을 만드는 첫걸음이다. 아마 한번쯤은 식물을 키우다 실패하고 정원을 가꾸다가 포기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정원은 한 순간에 모든 것을 보여주는 공간이 될 수 없다. 시간이 필요하고 사람의 기다림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 정원을 만드는 것이 실제로는 더 절약적일 수 있다. 올해는 봄이 성큼성큼 빨리도 다가왔다. 벌써 벚꽃도 활짝 피고 개나리, 진달래 할 것 없이 뽐내고 있다. 우리 집 정원은 어떤가? 새로운 계획과 함께 정원으로 나가보자.

Gardenin

POINT

정원가꾸기의 정석

전문가에게 도움 받는 길이 더 경제적이다.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고 자신들의 정원에 어울리는 식물이 어떤 것인지, 어떤 스타일의 디자인이 적당한지 알아보자. 자신만의 정원을 만드는 첫걸음이다.

정원은 한 순간에 모든 것을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사람의 기다림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 정원을 만드는 것이 실제로는 더 절약적일 수 있다.

식물도 얼굴이 있다.

식물도 보기 좋게 심는 것도 방법이 있다.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고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구도를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쪽은 꽃이 더 많이 달려있거나 고개를 내밀고 있는 방향이 있다. 정원을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이런 것들을 정해주어야 한다. 식물이 나를 보고 웃어주는 듯이 심어주어야 한다. 모아 심어주거나 높낮이를 다르게 하여 리듬감도 볼 수 있다. 중요한 식물디자인의 요소이다.

자연스러워 보이는 정원은 것 같지만 정원디자이너와 정원사들이 관리 계획하면서 유지시켜오는 정원이다. 인간이 만들어 낸 정원의 공간에 아름다운 풍경을 유지하려면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가드닝 인테리어 정보

기발한 생각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의 탄생보다. 가드너가 되기 위해서
물건을 구입하기보다 물건이 예뻐서
구입 먼저 한 다음 가드닝에 도전해도 누가
 뭐라 하겠는가.

혹자는 그 기발한 생각 때문에 디자이너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발명가가 될 것이다.
정원관리를 위한 예쁘고 멋진 상품을 만나
정원관리의 재미를 가져보자.

글.사진 황주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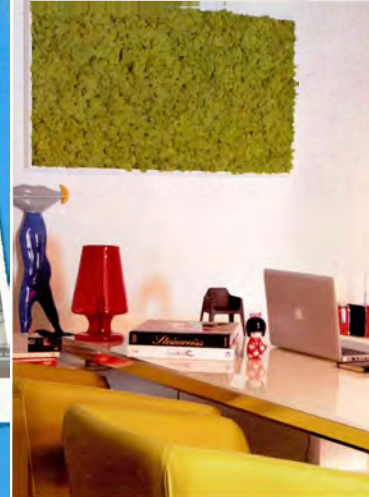
봄이 시작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오월의 봄바람이 살결을 간
질인다. 하지만 꽃가루 때문에 야외로 나가기가 머뭇거리려
다. 마음은 창밖의 잔디를 뒹굴고 있지만 몸은 실내에 고정되
어 있다면 '가드닝'의 자세를 잃게 된다. 본인만 손해이니 실
내에서부터라도 슬그머니 뽀뽀(Petit) 가드닝에 시동을 걸어보
자!

1. 빗물이 생성되는 생수병 뚜껑 (Rainmaker Watering Cap)

작은 식물 하나 키운다고 몸집이 큰 물 주전자를 집안에 놓고 사용
하기에는 공간만 차지하고 거주장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
다. 아무리 시중에 알록달록 예쁜 모양의 물 주전자가 많이 나와있
다 해도 실용적이고 공간 활용력이 좋은 게 실내 가드닝에는 단연
최고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흔히 구입하게 되는 작은 물병이나
탄산음료 병이 양증맞은 물 주전자로 변신한다면 어떤가? 물병 뚜
껑을 구름 모양의 'Rainmaker Watering Cap'으로 바꿔 끼우면 온
집안 식물들이 촉촉해 지는 건 내 뒤통이다.

2. 떠다니는 잔물결 물병(Floating Ripple Vases)

일본에서 제작된 호수의 잔물결을 형상화하는 떠다니는 물병은 투
명한 잔이나 통에 물을 넣고 납작한 이 물병을 띄워 놓으면 된다.
로맨틱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물 위에 떠다니는 양초도 함께 띄
우면 밤에도 아리따운 정원을 볼 수 있겠다. 용기를 달리하면 식물
이 서있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겠다.



3. 메디컬 클리닉

일본 디자이너 나옴야 마우모토는 병원에서 한
자뿐만 아니라 병원의 직원들을 위한 긴장완화
효과가 있는 공간을 디자인 했다. 1.3m 가량의
식물 박스들은 아래의 수납공간과 함께 실내인
테리어와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룬다. 오사카 우
메다지역을 시작으로 각종 병원뿐만 아니라 사
무실, 거실, 학교의 실내도 이런 풍경을 볼 수 있
는 날이 멀지 않은 미래에 있다.



4. 이끼액자 (Moss Frame)

내가 살고 있는 집 벽이 살아 숨을 쉰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이태리 회사인 베네티
스톤에서 제작한 이끼액자는 자연은 자연 그대로 예술이라는 것을 표현한 진정한 '살
아있는 예술'이다. 별도로 물을 주기보다는 가끔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면 그만이다. 누
가 식물이 땅에서만 자란다고 했나? 벽에서도 자랄 수 있다는 생각은 밖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어쩌면 필수불가결했던 창의성
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Creative'(창의성) 또한 21세기 가드닝이 가져야 할 필수
요건일 지도 모르겠다.

5. 친환경 정원 식탁 (Organic Garden Table)

사진만 봐서는 값 비싼 나무 재료와 각 칸 밑의 배수 시스템을
보게 되면 섣불리 지갑을 열기 쉽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20만원
안팎의 이 아름다운 테이블은 아이들과 둘러앉아 자연 관찰과
양쪽에 나와있는 공간을 이용하여 차 한잔을 나눌 수 있는 담
소의 공간도 제공한다. 그 동안 식물 손질이 허리가 아파서 뒷
전이 되었다면 이런 정말 희소식이다. 나뭇잎과 줄기를 야금
야금 파먹는 생물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높이로 제작된 이 테
이블은 약 30cm 정도 깊이의 칸으로 나뉘어 있어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식물에게도 적격이다. 아래에 배수관이 연결되어
있으니 한번에 해결 가능하다. 미국에서 제작된 제품이므로 한
국으로 주문했을 시 직접 제작해야 한다는 점은 염두해 두는
것이 좋겠다.

대자연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캐나다 정원의 속살까지 보여준 3월의 뷰차트가든

3월 갑자기 더운 봄이 시작되었다. 3월의 고온현상은 유례없는 3월 벚꽃을 보게 해 주었다.

3월 18일부터 26일까지 캐나다와 미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 일정을 조정해 빅토리아 섬 뷰차트가든을 방문하기로 했다. 자동차를 렌트해서 자유여행처럼 시골길과 작은 정원까지도 살피고 싶었다. 3월 20일 빅토리아 섬을 가기 위해 밴쿠버 노스버나비를 출발할 때는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다. 캐나다 서부지역과 미국의 서부지역의 봄은 우기에 해당한다. 때문에 거의 매일 하늘이 흐리고 비를 뿌리는 시기이다.

잔~, 역시 나는 여행에서 아주 행운이 있는 사람인가? 기적 같이 뷰차트의 하늘은 맑은 햇살이 이른 봄을 노래하고 있었다. 그리고 25일 마지막 돌아오는 날이 되어서야 다시 비를 뿌렸다. 참 기적과도 같은 날씨를 보여주었다.

뷰차트가든은 이번이 네 번째다. 그러나 이전의 3번의 방문은 정원이 가장 아름다운 5월에서 8월 사이에 방문했었다. 때문에 3월 중순의 아직 많은 싹이 나지 않은 상태로 어떻게? 하는 생각으로 방문한 뷰차트는 오히려 정원의 속살까지도 다 보여 주고 있었다. 배식의 형태는 물론 앞으로 자랄 식물의 싹을 보면서 앞으로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 의미가 더 큰 행운이 되었다. 정원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라면 지금 이 시기에도 한번쯤은 들러 식물의 배식이나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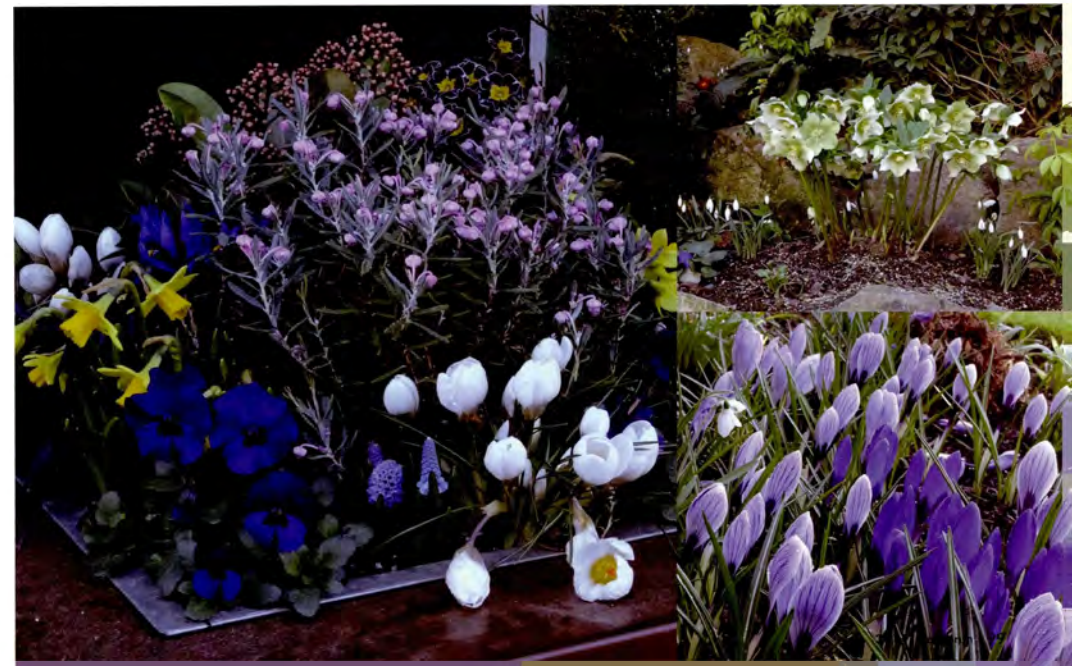


방법에 대한 팁을 얻어가는 것도 좋을 것이다.

역시 뷰차트는 입구의 간판 디자인의 매력, 10년이 지나도 항상 같은 느낌으로 들어온다. 선글라스와 함께 뷰차트의 트레이드마크인 샌이다.

곳곳에 설치된 화분 안에 꽃이 가득 피었다. 그 화분은 시기별로 꽃의 색을 바꾸어 피는데 원리는 온실에서 길러진 화분을 모양 화분에 바꾸어 설치하면 항상 가장 좋은 상태로 고객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쓰레기 통 위에 까지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세심함이 명품 뷰차트를 가능하게 하는지도 모른다. 이미 화분속의 콤비네이션은 색과 선 질감까지도 그 계절에 맞는 느낌이 강조되어 뷰차트의 시즌을 응원하고 있는 것이다. 뷰차트의 가장 아름다운 선글라스를 향하는 길목에 덩굴장미로 만든 울타리는 최근에 다시 식물을 교체한 것이다. 뷰차트식의 방식이다. 기본적인 틀은 바꾸지 않는 대신 매년 새로운 품종으로 교체를 한다는 것이다. 덩굴장미로 만들어진 동선을 따라 계절별로 피고 지는 이 길은 마치 매 계절이 한결 같은 최고의 경관을 표현한다. 각 계절을 대표하는 식물들로 혼성, 혼합한 배식에서 감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시즌은 무스카리 크로커스, 수선과, 튜립으로 시작해서 작약과 원추리, 디기탈리스로 초여름을 나고 후룩스와 국화로 넘어가는 그 계절감의 표현이 현재 이 땅속에서 잉태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15일쯤 후에는 물망초의 파란 바탕에 형형의 튜립과 히아신스의 황홀함이 이 가로를 수놓을 것이다. 때문에 뷰차트는 매 계절 다시 찾고 싶어지는 것이다.

뷰차트는 석탄광산을 개발한 것이다. 석탄을 캐고 난 황무지에 흙을 되메우고 조성해 석탄광산보다 더 좋은 마음의 양식을 캐내는



관광광산으로 탈바꿈시켜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긴 선구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선크가든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하경정원을 연출한 것인데 뷰차드를 대표하는 정원이다. 그러나 지금 시즌은 이제 막 준비되고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주로 바닥은 일년초로 카펫처럼 디자인된 이 정원은 그 선이 뚜렷해 사진의 초보자도 서터만 누르면 명품사진이 되는 곳이다. 물론



이 명품이 나오게 되는 것은 벽면과 기본 틀이 되는 수목의 배치 또한 한몫을 한다.

이 선크가든의 3월은 에리카의 계절이다. 에리카는 관목성의 식물로 겨울이 따뜻하고 공중습도가 높은 곳에서 매우 좋은 지피식물로 곱광 받는다. 북방식물로 여름이 시원한 곳이라야 그 생육이 좋다.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겨울 혹한과 여름의 고온 다습은 에리카를 국내에서 잘 볼 수 없게 만드는 한계적 일기를 가졌다.

매우 부러운 눈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내한성은 매우 강한 식물이다. 따라서 우리의 여름고온과 다습에 강한 품종을 찾는다면 어쩌면 가능성 있는 품목이라 할 것이다.

선크가든의 암석에 붙어 자라는 흰색, 분홍색, 파랑색의 에리카는 꽃이 없는 이 계절에 특징적으로 부각된다. 음악분수를 지나면 석탄을 실어날랐던 고철 차량을 이용한 화분도 그 역사성을 암시해 주



는 감동이다. 바람꽃이 지천으로 피어난 이곳은 여름이 되면 물레나 물 군락지로 바뀌어 노란 꽃망울을 터트린다.

또 2월부터 피어나는 크리스마스роз의 다양한 품종들이 뷰차드 전역에 심겨져 추운 봄의 화신으로 꽃을 피운다. 특히 구리 빛과 감장의 화색이 유난히 아름다운 꽃이다.

장미원의 계절은 아직 멀리 있는 듯 했다. 5월의 계절이 가장 아름다운 이곳은 지금 장미의 빨간 가시가 조금씩 새색을 피워 그 발톱을 숨기고 있다. 다만 땅을 덮어 피어난 무스카리와 크로커스 하양



과 보라의 색감이 참 깨끗하다. 이곳의 장미와 어우러진 디지털리스와 스위트피, 그리고 투구꽃들의 향연이 펼쳐질 오월을 기억하며 눈으로 그들을 더듬었다.

항상 아쉬운 정원 일본정원을 끝으로 뷰차드의 정원이 마무리되고 정형화된 연못의 수련은 아직 싹을 틔우지 않고 있다. 항상 감동하는 동선의 이동과 타고 여는 방법에 많은 감동을 받는다.

우리의 일반적인 방법처럼 “들어가지 마시오.” “잔디를 밟지 마시오.” “이곳엔 예쁜 꽃이 자라고 있어요.” 등 경고의 문구는 한군데도 볼 수 없다. 다만 동선을 열어두거나 닫거나 아름다운 경계를 두어 관람객들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관람을 유도하는 그들의 품격에 감탄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이 동선의 단음은 예쁜 화분을 이용한다. 그리고 더 세심한 배려는 의자를 두어 쉬어갈 수 있게도 하는 센스까지 아름답다.

뷰차드의 역사관을 지나오면 멧돼지의 청동 빛이 유난히 빛나는 곳등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의 가슴에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는지를 실감한다.

뷰차드를 나서서 이른 봄날의 짧은 해가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벌써 몇 번의 추억이 함께하고 우리의 아이들과 함께 해서 더 즐거운 하루였다.

빅토리아 섬은 길게 남북으로 형성되어 있다. 주 의회가 있는 다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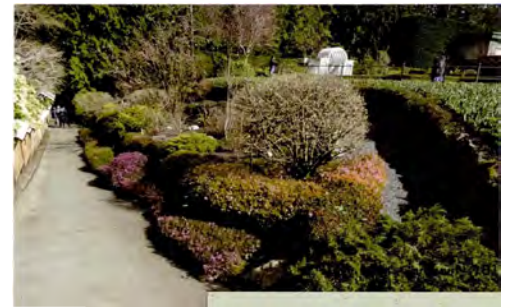
타운에서 약 15km떨어진 한적한 곳에 리조트형 호텔에 묵었는데 이곳은 한국인이 경영하는 곳이다. 방은 3개와 넓은 거실 그리고 주방까지 그리고 주인머드리의 친절함까지 더해 하루 약 70캐나다 달러이다. 일반 호텔보다 더 싼 가격에 맛있는 김치를 넣은 부대찌개까지 해결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나는 평소 차량을 렌트해서 여행하는 것을 즐기는데 유럽도 그렇지만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가족 룸을 좋아하고 즉석에서 신선한 고기와 생선요리를 하는 즐거움도 즐긴다. 마트에서 이들이 즐겨먹는 채소와 식재료를 고르고 느끼는 재미도 쓸쓸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일정이 아닌 경우 호텔을 미리 예약하지 않는 버릇도 생겼다. 자유스럽게 자연과 유물도 보고 공원이나 식물원 등 시간에 구애없이 없이 여행하다가 오후 4시쯤 그 지역에서 가까운 호텔을 예약하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나는 주로 이용하는 Booking.com을 이용하는데 당일 오후가 되면 많은 호텔의 방값이 할인되는 특가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다. 단 성수기나 국제회의의 등이 있는 기간에는 잘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사실 미국이나 캐나다는 역사가 짧은 나라이다. 때문에 유럽이나 동양의 깊은 역사적 유물은 별로 없다. 다만 대자연의 느낄 수 있는 힘이 이곳에 있다. 다음날 미국으로 가기 위해 선착장에 뱃시간 전 미리 나왔지만 아뵐싸, 내 앞에서 막막아서는 아슬한 시간은 두 시간만을 더 기다리게 했다. 미국을 여행하는 기간에도 정말 좋은 날씨와 많은 정원을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는 가로수와 많은 다양한 관목에 대한 시장조사도 겸하여 행복하고 아름다운 여행이었다는 것을 한국에 봄이 오면서 더욱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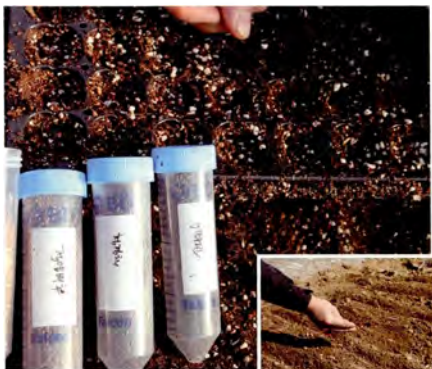


5월의 농사정보

농가메모	상/중순	중/하순
식량작물	• 어린모 기계이앙 못자리 설치 • 못자리 물관리 및 바람타기 — 평균기온이 15°C이상 3~4일 동안 계속될 때 비닐덮기 • 못자리 병해충 관리 — 모내기 날 육묘상자에 입제농약 처리 • 논보리 물별도랑 정비 • 콩, 참깨 파종 • 옥수수 파종(산간고랭지) 마무리 • 시설감자 환경관리	• 어린모 기계이앙 못자리 설치 • 못자리 병해충 관리 — 모내는 날 육묘상자에 입제농약 처리 — 적기 모내기 • 지역과 재배 유형별 적기 모내기 • 직파재배 파종 • 조생종 보리 수확(남부) • 옥수수 1차 웃거름 주기 • 콩 볏주기, 참깨 솟아주기 • 고구마 싹 심기(중/북부), 보리뒷그루 고구마 모판관리 • 시설감자 환경관리
원예작물	• 고추 아주심기(남부) • 마늘, 양파 비대기에 물주기 • 알짜기꾸기용 열매채소 아주심기 • 배, 복숭아 열매숙기 • 포도 눈따기 • 진딧물 등 화해류 병해충 방제 • 중구생산물 구근확해 포장관리	• 마늘 잎마름병 방제 • 각종 열매채소 손지르기 • 열매채소 반침대 설치 • 사과, 배, 복숭아 열매숙기 • 배, 복숭아 봉지씌우기 • 과수원 제초작업 • 포도 새순 관리 • 철화류 표준규격으로 출하 • 카네이션, 거베라 등 아주심기
농업기계 생활자원	• 트랙터 사용 중 점검 — 앞차축, 패달피벗 등 중요부 그리스 주입 — 브레이크 유격 및 작동상태 점검 • 유압 상/하 작동상태 점검 • 이앙기 사용 중 점검 — 공기청정기 세척 및 연료필터 청소 — 분리침, 식입포크 조정상태 확인 • 식부케이스 및 식부압의 유량점검 • 간장 달이기 • 가정원예도, 마을 진입로 및 궁터 꽃가꾸기	• 이앙기 사용 중 점검 — 공기청정기 세척 및 연료필터 청소 — 분리침, 식입포크 조정상태 확인 • 식부케이스 및 식부압의 유량점검 • 트랙터 점검 — 브레이크 유격 및 작동상태 점검 — 유압 상/하 작동상태 점검 • 정화조 청소하기 • 오이, 양파 초점인 만들기 • 피로회복 체조의 생활화

핵심사항

- 모종심기: 고추, 토마토, 오이, 호박, 옥수수, 콩, 고구마
- 씨뿌리기: 들깨 참깨
- 완두콩 수확하기, 마늘밭 양파밭 웃거름 주고 물주기
- 과수 열매숙기: 사과, 배, 복숭아 등



≫ 종자파종



≫ 텃밭 관리에 필요한 농기구를 살피고 있다



≫ 고추 모종을 옮겨 심고 있다



≫ 텃밭을 갈아 이랑을 만든 모습



≫ 흰 비닐 멀칭

분양받은 텃밭에서 자라는 초록의 힐링채소

5월, 도시농부의 텃밭에선 무슨 일이~~

—종목선택, 관리방법

올해 처음으로 텃밭을 분양받았다면 '무엇을 심어야 할까?', '어떻게 심어야 할까'하는 생각으로 고민보따리가 커질 것이다. 인터넷을 찾아보다거나 주변의 농사를 지어본 사람에게 물어보다거나, 교육을 받는다면 책을 찾아보는 등 나름 농사준비를 하느라 바쁘다. 얼마 안되는 텃밭이지만 계획을 세워 부지런히 농사짓는다면 4월부터 1월까지 초록의 채소로 늘 수확하는 즐거움과 심는 재미가 함께 하리라 본다. 더불어 감사하는 마음과 농사를 자연이 주는 것들에 소중함을 알게 되리라 본다.

글정리 기든인원집부

보통 분양받은 텃밭은 골मे 떨어져 있는 땅이다. 구획을 나눠 심을 계획을 세워야 한다. 뭘 심어야 할지, 종자로 심어야 할지, 모종으로 심어야 할지, 가족이 좋아하는 채소, 관리하기 쉬운 채소, 수확이 많이 나오는 채소 등을 살펴봐야 한다. 처음엔 열심히 하다가도 수확량이 없으면 흐지부지해진다. 따라서 월별로 수확할 수 있게 파종계획을 세우면 갈때마다 수확하는 재미가 쏠쏠하리라 본다.

종자나 모종은 깊이를 조절해서 심어야 된다. 씨로 심을 것과 모종을 사다가 심을 것 등을 나누면 한결 쉽게 알뜰하게 심을 수 있다. 상추같은 엽채류는 줄뿌림이 좋고, 부추 콩 등은 점뿌림을 이용한다. 깊이는 종자의 2~3배 복토하고 미세종자나 광발아종자는 복토하지 않거나 얇게 복토하는 것이 좋다.

5월에 씨뿌리기와 모종심기

- 모종심기: 고추, 토마토, 오이, 호박, 가지, 땅콩, 수박, 참외, 옥수수, 콩, 고구마
- 씨뿌리기: 들깨, 참깨, 찰수수, 결명자, 조, 갯근동부, 열갈이배추, 열무
- 완두콩 수확하기, 마늘밭 양파밭 웃거름 주고 물주기

5월에 재배할 채소목록 날짜별로 알아보기				
3~6	10~11	17~18	24~25	31~1
				동부
열갈이배추, 열무, 옥수수, 오이				
참깨				들깨모종심기
토마토, 오이, 고추, 옥수수			고구마	
가지, 땅콩, 참외, 수박				
				참깨

직파

모종

들깨와 참깨, 갯근동부 등은 씨뿌리기에 들어가고, 고추, 토마토, 오이, 가지, 호박, 옥수수, 콩, 고구마 등은 모종을 본격적으로 심어야 한다. 크기에 따라 지지대를 세워주는 등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

고추는 4인 가족이 1년 정도 먹으려면 말린고추로 20~30kg을 수확해야 한다. 하지만 작은 텃밭에서는 수확물이 안나오므로 몇 모종 사서 풋고추 먹는 용으로 심어야 한다. 붉은고추는 바로바로 수확해서 바로 말리면 된다.

토마토, 오이, 호박, 옥수수는 몇 모종만 심으면 절리도록 따먹을 수 있다. 노저의 텃밭에서 자라는 열매채소는 병충해와 청마 등만 잘 피하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된다. 고구마는 텃밭의 양 고랭지에 고구마를 심으면 재배 먹을 수 있는 양이 된다. 열한 고구마를 심고 데워서 동절에 무쳐먹으면 맛있다. 콩을 밭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정도만 알았다 생각하고 밭 둘레에 심으면 된다. 어느 정도 크면 지지대를 해줘야 한다.

도시텃밭, 삶을 치유한다.

작은 텃밭에 가꾸는 여러 가지 채소는 직접 키워 안전한 먹거리를 얻는 감사함과 작물을 재배하면서 돌보고, 관찰하는 등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한다. 잘 할 수 있도록 때때로 공급해 줘야 하는 것들(병충해, 거름, 물도 행거아하고 잡초도 제거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들은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준다. 더불어 수확은 그동안 애쓴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이다.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동물을 키우며 위로를 받듯, 식물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식물도 키우면서 위로를 받는다. 텃밭에 작물을 재배하는 것도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늘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식물들을 대하는

텃밭관리 노하우

- 모종을 정식하기 전에 밑거름을 준다.
- 모종은 사리가 끝나서 시기인 5월에 한다.
- 열매채소는 외줄재배, 엽채류는 두둑을 만들어 심는 방법이 좋다.
- 비닐멀칭을 하면 지온상승과 습기유지, 잡초억제에 좋다.
- 투명비닐(백색비닐)은 발아율을 높이고 조기 수확하는 데 효과적이다.
- 작물마다 재식거리(간격)가 있다. (상추, 치커리 등의 엽채류는 20×20cm, 고추 90×40cm, 토마토 35×40cm, 감자콩, 완두콩 70×30cm)



좋은 작물을 선택하는 법

웃거름이 없고 줄기가 곧은 것
마디가 짧고 잎이 두꺼운 것
병충해가 없고 노화되지 않은 모종
잔뿌리가 잘 발달한 모
과채류의 경우엔 꽃이 1~2개 피어있고, 꽃이 크며
꽃눈이 많은 모

5월을 맞이하기 위한 화단관리

화단관리, 꼭 필요할까.

화단에 심어놓은 꽃들이 싹을 올리고 꽃을 피워내고 있다.
5월을 준비하며 4월을 지내는 가든인 독자분들도 바쁘게 화단을 가꾸며 예쁜 정원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을 것이다. 목은대를 잘라주고 죽은 식물은 새로 장만한 식물로 바꾸고, 벌써 올라온 잡초를 제거하기에도 시간은 짧지만 할 것이다. 멋진 화단을 한해만 보면 관리가 뭐 필요하겠는가?
애써 가꾼 화단을 매년 보려면 관리가 당연하다.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날로 멋진 화단으로 거듭나고, 그 반대라면 야생과 뭐가 다르겠는가?
봄을 기다려온 가드너는 가꾸고 즐기느라 즐겁고 기운날 일이다. 가든인에서도 가든인 정원에서 하는 화단관리를 소개한다.

초화류관리-평의이름만추 관리

올라오는 새순이 꽃송이처럼 예쁘게 올라온다. 정원이 커서 톱으로 목은대를 자른다면 모를까 일일이 하나하나 목은대를 잘라줘야 예쁘고 가려진 순이 올라오는데 무리가 없다. 줄기 끝에 작은꽃송이가 퍼지듯 피어나는 큰평의이름만추는 꽃은 작지만 뭉쳐피는 꽃의 색이 아름답다.



작점 가위로 하나하나 잘라낼 경우엔 세심함이 있어야 한다



순이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자르는 모습



손으로 정리한 모습



기계로 잡았을 땐 목은대가 갑작스럽게 나와있다.

생울타리 관리

정원이 크면 생울타리는 있게 마련이다. 보통 6월에 한번 쳐내면 10월에 우거진 손을 다시 잘라줄 때 편리하다. 죽은 가지를 정리도 하고 새순이 나왔을 때 멋스럽게 하기 위해서라도 생울타리는 잘라주는 게 좋다. 한번 하려면 8월에 하는 게 좋다. 범위가 크다면 자르는 전용도구로 잘라주고, 작은 울타리나 관리하는 맛을 느끼려면 전용가위로 잘라준다.



생울타리 관리



생울타리 측면자르기



울타리윗면자르기



생울타리 자른 모습

정원용 복숭아나무 관리

다홍색의 화사한 꽃을 피우는 복숭아나무는 부러지거나 병충해피해를 입으면 끈적 끈적한 액체가 주변에 나와 있다. 이런 가지는 정리해주는 것이 좋다. 정리한 가지는 2차 피해가 없도록 잘 버려야 한다.



복숭아나무 전지 3



복숭아나무

목은 그라스류 관리

갈대류는 목은대를 20cm를 남기고 잘라내면 된다. 잘라주지 않으면 새순이 올라오는 데도 힘들고 예쁘지 않게 올라온다.



목은 액새



목은 액새 자른 모습

새순관리, 청소

여기저기 새 순이 많이도 올라왔다. 다치지 않게 해주고 주변을 정리해 예쁘게 자라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정리한 가지나 목은대는 화단주변에서 치워주도록 한다.



지난해의 말라붙은 꽃대를 도구없이 손으로 끊어 정리하고 있다



새순



블루세덤



청동세덤순

은행나무-천년의 세월을 살아온 장수의 나무

접목을 하면 관상수로 더 인기라오~~

천년 이상을 산다는 은행나무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왔다.

시골 동네에 몇 백 년 산 은행나무를 만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장수라는 꽃말이 붙은 것을 보면

정말 오래사나보다. 용문사, 강화도, 남산 등에 있는 은행나무는

전설과 함께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추억을 만들어준다.

살아있는 화석이라 칭할만큼 지구의 역사, 우리의 역사를 오롯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은행나무는 쓰임새가 많다.

관상용, 과실수, 한약재, 화장품제 등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나무다. 도시의 대기오염을 줄여주고

가로수로도 훌륭하다.

번식

씨앗으로부터 나온 실생묘를 대목으로 여기에 형질이 좋은 품종을 접수로 붙여 접목한다.

은행을 수확할 목적이라면 필히 접을 붙여야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시기는 4월, 물이 오르기 시작하는 봄철에 한다.

접목방법

양접(楊接, field grafting): 대목을 뿌리채 뽑아서 하는 접목으로 옮겨 심은 뒤에 접목하기도 한다. 들접이라고 한다.

거접(據接, field grafting): 심어져 있는 상황에서 하는 접목방법이다. 접을 붙이는 높이에 따라서 고접과 저접으로 나뉜다. 대목을 파내지 않고 포장(圃場) 상태에서 접목을 해 제자리접이라고도 한다. 접이 붙기 어려운 밤나무나 감나무 등에 실시한다. 편자리접에 대응하는 말이다.

저접묘와 고접묘 차이점

저접묘: 저접묘는 실생 2~3년생 대목의 하단에 접을 하는 방법을 저접묘라 한다. 대량 생산에 쓰인다.

고접묘: 고접묘는 4~5년이 되어 1.2m 높이에 접을 하는 방법이다. 특별한 장소와 용도에 하는 접목으로 산악지대에 응용한다. 고접묘의 장점은 지주를 당장 세우지 않아도 관리가 용이하다. 실생 은행나무가 4~5년 자라 곧은나무에 접을 하기 때문이다.

고접묘는 3~4년 동안 가지가 양갈래로 뻗어나가는 경향이 있다. 자라는 정도에 따라 20~30cm정도 잘라 주면 가지가 바람에 부러지지 않아 좋은 수형을 유지할 수 있다.

접목재료



접목방법이 좋은 점

- 열매가 많이 열린다.
- 관상가치가 높아진다.
- 병충해 저항성이 커진다.
- 나쁜 환경에 잘 적응한다.
- 결실이 떨어지거나 안되는 나무에 결실을 맺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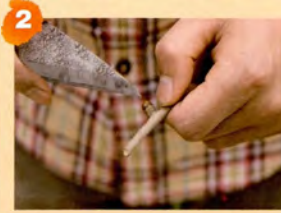
STEP BY STEP

은행나무 접목

Ginkgo biloba



1 접목할 대목을 쪼갬다



2 눈이 있는 접목(원하는 품종)을 눈 한두개 남기고 잘라준다



3 꽃기위해 한쪽을 깊게 깎고 반대쪽은 짧게 깎아 접수를 준비한다



4 대목과 접수의 부름커를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5 접수를 꽃은 상태



6 비닐밴드를 힘껏 당겨서 테이핑해 준다



7 접수의 끝부분에 솜뎀을 발라준다.



8 접목완성



9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물에 담가 건조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대목과 접수목이 있다. 대목은 실생묘(3~4년)에 접을 붙이는 방법으로 생육을 시작했거나 하기 시작할 때 접을 붙인다. 접수목은 2~3주 전에 채취하여 낮은 온도에 보관하여 관리하고 휴면을 유지하도록 한다.

Q&A

Your questions

5월은 텃밭에 갖가지 채소를 심습니다. 또 옮겨심기를 한 채소들이 뿌리를 내리고 왕성하게 성장합니다. 채소를 재배하다보면 식물생태, 재배법, 병, 병충해예방법, 농약살포시기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시들시들하다거나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누구한테 물어보냐'하며 주변사람을 탐색하게 됩니다. 이렇게 식물을 키우다 궁금한 것이 생기면 저지 가든인에 물어보세요.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상담 소장으로서 계시는 유봉수 소장님께서 친절하게 질문에 답해드립니다. 이번 호에도 살림에 보탬이 되는 해결책이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유봉수 소장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장

Q2. 참들깨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재배방법 좀 알려주세요.

A 아마도 들깨의 싹종인 듯 싶습니다. 슈퍼참들깨처럼 말입니다. 들깨는 오메가3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참깨 다음으로 많이 심는 유지작물입니다. 슈퍼참들깨를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슈퍼참들깨는 6월상순경에 파종해서 6월하순~7월상순에 정식을 하게 되는데 심는 거리는 50cm×50cm로 하여 반드시 한구에 1주를 심습니다. 밑거름은 질소보다 인산비료나 가리비료를 많이 주어야 합니다. 배수가 잘되는 곳에 심는 것이 좋으며 어느 정도 자라면 순지르기를 한 후 질소와 가리가 들어있는 복합비료(N-K)를 주비로 주어야 합니다. 가지 수가 많이 나올 뿐 아니라 화방군이 30~40개 이상 나와 일반들깨보다 수량이 현저하게 많습니다. 줄기직경이 4~5cm로 굵어 두 개 이상 심을 시 도복이 우려되므로 반드시 한 포기씩 심는 것이 좋습니다.



Q3. 여주종자는 발아가 잘 안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발아가 잘 되나요?

A 여주종자는 겉껍질이 두껍고 단단해 보편적으로 발아가 잘 안 되는 종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균일한 발아를 위해 종자 끝에 칼집을 낸 후 미지근한 물(섭씨 23℃)에 약 2시간정도 담갔다 파종해야 균일하게 발아가 됩니다. 여주는 각종 미네랄 성분과 비타민 C가 풍부해 당뇨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요즘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여주는 마디마다 착과가 잘되며, 열매크기는 25~30cm 정도입니다. 덩굴성이며 고온다습도에 비교적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하지만 온도가 낮거나 일조량, 양분 부족시 기형과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부지방에서는 4월 중순경이 파종적기이며 원줄기가 나오면 순을 위로 올려가꾸다가 본엽 10매가 나오면 적심해서 겉가지를 유인하여 열매를 착과시키면 될 것입니다.



Q1.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고추품종과 노지에서 재배하는 고추 품종이 다르다는 데 정말인가요?

A 물론입니다. 노지재배용을 시설에서 재배하면 키가 커지고 꽃이 수정이 안돼 낙화가 심하여 수량이 떨어지게 되지만 하우스용은 고온에 서도 수정이 잘되며 마디가 짧고 키가 크지 않은 편이며, 잎도 작고 두껍습니다.



Q4. 노각이란 오이 품종을 심고 심는데 언제 심는 것이 좋은가요?

A 노각이란 늦은 오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파종시기는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하여 4월 중순경입니다. 파종시기는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하여 4월 중순경입니다. 노각은 재배기간이 긴 작물이므로 반드시 대비재배를 하여야 다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친 건조나 고온 일조부족시 기형과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이는 습기를 좋아하지만 환기가 통풍 불량시 병충해 발생이 다른 작물에 비해 매우 심한 편입니다.



Q5. 고향에 갔더니 어머니께서 아로니아가 수확성이 좋다고 재배하고 싶다고 묘목을 구입해 달라고 하는데 선생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아로니아 일명 블랙초코베리는 원산지가 북아메리카(미국, 캐나다) 동부지역으로 열매와 잎이 인디언들의 민속약제로 사용되어 왔던 식물입니다. 인디언들이 이동을 하면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거쳐 유럽으로 전파되었다고 알려진 식물입니다. 추위에 매우 강하고 척박지에서도 비교적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장미과의 낙엽활엽수로 4~5월에 꽃이 피고 8~9월이면 까맣게 익는데 작은 열매를 송이째 수확한다. 한그루당 생과로 10kg까지 수확할 수 있으며, 주로 생과나 약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묘목은 삼목과 실생묘가 있는데, 실생묘보다는 삼목묘가 좋다. 삼목묘가격은 특묘기준 한 주당 약 5,000원정도면 구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Q6. 돌나물을 화분에 가꾸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A 돌나물은 야생에서 자라는 다년생 다육식물로 돌에서 잘 자란다고 하여 돌나물이라 부릅니다. 비타민 C와 인산이 풍부하며 새콤하면서 신맛이 나 입맛을 돋우는 봄나물을 대표하는 웰빙채소입니다. 줄기는 땅표면을 따라 옆으로 뻗어나가며 각 마디에서 뿌리를 내려서 번식하는 반포복성 식물로 5~6월에 줄기 끝에 별모양의 노랑색의 꽃이 핀다. 몸속에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가뭄을 견뎌내는 힘이 강하며, 뜨거운 햇볕에도 비교적 잘 견디는 식물입니다. 번식은 마디를 3~4cm로 잘라 화분 위에 올려놓고 흙을 덮은 후 물을 주게 되면 마디에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게 됩니다. 싹이 트면 물 수 있는 한 건조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 Answer

Q7. 찰옥수수종자 구입과 재배방법을 알려주세요.

A 우리나라 찰옥수수종자는 민간업체 또는 지자체에서 육성하여 보급하고 있는데, 이전에서는 연봉1호, 연봉2호를 강원도 기술원에서 만들어진 일미찰, 열룩찰1호, 흑진주찰 미백2호, 미흑찰 흑점2호 등이 있습니다. 또 각종 종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찰옥4호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씨앗을 파는 가게에서 구입이 가능한 하나 특수품종은 지역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구입하시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옥수수는 온도가 높고 일조량이 많으며 배수가 좋은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파종 시기는 중부지방 기준으로 5월 중순경입니다. 수확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일찍 심는 농가들이 많은데, 옥수수를 저온에서 기르면 일찍부터 겉가지가 많이 나오고 마디마다 이삭이 형성되어 일일이 따주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포트(72공, 128공)에 옥묘(옥묘일수 15~20일, 본잎 2~3매 크기 10~15cm)하여 심어도 되고, 종자를 직접 파종해도 됩니다. 심는 거리는 이랑너비 70cm에 포기사이 25~30cm로 심는 것이 좋습니다. 찰옥수수는 육묘기간이 길어지면 생육이 불량하고 키가 크지 않으며 수염이 늦게 나와 상품성이 떨어지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밭이 비옥한 토양에서 착립이 잘되므로 척박한 토양은 유기물과 비료를 더 사용해야 합니다. 1차 추비는 본잎 6~7 잎기에 주고, 2차 추비는 옥수수 끝에 수꽃이 나올 무렵 주시면 됩니다. 수확 시기는 수염이 나온 후 25일경입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꽃축제

5월, 길따라 꽃따라 축제가 이어지네

태안튤립&백합축제

꽃과 바다 그리고 그리움이 있는 곳, 태안에서 올해는 아름다운 꽃 튤립과 향기 좋은 꽃 백합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기간: 2014년 4월 19(일)~5월 18(일) 30일간
장소: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 168-3번지 일원, 네이처월드
개장시간: 09:00~18:00
입장가능시간 09:00~17:00
금액: 일반 9,000원, 단체 및 할인 7,000원 청소년단체할인 6,000원
주화중: 튤립, 유채, 페튜니아, 메리골드
문의전화: 041) 675-7881, 9200
주소: 충남 태안군 남면 마검포길 200(신온리 168-3)
네비검색: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 168-3 또는 마검포해수욕장



길따라 꽃따라 축제가 이어진다.
아름답게 피어나는 계절 봄, 그 중 5월은 신록의 싱그러움과 함께 꽃들이 화려함으로 채색된다. 소박하게 피는 초록과 달리 5월은 화려하다. 초록과 어울려 그 색은 더 짙어만 간다.
도시마다 축제가 한창이니 한번은 가야되지 않을까?
이상 기후 탓으로 벚꽃구경을 놓쳤다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꽃나들이를 계획해보자.
(황금연휴지 않는가!) 아직 봄은 끝나지 않았고, 축제도 끝나지 않았으니 말이다.
어디로 갈지 망설이지 말자. 가까운 곳으로 떠나면 된다. 후루룩 날아가 버린 꽃잎에 서운해 하지 말고, 정성들여 만들어놓은 축제장에서 꽃향기에 취하고 꽃색에 놀라보자.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추억이 될 것이니...
세계의 품격있는 꽃을 감상하고 다양한 주제관을 둘러보고 싶으면 고양국제꽃박람회를, 원색의 꽃과 향기에 취하고 싶다면 태안튤립&백합축제를, 신이 좋고 철쭉이 좋으면 가까운 곳을 찾아 떠나보자. 예쁘지 않는 꽃은 없다 하니 5월에 꽃에 빠져보자.

2014 고양국제꽃박람회(4월 25일~5월 11일까지)

“100만 시민이 창조하는 600년 고양의 신한류 꽃축제”를 주제로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고양시 호수공원에서 “2014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열린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고양국제꽃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한 국내외 화훼인의 관심은 어느 해보다 뜨겁다. 이미 네덜란드, 독일, 노르웨이, 러시아, 대만 등 20개국 국가관이 참가를 확정하였으며, 미국 마우이카운티, 칠레 이후라예, 중국 쿤밍 등 고양시 우호교류도시도 참가하여 각국의 대표 화훼류 전시와 다양한 전통문화를 선보이게 된다.
또한 일본 IFEX, 대만 TFEA 등 해외 8개 권위 있는 화훼관련 기관·단체에서의 후원도 이어져 꽃박람회의 위상을 드높이게 될 거라 협회측의 다짐이 굳다. 해외 35개국 120개 업체, 국내 200개 업체가 참가하여 세계 화훼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교류하는 화훼 비즈니스의 중심이 될 “월드 플라워링”에서는 지난 2013년 행사에서 꽃박람회와 MOU를 맺은 인도네시아 보고르 식물원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수급한 희귀식물과 전국농업기술원에서 우리 기술로 탄생한 170 여개 화훼신상품도 전시되어 꽃박람회를 빛낼 준비를 완료했다.
대한민국과 전세계인을 감동시킬 최고의 꽃 축제를 향한 힘찬 발걸음도 경쾌하게 내딛고 있다. K-POP, 한식, 드라마, 스포츠 등 세계인을 매혹시키는 신한류 키워드를 입체적인 꽃 조경으로 만날 수 있는 ‘고양 신한류 정원’, 시원한 호수 위 아름다운 5개의 작은 꽃섬에서 펼쳐지는 부유정원 ‘아쿠아플라워가든’, 생명의 결실 ‘박터널’, 자연생태정원으로 이어지는 ‘모하스플라워터널’, 꽃향기 속에서 치유의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에코힐링가든’ 등 호수공원을 수놓을 다양한 테마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조경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온실설치, 화훼 식재 등 세부 실행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생활 속에서 꽃에 대한 친밀감을 불어넣고 나아가 국내 화훼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꽃박람회 시도는 올해도 계속된다고 한다.
새로운 정원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산림청과 함께 ‘2014 코리아 가든쇼’를 개최하여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18개의 정원을 호수변을 따라 조성하게 되며, 실생활에 직접 응용할 수 있는 플라워 데몬스트레이션 가든과 도시 농업 가든도 있다하니 다른 축제보다 볼거리가 풍성하다.



기간: 2014년 4월 25(일) ~ 5월 11(일), 17일간
평일 09:00~19:00/주말, 공휴일 08:30~20:00
장소: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행사규모: 호수교 ↔ 잠미원 입구 (150,000㎡)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596(정향동)
문의: 031) 908-7750~4
홈페이지: www.flower.co.kr

군포철쭉제

기간: 2014년 5월 1일~5일까지
장소: 철쭉동산, 시민체육광장, 중심상가
문의전화: 031-390-3528
주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철쭉동산, 양지공원 등 그 일대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99(산본동)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내 축제사무국



2014년 제14회 구리한강유채꽃축제

일정: 2014년 5월 9일~5월 11일까지
장소: 구리한강시민공원(구리시 토평동 883-2)
문의전화: 031-557-1010
주소: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고려산진달래축제

고려산 가득히 펼쳐진 진분홍빛의 향연을 가슴 가득히 느낄 수 있는 축제에 사진전과 등산로에서 열리는 작은음악회 등을 즐길 수 있다.

기간: 2014년 4월 19일~5월 1일까지
장소: 강화군 교인들광장과 고려산일원
문의전화: 032-930-3621~3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대로 394번 산행코스
1코스(백련사방향)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16-1
2코스(청련사방향)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599-2
3코스(적석사방향)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253
4코스(고비개방향)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산

145-1
5코스(미꾸라지고개방향) 강화군 하점면 망월리 371-1
홈페이지: www.ganghwa.incheon.kr/open_content/festival/azalea/introduce.jsp

제17회 비슬산참꽃문화제

해발 1,084m의 장중한 산세를 지닌 비슬산에서 해마다 늦은 봄이면 100만㎡의 참꽃군락지에서 아름다운 참꽃이 흐드러지게 핀다.

기간: 2014년 4월 26일~5월 1일까지
장소: 비슬산 자연유양림 일원
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유양림길 230(용리 산 10)
문의전화: 053-715-1283~5
홈페이지: www.biseul.kr

제24회 제암산철쭉제

제암산(帝岩山-807m)은 호남 정맥의 한 줄기로 서남해를 품어 안은 산이다. 장흥읍의 북동쪽에 위치하여 보성군과 경계를 이루면서 완만한 능선과 기암괴석이 조화를 이루어 다양한 등산로, 다양한 산아초가 소나무와 철쭉이 자생하여 산을 즐기며 아끼는 산악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홈페이지: www.gunpo festival.or.kr
기간: 2014. 5. 11(일)
장소: 장흥군 제암산 일원
주소: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 산 28
문의전화: 061-860-0374

제4회 곡성세계장미축제



천만송이 세계명품장미, 그 향기 속으로

기간: 2014년 5월 23일~6월 1일 10일간
장소: 섬진강기차마을
주소: 전남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32오지리 770-5
문의: 문화과 061-360-8252

단양소백산철쭉제(32회)



기간: 2014년 5월 29일~6월 1일까지 4일간
장소: 단양군 일원(단양 남한강변/소백산)
주소: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 1로 10(별곡리)
문의전화: 043-422-3011

제11회 고창청보리밭축제

청보리밭, 그 이야기 속으로...



기간: 2014년 4월 19(토)~5. 11(일) 23일간
장소: 고창군 공음면 학원관광농장 일원
주소: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학원농장길 158-6(네비목적자: 선동초등학교)
내용: 개막행사, 공연문화행사, 체험행사, 상설전시, 부대행사, 연계행사

제5회 곤드레산나물축제



기간: 2014년 5월 16일~19일까지 4일간
장소: 정선읍 봉암리 정선공설운동장 일원
문의전화: 033) 563-1151
주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암리 349-42

가든조아 정원문화체험에 초대합니다

가든조아 정원



정원문화 프로그램



씨앗친구 만나기 / 공룡알DIY / 소망화분(백합구근) / 가족화분 만들기

정원문화체험 현장



우리꽃 가든조아: 이천시 모가면 송곡리 696번지 / TEL: 031-634-7990 / FAX: 031-634-7991
* www.gardenjoa.com * blog.naver.com/gardenjoa777 * 정원문화체험 담당자: 양지선

정원문화체험 현장



가든조아 텃밭



프로그램 안내

- * 가든조아의 정원문화체험 프로그램은 개인/단체에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 * 어린이 / 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노인 / 가족 등 연령대별로 가능합니다.
- * 1회 진행하는 단기 프로그램과 치유 중심의 장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 계절과 날씨에 맞추어 진행합니다 (행사 / 이벤트 출장 가능)
- * 사용하는 식물과 기타 재료에 따라 가격은 변동됩니다 (우리꽃 농장에서 직접 재배)
- * 야생화 공원과 가든센터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 * 체험안내 및 문의는 전화 또는 블로그 및 직접방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꽃 가든조아: 이천시 모가면 송곡리 696번지 / TEL: 031-634-7990 / FAX: 031-634-7991
* www.gardenjoa.com * blog.naver.com/gardenjoa777 * 정원문화체험 담당자: 양지선

2014 초화, 야생화, 채소종자 TOP 11



꽃이 저도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에키나세아
솔방울 이삭이 아름다워 절화로 좋습니다. 다년생으로 매년 만나볼 수 있는 분홍 에키나세아
■ 초장 : 60~70cm, 파종 : 3~4월, 개화 : 6~8월, 5g : 3,000 원



바람에 날아가는 나비 같은 풍첩초
꽃 피기전 실타래모양으로 꽃술을 꽃잎에 싸고 개화하면서 풀어놓는 모습이 아름답다.
■ 초장 : 60~70cm, 파종 : 3~7월, 개화 : 6~10월, 5g : 1,500 원



매우 화려하여 축제에 많이 이용되는 양귀비!
귀하의 집앞에 축제를 재현해보세요. 추파용 종자로 가을에 씨앗을 뿌려야 다음 해에 크고 건강한 양귀비꽃이 개화됩니다.
■ 초장 : 70~100cm, 파종 : 10~11월 초, 개화 : 5~6월, 5g : 3,000 원



빠르게 꽃을 피워내는 코스모스 빅스타사계!
파종 후 60일후에 개화되어 작고 귀여운 코스모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초장 : 60~80cm, 파종 : 3~7월초, 개화 : 6~10월, 5g : 3,000 원



식이성유가 풍부해 다이어트에 좋은 브로콜리!
식이성유 뿐만 아니라 비타민C도 풍부하여 피부관리에 탁월합니다. 실내보다는 실외 재배가 좋습니다.
■ 파종 : 3월 또는 7월, 15~20°C로 관리, 장마철 주의, 10립 : 1,000 원



눈 건강에 가장 좋은 채소 근대!
뿐만 아니라 골다공증예방 및 항암효과에 탁월합니다. 초보자가 기르기 쉽습니다.
■ 파종 : 3월, 이식 : 4월, 수확 : 6~11월, 1g : 2,000 원



금연 도움을 주는 케일
니코틴 제거 효과가 뛰어나 금연 계획을 세우신 분에게 매우 좋습니다. 호냉성 채소로 추위를 잘 견디 겨울까지 실외 재배가 가능합니다.
■ 20립 : 1,000원



산후 조리에 좋은 노란 호박!
이노작용을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어 산후 붓기 빠지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발아율이 매우 좋습니다.
■ 3립 : 3,000원



노화를 예방해주는 고마운 빨간무(비트)
파종 후 20일 만에 수확 가능합니다. 실내,외 어디든 잘 자랍니다.
■ 1g : 2,000원



흙 없이 기르는 새싹채소!
씨앗을 하루정도 물에 불렸다가 물 적신 솜위에 뿌린 뒤 5~7일이면 바로 수확하여 먹을 수 있습니다.
■ 1g : 1,000원



봄~가을까지 계절따라 다르게 연출되는 26종의 야생화
26종의 종자가 혼합되어 개화시기에 따라 다양한 꽃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년생 종자로 이루어져 매년 관상이 가능합니다.
■ 파종 : 연중가능 | 50g : 15,000원

꽃백합 절찬리 판매중!

2014년 새로운 정원을 가꾸어 보세요.

관목사이 또는 군식으로 식재하면 매우 좋습니다.

특히 관목사이에 혼성으로 식재하면 **효과가 두배!!**



여러분의 정원에 색깔과 향기를 다양하게 하고,
정원 구조와 생육환경도 풍성하게 가꿀 수 있습니다.

GardenJoa
가든조아

한국 최초 독일식 온천리조트

테르메덴 40% 할인권

[기간] 2014. 5. 1 ~ 2014. 5. 30

이용안내

- 스파 이용에 한해서만 할인 적용됩니다.(사우나 이용 제외)
-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1매 2인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본 이용권을 매표소에 제시하여 주십시오
- 본 이용권은 중복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 본 이용권은 비매품으로 판매 및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AK레저(주)

Tel. 031-645-2000 www.termeden.com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372-1

월간 가든인

Tel. 031-712-7009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송곡리 696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받는 사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성미로 924번길 87가
든인 Tel.031-712-7009

4 6 7 - 8 7 2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받는 사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성미로 924번길 87가
든인 Tel.031-712-7009

4 6 7 - 8 7 2

편집후기

아름다운 5월. 산과 들은 초록으로 채색됐고, 정원의 꽃들은 저마다의 색으로 피어올랐다. 식막함이 초록으로 물드는 시기. 열두 달 중 최고의 달이다.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는 이의 가슴을 깊이 울렸고, 가든인 잡지를 만들면서 매일 다르게 변화하는 정원은 그 자체가 작품이었다.

예쁘게 변화하는 나날이치런 창간 1주년을 맞이하는 5월 또는 감춰려 쉽지 않았다. 좀더 많은 것을 담기위한 가든인에 대한 생각은 끝에서도 장미를 잊는지 종종 나타났었다. 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고민과민을 해보지만 막상 일의 진척은 맘대로 되지 않았다.

가든인아~~! 첫돌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앞으로의 1년을 좋은 기사로 좋은 편집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힘을 불어넣어 결집할 진심으로 바라며... 파이팅을 마음 속 깊이 외칩니다.

발행

우리꽃영농조합법인

김영재 경희대학교 명예 교수

박공영 우리씨드(Unseed)그룹 대표 / 이학박사

고문 이순영 前 환경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명

편집위원 김광두 前상명대학교 산업대학 겸임교수

김광춘 대림원예중요(주) 대표

김귀순 (주) 그린페이퍼 대표

박신애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 교수

인왕식 농학 박사 / 씨드림대표

우정아 경기조경기술대학 강사/가든디자이너

유병수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상담소장

윤정식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겸임

윤평설 삼육대학교 명예 교수

이정식 前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이중식 서울여자대학교 명예 교수

최주권 농학박사

각원기자 김지태 jsummer@gmail.net

황주리 junie777@hotmail.net

주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성미로 924번길 87

전화 031-712-7009

팩스 031-634-7991

Gardenin

가든플래너 박공영의

정원 연출 기법과 식물 선택 노하우의 모든 것

우리꽃이 제안하는 조경용 식물 가이드북

한국의 대표적인 정원 테마가 시작됩니다.

계절별 변화하는 살아있는 자연이 다가옵니다.

유럽식 정원, 이제 한국의 집과 도심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발간 10개월 만에 완판, 초판 발행 5쇄의 베스트셀러
- 교과서적 식물도감과는 다른 현장 경험을 통한 살아있는 정보와 올 컬러 사진 제공
- 혼성 혼합식재, ARI Garden, E&P(생태연못), 벽면녹화, 조경용 지피식물의 적용과 관리(A-Z)
- 현장 적용된 정원 연출 사례 제시 및 각 적용 식물의 특성 비교
- 봄부터 겨울까지 연중 꽃이 피는 혼성 혼합 식재의 비법 공개
-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는 연중 테마 정원 ARI Garden
- 1000여종 식물의 습성과 특성, 식재법을 올 컬러로 제공



가든인 독자 특별 할인가
20,000원 (정가 32,000원)



조선왕조 500년 온천의 명소 이천! 품격이 다른 온천수 – 테르메덴



중부·수도권 제일의 온천으로 테르메덴 선정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여행작가협회 그리고 관광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이천 '테르메덴'을 중부·수도권의 최고의 온천으로 선정하였다. 테르메덴 온천수는 자극성이 강한 유황천이나 산성천 등과는 달리, 알카리성 온천으로 여러 가지 효능의 성분이 골고루 혼합된 온천수이다. 수질은 부드럽고 온화하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적합하고 특히 병후 회복과 건강 증진, 피로회복, 스트레스 해소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을 완화하고 피부를 아름답고 부드럽게 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

삶의 무게를 느낀다면 **단언컨데** 온천욕은 **가장 완벽한 힐링**입니다.



셔틀버스 운영시간

이천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구 제일은행)앞에서
테르메덴 무료 셔틀버스 이용(약 15분 소요) ⇒ 이천 테르메덴 도착

구분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앞 출발)	테르메덴 ⇒ 이천터미널 (테르메덴 본관 앞 출발)
매일 (월~일)	08:20 09:20 10:20 11:20 13:00 14:20 15:20	12:40 14:00 15:00 17:30 18:30 19:30

* 만차 및 도로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에이케이레저(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372-1
문의 : 031)645-2000